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선어말어미
‘-겠-’, ‘-더-’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虞 婷 婷

2018年 2月

碩士學位論文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선어말어미
‘-겠-’, ‘-더-’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虞 婷 婷

2018年 2月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선어말어미 ‘-겠-’, ‘-더-’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裴 泳 煥

虞 婷 婷

이 論文을 國語國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12月

虞婷婷의 國語國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신 우 봉 (인)

委 員 송 현 정 (인)

委 員 배 영 환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7年 12月

A Study on Prefinal Endings, '-Get(겠)-' and '-Deo(더)-' for Chinese Learners

Ting-Ting Yu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Huan Ba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17. 12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	4
1.3. 연구사 검토	5
1.4. 논의의 구성	9
2. 이론적 배경	11
2.1. 선어말어미의 의미	11
2.2. 선어말어미의 통사적 제약	13
2.3.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이론	14
3. 선어말어미 ‘-겠-’, ‘-더-’의 의미 기능과 제약	17
3.1.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 기능	17
3.2. 선어말어미 ‘-겠-’의 통사적 제약	19
3.3.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 기능	33
3.4. 선어말어미 ‘-더-’의 통사적 제약	39
4. 선어말어미 ‘-겠-’, ‘-더-’의 교수·학습 방안	54
4.1. 선어말어미 ‘-겠-’, ‘-더-’의 오류 양상	54
4.2. 선어말어미 ‘-겠-’, ‘-더-’의 교수·학습 방안	67
5. 결론	103
참고 문헌	105
ABSTRACT	110

표 차례

<표 1> 통사적 제약 각 항목 양상	4
<표 2> ‘-겠-’의 통사적 제약	26
<표 3> 의미 범주에 따른 연결어미와의 공기 제약	27
<표 4> ‘-겠-’ 관련 대화에 따라 각 의미 도입	68
<표 5> ‘-겠-’의 의미 기능 교수·학습 방안	69
<표 6> ‘추측’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학습 방안	70
<표 7> ‘의지’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학습 방안	71
<표 8> ‘가능·능력’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학습 방안	72
<표 9> ‘-겠-’의 연결어미 공기 제약 교수·학습 방안	73
<표 10> ‘추측’의 의미로 쓰인 ‘-겠-’의 제약 연습 문제	74
<표 11> ‘의지’의 의미로 쓰인 ‘-겠-’의 제약 연습 문제	75
<표 12> ‘가능·능력’의 의미로 쓰인 ‘-겠-’의 제약 연습 문제	75
<표 13> ‘-겠-’의 제약 연습 종합 문제	76
<표 14> ‘-겠-’의 연결어미와 공기 제약 연습 문제	77
<표 15> 드라마 대화문 중 ‘추측’ 의미 ‘-겠-’의 제약 양상	78
<표 16> 드라마 대화문 중 ‘의지’ 의미 ‘-겠-’의 제약 양상	80
<표 17> 드라마 대화문 중 ‘가능·능력’ 의미 ‘-겠-’의 제약 양상	81
<표 18> ‘-겠-’의 통사적 제약 정리	83
<표 19> ‘-더-’의 관련 대화에 따라 각 결합형 도입	84
<표 20> ‘-더-’의 문법 결합형을 인식	85
<표 21> ‘-더-’의 연결어미 ‘-더니’ 제약 교수·학습	86
<표 22> ‘-더-’의 종결어미 ‘-더라’ 제약 교수·학습	89
<표 23> ‘-더-’의 종결어미 ‘-더라’ 제약 교수·학습	90
<표 24> ‘-더-’의 연결어미 ‘-더니’ 제약 연습 문제	91
<표 25> ‘-더-’의 종결어미 ‘-더라’ 제약 연습 문제	93
<표 26> ‘-더-’의 관형사형 어미 ‘-던’ 제약 연습 문제	94

<표 27> 드라마 대화문 중 연결어미 ‘-더니’ 제약 양상	94
<표 28> 드라마 대화문 중 종결어미 ‘-더라’ 제약 양상	97
<표 29> 드라마 대화문 중 관형사형 어미 ‘-던’ 제약 양상	99
<표 30> ‘-더-’의 각 결합형 통사적 제약 정리	101

1. 서론

1.1. 연구 목적

한국어의 ‘어미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¹⁾ 특히 고립어인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어미 체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어의 어미는 위치에 따라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²⁾로 나뉜다. 선어말어미 중 ‘-겠-’과 ‘-더-’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시제·상·서법³⁾ 범주에서 가장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겠-’과 ‘-더-’는 다른 선어말어미에 비해 사용 제약이 심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며 많은 오류를 범하는 문법 항목이다. 지금까지 ‘-겠-’과 ‘-더-’에 대한 연구는 통시적·공시적인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의미와 기능도 중요하지만 활용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선어말어미 ‘-겠-’과 ‘-더-’의 통사적 제약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오류 유형의 파악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겠-’과 ‘-더-’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어말어미를 정확히 활용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국립국어원(2006:34)에서는 한국어의 특징을 음운, 어휘, 문법, 화용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는 문법적 특징에 속하는 어미가 있어서 매우 발달하였다. 문장을 끝맺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의 다섯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 속에 다시 많은 어미가 있어서 듣는 사람(청자)을 높이는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원인, 이유, 조건 등 여러 가지 의미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도 여러 가지 연결어미를 사용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어의 어미는 어간과 더불어 한 단어를 이루더라도 그 문법적인 뜻이 문장 전체에 미친다.

2) 선어말어미를 보조어간이라 불린 견해는 이주행(2011:192)에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시제는 ‘어떤 행위, 사건,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이고, 상(aspect, 相)은 ‘어떤 상황의 시간선상의 한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선상의 분포 또는 여러 가지 내적 시간의 구성을 가리켜 주는 문법범주’이며, 서법은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임재진, 1998)’이다.

선어말어미 가운데 ‘-겠-’과 ‘-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어말어미 ‘-겠-’과 ‘-더-’는 시제·상·서법 범주에서 복잡한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서법 범주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문법 범주에 포함된다. 한국어에서는 서법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양태⁴⁾가 중국어에서는 주로 어휘 수단으로 실현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서법은 주로 어말어미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에 써 왔지만 요즈음은 어말어미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기능까지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경희(1985)는 사건 자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선어말어미 ‘-겠-, -더-’로, 어말어미 ‘-구나, -지, -네’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둘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겠-’과 ‘-더-’의 문법적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윤진·노자니(2003)는 양태 표현은 초·중급 교재에 있는 표현들이어서 한국어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선어말어미 ‘-겠-’과 ‘-더-’는 서법 범주에 속하여 다른 선어말어미에 비해서 사용 제약이 심하기 때문이다. 즉 두 선어말어미는 다양한 통사적 제약을 갖고 있어서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다.

선어말어미 ‘-겠-’과 ‘-더-’에 대한 통사적 제약은 다음과 같다.

(1) 인칭 제약

- 가. 철수는 이 일을 하겠다. (의지 ×) → (추측 ○)
- 나. 철수는 이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의지 ○)
- 다. 나는 찬물을 많이 마시더니 배가 아파요. (×)
- 라. 나는 찬물을 많이 마셨더니 배가 아파요. (○)
- 마. 나는 놀이공원에 가더라. (×)
- 바. 나는 어제 밤에 꿈에서 놀이공원에 가더라. (○)
- 사. 철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 아.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4) 고영근(1986:396~7)에서는 양태는 서법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영역은 물론 활용에 의한 굴곡적 층위를 비롯하여, 명사, 동사, 부사 등의 어휘적 층위, 어순 등의 통사적 층위, 억양 등의 음운적 층위에 두루 걸쳐 실현되는 범주라고 하였다.

(2) 서술어 제약

가. 내가 날씬하면 예쁘겠다. (형용사) (의지 ×) → (추측 ○)

나. 나는 내 생활에 충실하겠다. (형용사) (의지 ○)

(3) 시제 제약

가. 나는 어제 식당에 가겠다. (의지 ×) → (추측 ○) (과거시제 제약)

나. 나는 어제 식당에 가겠다고 했다. (의지 ○)

다. 가게에 갔더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발견 ×) (후행절 미래시제 제약)

(4) 문장유형 제약

가. 내일 회사에 가겠자. (청유문) (×)

나. 빨리 준비해서 나가겠라. (명령문) (×)

다. 우리는 미술관에 가더자. (청유문) (×)

라. 미술관에 가더라. (명령문) (×)

(5) 연결어미의 공기 제약

가. 철수는 아침을 먹겠으면서 신문을 보겠다고 했다. (×)

나. 철수는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겠다고 했다. (○)

(6) 선행 동사 제약

가. 이것이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 의자이다. (○) (지속동사)

나. 감기에 걸리던 사람이 저예요. (×) (순간동사)

(7) 의미 제약

가. 아까 먹던 수박은 어디 갔어요? (○) (미완료)

나. 어제 먹었던 수박은 하나 더 사요. (○) (완료)

넷째,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겠-’과 ‘-더-’에 대한 오류는 다른 선어말어미에 비해 자주 발생한다. 조철현(2002)에 따르면 ‘-겠-’은 주로 시제에서 오류를 보인다고 한다. ‘-겠-’은 단순 미래뿐만 아니라 ‘추측’, ‘의지’ 등의

의미도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활용할 때 자주 오류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더-’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에서도 오류가 많다. ‘-던’과 ‘-었 던’이 갖는 기능이 달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선어말어미 ‘-겠-’과 ‘-더-’의 통사적 제약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오류 양상의 파악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두 선어말어미의 쓰임에 이해를 높일 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선어말어미의 쓰임을 정확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 될 것이다.

1.2. 연구 방법

‘-겠-’과 ‘-더-’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여 체계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 두 선어말어미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약 상황을 분석하겠다. ‘-겠-’은 의미 구분에 따라 통사적 제약을 구분하며, ‘-더-’는 각각의 문법 항목을 통해 의미별로 통사적 제약을 구분하겠다. 여기서 분설할 통사적 제약의 각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통사적 제약 각 항목 양상

1차	인칭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문장 유형 제약
2차	1인칭 주어 제약	동사 제약	과거시제 제약	평서문 제약
	2인칭 주어 제약	형용사 제약	현재시제 제약	의문문 제약
				명령문 제약
3인칭 주어 제약	체언+이다	미래시제 제약	감탄문 제약	

국립국어원(2006)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에 제시된 예문을 활용하

여 선어말어미 ‘-겠-’이 ‘추측’, ‘의지’, ‘가능·능력’의 의미 기능에 따른 통사적 제약과 연결어미와의 공기제약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겠다. 선어말어미 ‘-더-’는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의 통사적 제약과 관형사형 어미 ‘-던¹’에 대한 제약을 분석하겠다. 이 중 연결어미 ‘-더니’는 의미 기능에 따라 ‘-더니¹(원인)’와 ‘-더니²(대조)’, ‘-엇더니’는 ‘-엇더니¹(원인)’과 ‘-엇더니²(발견)’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겠다. 종결어미 ‘-더라’는 의미(‘회상·보고’, ‘감정 표현’ 그리고 ‘혼잣말’)⁵⁾에 따른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겠다. 관형사형 어미 ‘-던’은 선행 동사 유형 제약과 ‘-던¹’⁶⁾과 ‘-엇던’의 의미 제약을 분석하겠다.

또한, 한국어 ‘-겠-’과 ‘-더-’의 통사적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드라마 대본⁷⁾을 활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도입(Warm-up) →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활용(Use) → 마무리(Follow-up)’의 5단계 교수 모형을 중심으로 ‘-겠-’과 ‘-더-’의 제약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대화나 문장을 사용하겠다. 제시 단계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하여 ‘-겠-’, ‘-더-’의 의미를 주로 제시하고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겠-’, ‘-더-’의 제약에 초점을 맞추어 제약 현상을 제시할 것이다. 연습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겠-’, ‘-더-’의 통사적 제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활용 단계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대본에 나타난 예문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이 ‘-겠-’, ‘-더-’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학습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 내용에 대한 정리이다.

1.3. 연구사 검토

선어말어미 ‘-겠-’에 대한 선행연구는 ‘-겠-’의 의미 기능 파악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미래’, ‘추측’, ‘의지’, ‘가능’, ‘능력’ 등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였다.

5) 국립국어원(2006:354-356)에서는 ‘-더라’의 의미 기능을 인용하였다.

6) ‘-던¹’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던²’은 ‘-더냐’의 준말이다.

7) 여기서 다루는 드라마 대본은 ‘폴하우스’, ‘미남이시네요’와 ‘착한 남자’에서 참조하였다.

‘-겠-’에 대해서는 시제와 양태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다. ‘-겠-’을 ‘미래’ 시제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양태 의미로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선어말어미 ‘-겠-’을 ‘미래’ 시제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시경(1910), 최현배(1937) 등이 있다. 주시경(1910)은 시제(‘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를 설정하면서 ‘-겠-’을 ‘미래시제’만을 나타내는 시제형태소로 제시하였다. 최현배(1937)은 ‘-겠-’의 ‘시제설’을 제시하고, 주어가 결심, 협박, 약속 등에 따라 나타난 유의지 미래와 주어의 예견, 추량을 표현하는 무의지 미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많은 학자들은 ‘미래시제설’을 부정하고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 의미 관점에서 ‘-겠-’의 의미를 ‘추측’, ‘의지’, ‘가능’, ‘능력’의 의미로 보기도 하였다.

선어말어미 ‘-겠-’을 양태 의미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신창순(1972), 서정수(1977), 임홍빈(1980), 김차균(1981), 성광수(1984) 등이 있다. 신창순(1972)은 ‘-겠-’을 ‘추측’과 ‘의지’로 보았다. ‘추측’이나 ‘의지’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관용 표현이라고 처리하였다. 서정수(1977)은 ‘-겠-’을 ‘추측’과 ‘의도’로 보았다. 이기용(1978)은 ‘-겠-’이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강한 ‘추측’의 의미로 보았다. 임홍빈(1980)은 ‘-겠-’이 ‘대상성’을 자기 지배성에 따라 ‘추측’과 ‘의지’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김차균(1981)에서는 ‘-겠-’의 의미는 ‘추측’, ‘의지’, ‘능력’, ‘가능’ 등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광수(1984)는 ‘-겠-’을 ‘-르 것이’과 비교하면서 ‘-겠-’은 ‘-르 것이’보다 불확실한 ‘추정’의 의미로 보았다. 마홍엽(2005)은 선어말어미 ‘-겠-’의 ‘추측’, ‘미래’, ‘의지’, ‘능력’의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 대응하는 바를 연구하였다.

선어말어미 ‘-더-’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더-’의 의미를 ‘회상’, ‘보고’, ‘지각’, ‘새로 알게 됨’, ‘기준시점의 이동’ 등으로 파악한 것이다. ‘-더-’의 의미에서 최현배(1937)는 ‘-더-’는 ‘도로생각때매김(회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잇는 연구로 나진석(1971), 고영근(1974)이 대표적이다. 나진석(1971), 고영근(1974)은 ‘-더-’를 회상법의 범주로 파악하였다.

‘-더-’의 ‘회상’ 의미를 부정하고 ‘보고’가 유일한 의미라고 본 연구로 서정수(1977)가 있다. 서정수(1977)는 ‘보고’가 ‘-더-’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였다. ‘-더-’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체험한 일을 알릴 경우만 사용하고 그 밖의

다른 서술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더-’가 사용된 문장은 정보 전달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보다 두드러지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더-’의 ‘새로 알게 됨’ 의미를 주장하는 연구로 김차균(1980), 박재연(1999) 등이 있다. 김차균(1980)에서는 ‘-더-’의 ‘회상’을 부정할 수 없지만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때에 말하는 사람이 ‘새로 알게 됨’을 회상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더-’의 기능을 제시하고 제약 해소를 증명해 보았다.

선어말어미 ‘-더-’를 ‘지각’으로 보는 연구로 장경희(1983), 박재연(2008) 등이 있다. 장경희(1983)는 ‘-더-’의 의미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지각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박재연(2008)도 양태 선어말어미 ‘-더-’는 인식양태로 보고 ‘지각, 새로 앎’을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1990년 초부터 ‘-더-’를 ‘증거성⁸⁾’으로 보는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더-’를 ‘증거성’으로 보는 논의는 김남길(1990)을 시작하여 이효상(1995), 송재목(1998)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송재목(2007)은 ‘증거성(evidentiality)’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에 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원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화자가 명제내용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 ‘-더-’에 대해서는 ‘무책임성(김영희, 1981)’, ‘객관적 전달’, ‘무의도’, ‘비현장성’, ‘비로소 앎’(유동석, 1981) 등 그 의미 기능에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어말어미 ‘-겠-’, ‘-더-’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어학 범위에서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어 교육 적용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에 들어서 선어말어미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선어말어미 ‘-겠-’과 ‘-더-’의 의미가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한 왜 이 의미를 학습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의 상당수는 의미 선정에 따른 ‘-겠-’의 특징과 중국어의 대비 연구를 통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선어

8) ‘증거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Boas(1947)이며 후에 Jakobson(1944/1959/1971)에 의해 확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의 증거성에 관한 한국인 학자의 논의는 먼저 김남길(1990)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인아, 2010:15)

말어미 ‘-더-’는 그의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 방안 연구가 중심이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선어말어미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김려연(2011), 김풀잎(2013), 이해영(2005) 등이 있다. 김려연(2011)은 한국어 선어말어미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선어말어미를 정의하고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초·중·고급 과정에 맞게 교수·학습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방안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김풀잎(2013)은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시제 선어말어미를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시제 선어말어미 교수·학습 방안을 탐색하여 구축하였다. 이해영(2005)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미 학습에서 의미적으로는 과거 표현에 대해 어려워하고 기능별로 보면 보통 관형형을 어려워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선어말어미 ‘-더-’를 쓰는 대신 다른 관형사형 어미를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선어말어미 ‘-겠-’에 대한 중국어와 대비하는 대표적인 논의로는 俞旭峰(2012), 張瑜(2013) 등이 있다. 俞旭峰(2012)은 ‘-겠-’의 의미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였다. ‘-겠-’에 선·후행하는 요소, ‘시제 및 부사어의 제약’, ‘주어의 제약’, ‘서술어의 제약’, ‘문장유형의 제약’에 대해 고찰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張瑜(2013)는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은 ‘-겠-’과 ‘-(으)ㄹ 것이다’와 중국어 추측 양태 조동사 ‘會’, ‘要’, ‘可能’의 의미와 제약을 살펴보고, 추측의 양태 표현의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였다.

‘-더-’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희정(1996)의 ‘-더니’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논의 이홍식(2003)은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를 통시적 변화의 결과로 논의하였다. 박진경(2009)은 ‘-더-’의 문법 항목⁹⁾의 기술을 분석하고 과거 장면에 따라 재생과 그에 대한 지각이라는 의미로 고찰하였다.

‘-더-’에 관련한 문법 항목의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더-’의 의미는 보통 ‘과거 회상’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과거 회상’과 더불어 다양한 의미들이 같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자

9) ‘-더-’에 대한 ‘과거 회상’, ‘보고’, ‘증거성표지’ 이 세 가지 의미 기능과 문법항목으로는 종결어미 ‘-더라고요’를 선정한 다음에 이 ‘-더라고요’의 세 가지 의미에 따른 각각의 교수 방안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들에게 ‘-더-’의 의미에 관해 혼란을 가져다준다. 또한 ‘-더-’에는 제한적 용법이 있어서 학습자에게 이를 학습하는 동안,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와 관련한 문법항목의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박선희(2001)는 ‘화자의 과거지각 사태’를 중심으로 ‘-더라’의 의미 영역을 분석하고 교수 방법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더-’에 대한 사태가 말하는 사람의 과거 지각사태라는 것을 부각시켜 제약 현상을 규칙으로 제시하였다. 오로지(2011)는 ‘-더-’와 형태적·의미적으로 유사한 ‘-더-’의 결합형 ‘-던’을 선정하여 문법적 제약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더-’의 기본적 의미를 ‘시점을 발화시점 전의 특정시점으로 옮겨서 과거에 지각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어 교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수 방안을 살펴보면 ‘-더-’가 갖는 ‘시점의 이동과 듣는 사람과의 상황을 공유’라는 의미를 시각 자료 제시와 설명으로 전달할 뿐이다. 전자의 경우는 학습자가 혼자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선어말어미 ‘-겠-’, ‘-더-’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선어말어미 ‘-겠-’, ‘-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대체로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제약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제약 사항을 기반으로 ‘-겠-’, ‘-더-’를 한 자리에 모아서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제약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학습 방안을 마련하려는 논의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겠-’과 ‘-더-’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정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1.4. 논의의 구성

이 논문은 선어말어미 ‘-겠-’, ‘-더-’를 중심으로 선어말어미 통사적 제약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두 선어말어미를 사용할 때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 제약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형태, 의미, 용법과

제약, 그리고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중국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선어말어미의 의미, 통사적 제약의 개념과 범주, 선어말어미에 어떠한 통사적 제약이 따르는지 제시하고 한국어 교수법에 다양한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선어말어미 ‘-겠-’, ‘-더-’에 관한 통사적 제약 및 기타 제약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선어말어미 ‘-겠-’, ‘-더-’를 활용하면서 자주 범하는 제약에 따른 오류들을 제시하며 선어말어미 ‘-겠-’, ‘-더-’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어말어미의 의미

선어말어미는 종래 보조어간(補助語幹)이라고 불려 왔던 형태소다. 요즈음은 보조어간이라는 용어 대신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선어말어미를 보조어간이라 했던 견해는 최현배(1959), 김형규(1977) 등이 있다. 최현배(1959)는 『우리말본』 개정판에서 보조어간(補助語幹)을 움직씨(動詞)의 도움줄기로 설정하여 10개의 보조어간(補助語幹) 유형(사동, 피동, 겸비, 높임, 시간, 가능, 추량, 확인, 습관, 강세)을 제시하였다. 김형규(1977)는 『國語學概論』(중보판)에서 최현배의 보조어간 유형 중, 사동과 피동은 접사(接詞)로 규정하여 보조어간에서 분리하고, 나머지 유형은 시제(時制)와 상(相), 존대(尊待)의 보조어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語末語尾) 사이에 나타난다.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언의 어간에서 가장 먼 거리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소를 어말어미(final ending)라고 하는 데 대하여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는 그 출현 위치로 보아 어말어미보다는 선행하는 위치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라는 동사의 어간이 ‘타다, 타, 타게, 타고, 타지, 타면, 타니’ 등과 같이 활용하는 경우, 활용형은 다만 ‘타-’라는 어간에 ‘-다, -아/어, -게, -지, -고, -으면, -으니’ 등과 같은 어미가 연결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탯다, 탯었다, 타겠다, 타셨다, 타시겠다, 타더라, 타는다’ 등과 같이 활용하는 경우는 동사의 어간 ‘타-’ 뒤에 선어말어미 ‘-있/었-, -겠-, -으시-, -더-, -느-’ 등과 같은 형식이 나타나고, 그 뒤에 ‘-다/라’ 등과 같은 어말어미가 연결되어 활용형을 이루게 된다.

이익섭(1986:139-140)에서는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는 그 뒤에 반드시 다른 어미(즉 어말어미)가 와야만 하는 어미라 정의하고 위치적 특징을 먼저 제시하였

다. 이익섭은 보조어간이 결합된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실을 거론하며 보조어간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어간이라 규정되는 형태소들은 대다수의 어간에 결합하여 출현할 수 있어서 이를 활용의 일부를 담당하는 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논하였다. 이익섭에 따르면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시제(時制), 서법(敍法), 주체경어법(主體敬語法)으로 규정하고 시제는 과거(-았/었-), 대과거(-았었/었었-), 회상(-더-)으로 분류하고 서법은 '-겠-', 또는 '-리-'를 통해 추측, 의지 및 능력을, '-더-'는 현장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주체 경어법은 서술어의 어간에 '-시/으시-'를 결합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논하였다

고영근(1989)은 단어형성과 관련하여 어말어미(語末語尾)는 다음에 다른 어미가 오지 않아도 단어를 형성할 수 있는 폐쇄형태소(閉鎖形態素)임에 반하여 선어말어미는 다음에 반드시 어말어미를 요구하는 개방형태소(開放形態素)라고 보았다. 그리고 선어말어미는 후행어미(後行語尾)(語末 또는 先語末)와의 결합정도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않는 것, 제약을 심하게 받는 것, 제약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의 세 가지로 나누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분리적 선어말어미(分離的 先語末語尾)', 제약이 심한 것은 교착적 선어말어미(膠着的 先語末語尾), 중간 정도인 것은 수의적 선어말어미(隨意的 先語末語尾)로 정리하였다.

선어말어미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 '잡으시었겠사옵나이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주체존대법이나 존경법 형태라고 하는 '-으시-'가 가장 앞선 위치에 나타나며, 과거시제 또는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았/었-'이나 과거완료나 대과거를 나타낸다고 하는 '-았/었-'이 그 다음 위치에 나타날 수 있고, 그 뒤에 미래시제나 추측 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겠-'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시 그 뒤에 겸양형태 '-삽-'이 나타날 수 있고, 다시 그 뒤에 진행상이나 현재시제를 나타낸다고 하는 '-느-'가 올 수 있고, 그 뒤에 청자대우 또는 공손의 형태라고 하는 '-으시-'가 나타날 수 있다. '-느-'의 자리에는 '-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어말어미 형태의 종류는 더 많아진다.

이들 형태의 기능에 대해서는 문법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異見)이 논의되었다. 시제와 상의 개념이 어느 한가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며, '-으시-'나 '-삽-'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2.2. 선어말어미의 통사적 제약

통사론(syntax)은 단어(word)와 단어가 모여서 구(phrase)를 형성하고, 다시 구와 구가 모여서 올바른 문장을 구성(formation of sentences)하는 것을 연구하는, 즉 문장의 구조(structure of sentence)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문장이 구성요소의 연속체(syntagm)라면 필연적으로 순서와 요구되는 성분이 존재한다. 이는 언어가 갖는 특징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형태로든 제약(制約)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한 언어에서 제약이 특정 형식으로 실현되었을 때 이것을 통사적 제약(統辭的 制約)이라 한다. 바꿔 말하면 통사적 제약은 문법적인 문장만을 생성하고, 비문법적인 문장의 생성을 막아야 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남기심·고영근(1993)은 통사적 제약 문법형태소를 핵심적 요소와 요소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핵심적 요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시제, 문장 유형’ 등이 있고 비핵심적 요소는 ‘서법부사어, 정도부사어, 시간부사어, 처소부사어’ 등이 있다.¹⁰⁾ 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룰 ‘선어말어미의 통사적 제약’은 선어말어미가 문법으로 문장에서 적용할 때는 고정적이며,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어미를 함께 적용하면 안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선어말어미 ‘-겠-’의 제약에 대한 논의는 신창순(1972), 김순저(2012) 등에서 다루었다. 신창순은 ‘-겠-’의 제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겠-’은 미래 시제로만 보면 의도 뜻을 갖춘다. 둘째, ‘-겠-’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의도를 할 때 무조건 서술문으로 나타난다. 셋째, ‘-겠-’은 의문문에서 사용될 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다. 넷째, ‘-겠-’이 의도를 나타낼 때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

10)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3.

김순저(2012)는 선어말어미 ‘-겠-’의 통사적인 특징을 알기 위해서 주어 인칭 제약, 시제 제약, 서술어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등을 논하였다.

선어말어미 ‘-더-’의 통사 제약에 대한 연구는 주어 제약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김차균(1980)은 ‘-더라’의 ‘동일 주어 제약’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현상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2, 3인칭 주어의 문장에 심리 동사가 쓰일 수 없는 제약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 김영희(1981)는 동일 주어 제약과 비동일 주어 제약으로 나뉘서 분석하였다. 동일 주어 제약은 문장 중에 참여한 자가 얘기하는 조건들에 동작하는 동기를 볼 수 있고 모든 일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비동일 주어 제약은 구체적으로 명제를 볼 수 없고 화자가 말을 할 명제에 대한 책임 같은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논하였다. 장경희(1983)는 ‘-더-’의 용법상에 나타나는 주어 제약에 ‘-더-’의 의미가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주어일 때 화자가 자신의 지각적 능력에 따라 적당한 명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주어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장의 명제는 작위적인 명제를 부여해야 선어말어미 ‘-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서정수(1977:102)는 ‘-더-’는 발화할 때와 인지할 때가 달라야 한다는 제약이 대개 형태론적 제약, deixis제약, 몸소 살핌 제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2.3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이론

외국어 교육에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이론과 현장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교수이론을 연구해 왔다. 한국어 교육은 종래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이 주를 이루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외국의 교수법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전신 반응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등이 제시되었고 1990년대 들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¹¹⁾ 등이 소개되었다.

11) 한국어 교수법은 문법 번역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다중 지능 접근법, 전신 반응 교수법, 협동 학습법, 직접식 교수법, 내용 중심 접근법, 총체적 접근법과 의사소통 접근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법은 Richards & Rodgers, 1996; Brown, 2001.에서 참조하였다. (김경령, 2010. 재인용)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은 오랫동안 언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온 교수법이다. 주된 과정은 학습 목표어의 문법 규칙을 설명하고 예외 규칙을 암기시켜 단기간 이내에 학습자가 목표어의 문법을 체계를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언어를 분석하도록 유도시킴으로써 문법을 교수한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대부분 교사로부터 학생들에게 행해지고 있어서, 학생 간의 상호 작용도 없고, 학생이 시작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청화식 교수법(The Audiolingual Method)은 2차 세계대전 후 행동주의 학자들의 언어 습득 이론에 따라 영향을 받은 교수법으로 훈련의 강화와 반복을 통해 언어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여 고안되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청화식 교수법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침묵식 교수법(The Silent Way)은 교육 철학을 근거로 개발된 교수법으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단어, 구, 문장 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특히 학습 목표어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법이다. 교사 중심의 수업과 달리 침묵식 교수법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에서 교수법의 의의가 있다. 전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은 흔적 이론을 근거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수법이다. 이 교수법을 통해 신체 활동을 이용하여 배우는 언어는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이 더 용이하다. 김재윤(1986)에서는 목표어의 많은 단어 구조와 문법을 명령문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내용 중심 접근법(Content Based Instruction)은 언어 유형을 단계에 따라 나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지식 중심으로 가르치는 접근법을 말한다.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단계에 따라 목표 어휘, 담화, 문화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최근 들어 언어 교육 현장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아온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초·중·고급 단계에서 의사소통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언어의 화용적(話用的)인 면과 언어의 구조적인 면을 서로 얽히게 하여 실제적 언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Brown(1994)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언어 조직 형태가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지만 화용적인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면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하고 있으며 형태적·의미적 정보와 같이 담화상황에 따른 화용 정보를 파악하고 담화상황에 맞는 대화를 구성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방면에서 목적을 둔다고 논하였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언어 사용법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 실생활에 적합한 언어를 교육을 한다는 점, 둘째, 구조, 문법 등 언어의 형태를 중시하지 않고 기능, 사회적 요소, 담화 요소 등이 주요 교육이 된다는 점, 셋째,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더 중시한 교육 목적을 설정한다는 점, 넷째, 학생들 간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수현장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황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유추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H. Douglas Brown(2008, 2009)는 의사소통 중심을 토대로 한 문법 교육에 대해 논하면서 의사소통적 접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하여 형태 중심지도(form-focused instruction)의 중요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형태 중심지도법이란, ‘학습자들이 언어 형태에 관심을 갖도록 암시적, 명시적 유도하는 모든 교육적 노력’을 말한다. 즉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문법의 중요성을 더하는 교수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 교수법을 활용하여 문법교육 및 과제 중심의 말하기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해영(1998), 현운호(2001)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5단계 교수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영(1998)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수업 진행을 위해 과제 수행 이전 5단계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현운호(2001)에서는 서로의 이해가 중요한 말하기에서는 과제 수행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 기술이 학습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보통 수업 구성으로 쓰이는 ‘도입→ 제시 → 연습 → 활용 → 마무리’ 단계 중 활용 단계를 과제 수행 단계로 독립시켜 과제 학습 방식으로 수업 구성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선어말어미 ‘-겠-’, ‘-더-’의 의미 기능과 제약

지금까지 선어말어미 ‘-겠-’과 ‘-더-’는 주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는 대체로 ‘미래’와 ‘추측’, ‘의지’로 보는 견해도 있고, ‘가능·능력’을 추가해 보는 견해도 있다.¹²⁾ 양태 의미¹³⁾ 기능을 하는 선어말어미 ‘-더-’는 통사적 제약이 많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매우 생소하게 여기며 어려워하는 형태소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더-’의 의미와 기능과 문법 사항에 초점을 두어 왔다¹⁴⁾. 이 장에서는 ‘-겠-’과 ‘-더-’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고 각각의 통사적 제약과 기타 제약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¹⁵⁾

3.1.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 기능

1) 선어말어미 ‘-겠-’은 미래에 나타나는 일을 강조한다.

- (1) 잠시 후에 2시가 되겠어요.
- (2) 지금부터 최 선생님이 미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3)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여기는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는 ‘잠시 후에 2시가 될 것’, ‘경제에 대해 말씀드릴 것’, ‘날씨가 흐릴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다.

12) 임동훈(2001)에서는 ‘-겠-’이 가능성이나 동작주의 능력을 표시한다고 기술하고 ‘-겠-’의 ‘가능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13) 양태란 문장 내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를 말한다.

14) 신현숙(1980), 심보경(1994), 박진경(2008), 선광용(2011), 박근영(2013) 등은 ‘-더-’의 의미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종결어미 ‘-더라’를 분석하여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로지(2011), 장뢰(2011), 김수태(2014), 관훈훈(2016) 등은 관형사형 어미 ‘-던’에 통해 ‘-더-’에 대해 고찰하였다.

15)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국립국어원(2006)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에 나와 있는 예문과 드라마 대본 중의 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2) ‘-겠-’은 과거,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을 표현한다.

(4) 이번 운동회에는 먼경이도 참가하겠군요.

(5) 오늘은 휴일이니까 철수도 집에 있겠지.

(6)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참 기뻐했니?

(7) 하늘이 흐르니까 비가 오겠네.

(4)는 ‘-군요’와 같이 쓰일 때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5)은 현재의 일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다. (6)은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다.

(7)은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다.

3) 선어말어미 ‘-겠-’의 의도적 의미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의문문에서는 상대방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8)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9) 지금 백화점에 가는데 같이 가지겠어요?

(10) 철수도 하겠다고 했어요.

(8)은 화자가 이 일을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9)는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고 확인하려는 것이다. (10)은 3인칭 주어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1인칭 주어로 의도적인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4) ‘-겠-’은 가능성·능력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11) 서류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12) 이 일을 어떻게 둘이 할 수 있겠니?

(13)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겠다.

(12), (13)은 선어말어미 ‘-겠-’은 능력적 의미를 나타낼 때 ‘-르/-을 수 있다’,

‘-지 못하다’ 등 ‘관용형’과 같이 쓰이는 경우이다.

5) 선어말어미 ‘-겠-’의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강조할 때 쓰인다.

(14) 잘 모르겠습니다.

(15) 가. 추워서 죽겠어요.

나. 짜증나 미치겠어요.

(14)에서 ‘모르겠다’는 화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우회적 말하는 표현이다.¹⁶⁾ (15)가, 나)번 중의 ‘-겠-’은 ‘죽다, 미치다’ 등의 뒤에 쓰이면 앞의 형용사의 뜻을 강조할 수 있다.

3.2. 선어말어미 ‘-겠-’의 통사적 제약

선어말어미 ‘-겠-’에 대한 통사적 제약은 인칭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문장 유형 제약 그리고 공기 제약으로 나눠서 분석하고자 한다.

3.2.1. 인칭 제약

인칭 제약은 1인칭 주어 제약, 2인칭 주어 제약, 3인칭 주어 제약을 나눌 수 있다.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는 대체로 ‘추측’, ‘의지’, ‘가능·능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¹⁷⁾ 일반적으로 ‘추측’의 의미일 때는 1인칭 주어에 제약이 있고, ‘의지’의 의미로 쓰일 때는 2, 3인칭 주어의 제약이 있다. 반면, ‘가능·능력’을 나타낼 때는 인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¹⁸⁾

16) 서정수(1977)에서 1인칭 주어로 쓰일 때 선어말어미 ‘-겠-’은 말하는 이의 ‘의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분석해 왔지만 ‘-겠-’은 ‘모르-’와 결합한 후에 ‘-겠-’의 의미를 ‘의지’나 ‘추측’ 등으로 해석할 수 없다.

17) 유흔동(2012)에서는 선어말어미 ‘-겠-’의 양태 의미를 ‘추측’, ‘의지’, ‘가능’을 근거로 알아보는 것은 ‘-겠-’의 통사적 제약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18) 周慶來(2009)와 김순저(2012)는 선어말어미 ‘-겠-’이 ‘가능·능력’ 의미를 나타낼 때 인칭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먼저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¹⁹⁾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주어의 인칭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16) 가. 나는 비빔밥을 먹겠다. (*)²⁰⁾ → 의지
나. 너는 보면 알겠다.²¹⁾ (○)
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겠군요. (○)
라. 나도 이러다간 감기 걸리겠다. (○)

위 (16, 가)와 같이 평서문에서 서술어가 동사일 때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나는 비빔밥을 먹다’라는 화자 자신의 ‘의지’²²⁾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16, 라)와 같이 1인칭 주어인데 뒤에 동사는 자의성이 없으며, 즉 자발적인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감기에 걸리다’라는 ‘추측’의 의미를²³⁾ 나타낸다. (16, 나)와 같이 2인칭 주어의 문장이 자연스럽다. (16, 다)에서는 ‘-겠-’은 ‘가족들이’라는 3인칭 주어가 쓰였는데 ‘추측’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 자연스럽다.

과거형 선어말 어미 뒤에 오는 ‘-겠-’은 인칭 제약 없이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 (17) 가. 나는 그때 빵을 먹었겠다. (1인칭, 추측) (○)
나. 너는 그때 빵을 먹었겠다. (2인칭, 추측) (○)
다. 그는 그때 빵을 먹었겠다. (3인칭, 추측) (○)

위의 (17)와 같이 ‘나는(너는, 그는) 그때 빵을 먹었다’라는 과거의 일을 진술할 때는 인칭 제약이 없이 모두 ‘추측’ 표현이 가능하다.²⁴⁾

19) ‘추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추정, 추단, 추량’ 등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추측’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0)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다른 의미로 바뀌면 * 표시.

21) 您看一下的話就應該會知道的。〈풀하우스:1〉

22) 서정수(1977)에서는 ‘-겠-’은 평서문에 화자가 자신만의 의도를 나타낸다. 곧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만 써야 ‘-겠-’의 의도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23) 화자의 의도나 추측이나를 분별하는 요인을 파악한다는 점에는 홍종립(1985)가 [±자의성]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그 요인 파악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곧 화자가 자신이 행동자가 되어 자의성이 없는 행동을 하면 ‘-겠-’이 ‘추측’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 (18) 가. 내가 내일 학교에 오겠니? (1인칭, 추측) (○)
 나. 네가 내일 학교에 오겠니? (2인칭, 의지) (*)
 다. 철수가 내일 학교에 오겠니? (3인칭, 추측) (○)

위의 (18)과 같이 의문문에서는 ‘-겠-’이 청자의 추측을 묻거나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인다.²⁵⁾ (18, 가)는 1인칭 주어로 의문문에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청자 자신의 ‘의지’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18, 나)는 주어 2인칭이 ‘오다’의 행동주이어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의지’를 나타낸다.²⁶⁾ (18, 다)와 같이 3인칭 주어인 철수가 학교에 오냐고 청자의 판단이나 추측을 물어본다.

선어말어미 ‘-겠-’은 ‘의지’라는 의미로 나타날 때 인칭에 대한 제약이 있다.

- (19) 가. 나는 이 일을 하겠다. (○)
 나. 너는 이 일을 하겠다. (*) → 추측
 다. 철수는 이 일을 하겠다. (*) → 추측

- (20) 가. 내가 내일 도서관에 가겠니? (*) → 추측
 나. 네가 내일 도서관에 가겠니? (○)
 다. 그가 내일 도서관에 가겠니? (*) → 추측

- (21) 나는/너는/철수는 이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

(19, 가)는 화자가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20, 나)는 청자의 의지를 물어보는 뜻을 표현하였다. 이는 ‘-겠-’은 ‘의지’ 의미를 나타낼 때 화자의 강한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며, 화자가 본인 이외의 사람은 주관

24) 김순저(2012:29)는 과거의 사건이나 사태를 표현할 때 1, 2인칭 주어로 쓰일 경우라도 화자의 ‘추측’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5) 서정수(1996)에서 ‘의도’의 성립조건 중에 의문문의 경우는 ‘-겠-’은 청자의 의지를 묻게 된다고 하였다.

26) 홍종립(1985)가 [±자의성]의 개념을 토대로 의문문에서는 청자는 행동주가 되어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결정을 할 때에 ‘-겠-’이 ‘의지’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적인 의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평서문에서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1인칭 주어를 적용해야 하며, 의문문에서는 청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2인칭 주어를 적용해야 한다.²⁷⁾ 따라서 (19나, 다)와 (20가, 다)는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타인²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화자나 청자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과 같이 간접인용 방식으로 ‘의지’ 의미를 나타낼 때 인칭 제약을 받지 않는다.

3.2.2. 서술어 제약

서술어의 제약은 동사 제약, 형용사 제약, ‘체언+이다’ 제약으로 나눌 수 있다.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의 의미일 때는 서술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²⁹⁾ 이는 부동한 상황에는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반면, ‘의지’와 ‘가능·능력’³¹⁾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 제약과 ‘체언+이다’ 제약을 받는다.

먼저 선어말어미 ‘-겠-’이 ‘의지’의 의미로 쓰였을 때 나타나는 서술어의 제약을 살펴보겠다.

(22) 가. 다음 시험에서는 꼭 좋은 성적을 얻겠다. (○)

나. 내가 날씬하면 예쁘겠다. (*) → 추측

다. 내가 제일 멋진 사람이겠다. (*) → 추측

(22, 가)는 ‘내가 좋은 성적을 얻다’라는 화자가 자신의 ‘의지’³²⁾를 강조한다.

27) 서정수(1977)에서 ‘-겠-’은 평서문에서 화자가 자신만의 의도를 나타낸다. 곧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에만 ‘-겠-’이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정(2006:23)에서는 2인칭 동사의 ‘-겠-’은 평서문에서 ‘추측’을 나타내며, 의문문에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8) 타인은 평서문에서 화자 즉 1인칭 주어를 빼고 2, 3인칭 주어를 말하며, 의문문에서는 청자 즉 2인칭 주어를 빼고 1, 3인칭 주어를 말한다.

29) ‘-겠-’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서술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가. 내일 비가 오겠다. (○) (국립국어원, 2006년, 31쪽)

나.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늦겠다. (○) (<풀하우스:1>)

다. 저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겠다. (○) (국립국어원, 2006년, 31쪽)

30) 俞旭峰(2012:42)에서 참조하였다.

31) 최현배(1962)에서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고, 김차균(1981:14)에서는 구별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철수는 한 끼에 밥을 세 그릇은 먹겠다’의 문장에서 ‘철수는 한 끼에 밥을 세 그릇은 먹겠다’의 문장은 ‘가능’이 아니라 능력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오히려 ‘비가 오겠다’와 같은 문장을 ‘가능’의 문장으로 보고 있다. (박은정, 2007년, 7쪽. 재인용).

32) 서정수(1977)는 화자의 능동적인 행동에 관해서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홍종립(1985)에서 어떤 문장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느냐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느냐는 그 서술어에 부가되는

(22, 나) ‘형용사’와 (22, 다) ‘체언+이다’는 ‘의지’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화자인 ‘나’가 능동적인 행동주가 될 수 없는 형용사와 ‘체언+이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에 서술어는 형용사나 ‘체언+이다’일 때도 ‘의지’ 의미를 나타낸다.

(23) 가. 나는 내 생활에 충실하겠다. (○)

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의 후원자이겠다. (○)

(23, 가)와 (23, 나)는 서술어가 형용사와 ‘체언+이다’이라도 ‘의지’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판단주체의 행위에 대한 ‘자발성’ 때문이다. 화자가 자기 지배력을 표현할 수 있으면 행동성이 없는 동사이라도 ‘-겠-’은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³³⁾

한편, 선어말어미 ‘-겠-’은 ‘가능·능력’ 의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24) 가. 나도 그 수준이면 잘 하겠다. (○)

나. 아버지는 젊을 때 매우 멋있겠다. (*) → 추측

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겠다. (*) → 추측

‘-겠-’이 ‘가능·능력’의 의미로 쓰일 때 서술어는 동사만 된다. 다른 서술어들은 동작성, 행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³⁴⁾ (24, 가)는 자신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술한다. 반면 (24, 나)와 같이 형용사를 쓰일 때 ‘할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 매우 멋있으셨다’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며, (24, 다)와 같이 ‘체언+이다’ 형태를 쓰일 때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화자의 자의성 유무 즉 서술어가 [±자의성]을 가질 때에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33) 이경애(1984)에서는 ‘-겠-’이 각 서술어인 동사, 형용사, 지정동사와 결합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兪旭峰(2012:40)은 ‘명령형 종결어미’를 가질 수 있는 형용사는 ‘-겠-’의 ‘의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형용사는 ‘조용하다, 대답하다, 용감하다, 부지런하다, 충실하다, 침착하다’ 6개뿐이다.

34) 兪旭峰(2012:42)은 ‘형용사, 존재동사(있다), 판단동사(이다)’가 일반적으로 ‘-겠-’의 ‘가능·능력’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언들은 행위성, 동작성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2.3. 시제 제약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 의미를 나타낼 때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³⁵⁾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과거 시제 제약을 받는다. ‘가능·능력’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현재 시제에서 쓰이고 과거, 미래 시제와는 쓰이지 않는다.

먼저 선어말어미 ‘-겠-’이 ‘의지’의 의미로 쓰일 때 시제의 제약을 살펴보겠다.

- (25) 가. 나는 어제 식당에 갔겠다. (×)
나. 나는 지금 식당에 가겠다. (○)
다. 나는 내일 식당에 가겠다. (○)
라. 나는 어제 식당에 가겠다고 했다. (○)

유혼동(2012:21)은 ‘의지’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주체의 심리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일에 대해 ‘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25, 가)는 ‘어제’의 시간 부사일 경우에는 ‘-겠-’이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25나, 다)와 같이 ‘-겠-’은 미래시간에만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일 때에 적용된다. 한편, (25, 라)의 인용문에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일 수 있는데 이는 과거의 일은 그 당시로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선어말어미 ‘-겠-’은 ‘가능·능력’ 의미로 쓰일 때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의 제약을 받는다.

- (26) 가. 철수는 집에 도착했겠다.³⁶⁾ (*) → 추측

35) 국립국어원(2006:31)에서는 ‘추측’ 의미의 ‘-겠-’은 말하는 당시의 사건을 근거로 추측하는 것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다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보고) 이번 여행이 재미있으셨겠어요. (과거)
나.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 (현재)
다. 하늘을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네. (미래)

36) 유혼동(2012:15,20)은 ‘-었-’과 ‘-겠-’이 결합하는 경우는 ‘-었-’의 과거의 일이라서 과거 사실에 대해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는 형태이며 ‘과거의 추측’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김순저(2012:33)에서는 ‘-었-’이 결합되는 경우에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나. 아이고, 이 바지에 세 사람도 들어가겠어요. (○)

다. 철수는 내일 그 일을 하겠다. (*) → 추측

(26, 나)에서와 같이 현재 말하는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실현된다.³⁷⁾ (26가, 다)와 같이 박은정(2007:56)에서는 선어말어미 ‘-겠-’은 ‘가능·능력’으로 쓰일 때, 과거시제, 미래시제와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나 미래 사실에 대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므로 ‘가능·능력’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과거나 미래의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3.2.4. 문장 유형에 따른 제약

선어말어미 ‘-겠-’은 문장 유형에 따라서도 제약을 받는다. ‘-겠-’이 ‘추측’, ‘능력’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청유문, 명령문에서는 제약을 받는다. 또한 ‘-겠-’이 ‘의지’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27) 가. 그 사람이 내일 외국에 가겠다. (○)

나. 내일도 바쁘겠지? (○)

다. 내일 회사에 가겠자. (×)

라. 빨리 준비해서 나가겠라. (×)

마. 친척들이 모두 모이겠군요. (○)

(28) 가. 내가 내년에 결혼하겠다. (○)

나. 내가 내년에 결혼하시겠습니까? (○)

다. 내년에 결혼하겠자. (×)

라. 내년에 결혼하겠라. (×)

마. 내가 내년에 결혼하겠군요. (×)

(29) 가. 그 정도이면 내 동생도 했겠다. (○)

나. 한 겨울에 배를 빌려줄 리 없겠죠? (○)

37) 유혼동(2012:85)에서도 ‘-겠-’은 과거 시간 부사나 미래 시간 부사와 함께 실현되지 않으며, 현재 말하는 사람이 인지 상태에서만 실현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兪旭峰(2012:36)에서는 ‘가능·능력’의 ‘-겠-’은 과거시제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며, 현재시제와 미래시제에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 다. 그 정도이면 우리도 하겠자. (×)
- 라. 그 정도이면 하겠라. (×)
- 마. 아이고, 이 바지에 세 사람도 들어가겠군요. (○)

위에서 (27)은 ‘추측’, (28)은 ‘의지’, (29)는 ‘능력’의 의미로 선어말어미 ‘-겠-’이 쓰인 예이다.³⁸⁾ (27), (28),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어말어미 ‘-겠-’은 모두 청유문, 명령문에서는 어색하다. 이는 청유문과 명령문은 남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추측’, ‘의지’, ‘가능·능력’의 뜻을 나타내는 ‘-겠-’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8,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지’의 의미로 쓰일 때는 감탄문 제약에서는 제약이 있다. 이는 화자가 자기의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내용이므로 감탄문에서 ‘의지’ 표현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겠-’의 통사적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겠-’의 통사적 제약³⁹⁾

구분		추측	의지	가능
인칭 제약	1인칭	×/#	○	○
	2인칭	○	×/#	○
	3인칭	○	×/#	○
서술어 제약	동사	○	○	○
	형용사	○	×/#	×
	체언+이다	○	×/#	×
시제 제약	과거	○	×/#	×
	현재	○	○	○
	미래	○	○	×
문장 유형 제약	평서문	○	○	○
	의문문	○	○	○
	청유문	×	×	×
	명령문	×	×	×
	감탄문	○	×	○

3.2.5. 공기 제약(共起制約)

38) 兪旭峰(2012:43~45)에서 다룬 예문이다. 그는 ‘-겠-’은 청유문 제약과 명령문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39) 자연스러우면 ○, 틀리거나 의미 변하면 ×, 제약을 해소할 수 있으면 #로 표시하였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한 문장을 만들 때 연결어미를 활용하는 방법을 매우 낯설고 어려워한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모두 고유의 의미 범주가 있으며, 만약 의미범주에 맞지 않는 연결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올바른 의미범주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연결어미가 갖는 제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연결어미로 문장을 연결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여기서는 ‘-겠-’에 대해 연결어미와 공기제약을 분석하고자 한다.⁴⁰⁾ 연결어미의 종류에 따른 ‘-겠-’과의 공기 제약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의미 범주에 따른 연결어미와의 공기 제약

‘-겠-’과 공기 제약	연결어미 종류
없음	(나열) -고, -(으)며
(+)	(대립·대조) -(으)나, -지만, -는데/-(으)는데 (이유·원인) -(으)니, -(으)니까, -(으)므로
(-)	(동시) -(으)면서, -(며), -자, -자마자 (시간 순서) -고, -아서/어서 (전환) -다가 (대립·대조) -아도/-어도 (이유·원인) -아서/-어서, -느라고 (조건)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목적) -(으)러, -(으)려고, -도록, -게 (인정) -아도/-어도, -(으)르더라도, -더라도 (선택) -거나, -든지 (방법·수단) -아서/-어서, -고 (배경) -(으)니, -는데/-(으)는데

<표 3>은 여기에 나오는 제약은 연결어미별 ‘-겠-’과의 공기 제약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없음’이 표시된 연결어미는 ‘-겠-’을 같이 쓸 수도 있고 같이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로 표시되어 있는 연결어미는 반드시 ‘-겠-’을 공기해 써야 한다는 뜻이며, ‘(-)’로 표시되어 있는 연결어미는 ‘-겠-’을 공기해 쓰면 안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연결어미와 ‘-겠-’의 공기제약을 살펴보겠다.

40) 여기서 다룬 예문과 <표 3>은 국립국어원(2006:116)에서 참조하였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나열	-고	없음
나열	-며	없음

(30) 가. 내년이면 나는 서른 살이 되고, 큰형은 마흔 살이 될 것이다. (○)

나. 내일은 태풍이 강하게 불겠고 눈도 내리겠습니다. (○)

(31) 가. 내년이면 나는 서른 살이 되며, 큰형은 마흔 살이 될 것이다. (○)

나. 내일은 태풍이 강하게 불겠으며 눈도 내리겠습니다. (○)

연결어미 ‘-고’와 ‘-며’가 ‘나열’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예문 (30), (30)에서와 같이 선어말어미 ‘-겠-’과 같이 쓰인다. 즉, 공기 제약이 없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동시	-(으)면서/-(으)며	(-)
동시	-자/-자마자	(-)

(32) 가. 혜진은 아침을 먹겠으면서/먹겠으며 신문을 볼 것이다. (×)

나. 혜진은 아침을 먹으면서/먹으며 신문을 볼 것이다. (○)

(33) 가. 집에 오겠자/오겠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

나. 집에 오자/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

한편, 위 (32),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의 의미로 사용되는 ‘-(으)면서, -(으)며’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즉 공기 제약이 있다. (32)에서는 ‘아침을 먹는 행위’와 ‘신문을 보는 행위’가 모두 미래에 일어난 것이지만, 연결어미 ‘-(으)면서, -(으)며’는 ‘-겠-’과 공기할 수 없기 때문에 후행 절에만 미래시제를 표시하게 된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순서	-고	(-)
순서	-아서/-어서	(-)

(34) 가. 나는 머리를 감겠고 잠을 잘 것이다. (×)

나. 나는 머리를 감고 잠을 잘 것이다. (○)

(35) 가. 어머니는 책을 읽겠어서 책장에 넣을 것이다. (×)

나. 어머니는 책을 다 읽어서 책장에 넣을 것이다. (○)

(34), (35)와 같이 ‘순서’의 의미로 사용되는 ‘-고’와 ‘-아서/-어서’는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즉 공기 제약을 받는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전환	-다가	(-)

(36) 가. 나는 커피숍에 가다가 학교에 갈 것이다. (○)

나. 나는 커피숍에 가겠다 학교에 갈 것이다. (×)

예문 같은 경우에는 ‘전환’의 의미로 사용되는 ‘-다가’는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대립·대조	-(으)나	(+)
대립·대조	-지만	(+)
대립·대조	-는데/-(으)ㄴ데	(+)
대립·대조	-아도/-어도	(-)

(37) 가. 네가 죽어도 했던 말은 기억할 것이다. (○)

나. 네가 죽겠어도 했던 말은 기억할 것이다. (×)

다. 한국어 시험은 잘 볼 수 있나/있지만/있는데 영어 시험은 자신이 없다. (×)

라. 한국어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으나/있겠지만/있겠는데 영어 시험은 자신이 없다. (○)

(37)에서와 같이 ‘대립·대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으)나, -지만, -는데/-(으)ㄴ데’는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도/어도’는 선어말어미

‘-겠-’과 같이 쓸 수 없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이유·원인	-아서/-어서	(-)
이유·원인	-(으)니	(+)
이유·원인	-(으)니까	(+)
이유·원인	-(으)므로	(+)
이유·원인	-느라고	(-)

(38) 가. 지금 밥 먹으러 가니/가니까/가므로 이따가 전화를 주세요. (×)

나. 지금 밥 먹으러 가겠으니/가겠으니까/가겠으므로 이따가 전화를 주세요. (○)

(39) 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나. 밥을 많이 먹겠어서 배부를 것이다. (×)

(40) 가. 학교 늦게 가느라고 비평을 당할 것이다. (○)

나. 학교 늦게 가겠느라고 비평을 당할 것이다. (×)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원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으)니, -(으)니까, -(으)므로’는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유·원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아서/어서, -느라고’는 (39), (40)과 같이 선어말어미 ‘-겠-’과 공기하면 비문이 된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조건	-(으)면	(-)
조건	-(으)려면	(-)
조건	-아야/-어야	(-)

(41) 가. 일찍 일어나면 지각하지 않겠다. (○)

나. 일찍 일어나겠으면 지각하지 않겠다. (×)

(42) 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

나. 열심히 공부하겠어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

(43) 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다. (○)

나. 대학에 들어가겠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다. (×)

(41)~(43)은 ‘조건’의 의미로 사용되는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공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목적	-(으)러	(-)
목적	-(으)려고	(-)
목적	-도록	(-)
목적	-게	(-)

- (44) 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갈 것이다. (○)
 밥을 먹겠으러 식당에 갈 것이다. (×)
 나. 논문을 쓰려고 밤새울 것이다. (○)
 논문을 쓰겠으려고 밤새울 것이다. (×)
 다. 좋은 생활을 하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
 좋은 생활을 하겠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
 라. 한국어를 잘 하게 책을 많이 살 것이다. (○)
 한국어를 잘 하겠게 책을 많이 살 것이다. (×)

(44)는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는 ‘-(으)러, -(으)려고, -도록, -게’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쓰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 ‘-겠-’은 공기 제약이 있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인정	-아도/-어도	(-)
인정	-(으)더라도	(-)
인정	-더라도	(-)

- (45) 가. 내가 가도 나는 슬프지 않을 것이다. (○)
 내가 가겠어도 나는 슬프지 않을 것이다. (×)
 나. 혜택을 안 출지라도 공정하게 대처해야지. (○)

- 혜택을 안 주겠을지라도 공정하게 대처해야지. (×)
 다. 그 말을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
 그 말을 누가 하겠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아도/-어도, -(으)르지라도, -더라도’도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선택	-거나	(-)
선택	-든지	(-)

- (46) 가. 네가 믿거나/믿든지 안 믿거나/믿든지 내가 상관없어요. (○)
 나. 네가 믿겠거나/믿겠든지 안 믿겠거나/믿겠든지 내가 상관없어요. (×)

(46)에서처럼 ‘선택’ 의미로 쓰인 ‘-거나, -든지’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즉 공기 제약이 있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방법 · 수단	-아서/-어서	(-)
방법 · 수단	-고	(-)

- (47) 가. 철수는 배를 타고 영국에 갈 것이다. (○)
 나. 철수는 배를 타겠고 영국에 갈 것이다. (×)
 (48) 가. 마리아는 걸어서 도서관에 갈 것이다. (○)
 나. 마리아는 걸겠어서 도서관에 갈 것이다. (×)

(47), (48)의 예문을 보면 ‘방법 · 수단’의 의미로 사용되는 ‘-아서/-어서, -고’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즉 공기 제약이 있다.

의미 범주	연결어미	‘-겠-’과 공기 제약
배경	-는데/-(으)는데	(-)
배경	-(으)니	(-)

(49) 가. 월요일에 영화관을 열는데 표가 없을 것 같다. (○)

나. 월요일에 영화관을 열겠는데 표가 없을 것 같다. (×)

(50) 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니 벌써 1시가 넘었더라. (○)

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으니 벌써 1시가 넘을 거야. (×)

(49), (50)의 예문을 보면 ‘배경’의 의미로 사용되는 ‘-는데/-(으)는데, -(으)니’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즉 공기 제약이 있다.

3.3.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 기능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어말어미 ‘-더-’는 통사적 제약이 많아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모호한 형태소이다. 선어말어미 ‘-더-’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하여 연결어미, 종결어미, 관형사형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더니’, ‘-더라면’, ‘-던데’의 연결어미가 있고 ‘-더라’(-더구나, -데), ‘-더냐(던²)⁴¹⁾’, ‘-던데(요)’ 등의 종결어미가 있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로 쓰이는 ‘-던’이 있다.⁴²⁾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립국어원(2006:349-372)에서 나오는 ‘-더-’와 관련된 문법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결어미 ‘-더니’, ‘-더라면’, ‘-던데’를 살펴보겠다.

1) -더니

‘-더니’는 선어말어미 ‘-더-’와 연결어미 ‘-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연결어미로, 문장에서 ‘원인, 대조, 순차, 부가’의 네 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다

41) ‘-더냐’의 줄임말이다.

42) 구분관 등(2015), 『한국어 문법 총론』, 314쪽.

-더니¹(원인):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앞 문장)을 발화시에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그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질문한다는 뜻이며,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 어떠한 결과(뒤 문장) 혹은 질문을 낳았을 때 쓰인다.

(51) 가. 그렇게 밤새서 공부하더니 성적을 많이 좋아졌네요.

나. 어제 면접 보러 가더니 면접 잘 봤어요?

(51)을 보면 화자가 직접 경험한 선행절 내용이 후행절 내용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본다.

-더니²(대조):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앞 문장)과 달리 뒤 문장은 다른 사실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 쓴다. 과거와 현재가 다름을 나타낸다.

(52) 아침에는 눈이 오더니 지금은 비가 온다.

(52)는 ‘아침 눈이 오는 것’은 ‘지금 비가 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더니³(순차):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앞 문장) 뒤에 바로 다른 사실이나 상황(뒤 문장) 발생할 때 쓰인다.

(53) 아까 철수는 집에 오더니 말도 안하고 지나갔어요.

(53)을 보면 앞 내용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 부분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본다.

-더니⁴(부가):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앞 문장)에 더하여 뒤 문장은 그에 관련된 다른 사실이나 상황을 발생할 때 쓰인다.

(54) 남자 친구가 잘 생기더니 목소리도 멋지네요.

(54)에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앞 내용에 보충한 내용이 뒤 부분에서 나온다.

2) -엇더니

-엇더니¹(원인):

앞 문장에서 화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고, 이는 뒤 문장의 사태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된다.

(55) 막 성질냈더니 너무 힘들어요.

(55)는 화자 본인이 과거에 막 성질내는 이유로 인해 너무 힘든 것이다.

-엇더니²(발견):

앞 문장은 화자 본인이 본 완료된 장면이나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에 이어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을 나타낸다.

(56) 가게 찾아갔더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56)과 같이 화자 본인이 가게 찾아가고 나서 찾으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된 사실로 본다.

3) -더라면

-더라면

앞 문장은 과거에 발생한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면서 뒤 문장은 가정한 후에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운 느낌으로 결과를 나올 때 쓰인다.

(57) 일찍 졸업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58) 철수가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큰일인데.

(57), (58)번 예문을 보면 앞 문장인 일찍 졸업한 것을 가정하면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뒤 문장이다.

4) -던데

‘-던데’는 선어말어미 ‘-더-’와 연결어미 ‘-는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연결어미이며, 말한 일은 화자가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59) 책상 위에 못 보던 사진이 있던데 혹시 철수 거예요?

(60) 북경은 날씨가 흐리던데 제주도는 맑군요.

예문을 보면 (59), (60)번의 앞부분 화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뒷부분 내용의 전제가 되거나 대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59)번은 책상 위에 못 보던 사진이 있는 것을 말해야 뒷부분의 혹시 철수가 거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60)번은 북경 날씨가 흐린 것과 제주도 맑은 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5) -더라

-더라¹(-더구나, -데), -더라²(감정 표현)

(친한 사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화자가 말을 하기 전에 직접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발화시에 어떤 느낌을 실어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쓰인다. ‘-더구나’는 그 사실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낸다. ‘-데’,

‘-더구나’는 ‘-더라¹⁾’와 의미 차별이 크지 않아서 바꿔 쓸 수 있다. 화자 본인을 주어로 할 때,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를 말할 때 1인칭 주어만 쓸 수 있다.

- (61)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더라.
- (62) - 음악회에 가 봤지? 언제?
- 노래도 좋고 춤도 좋더라.
- (63) 내가 어제 밤에 꿈에서 놀이공원에 가더라.
- (64)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⁴³⁾
- (65) 공자는 논어를 만드셨더라.

위와 같이 화자가 예전에 경험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화자 본인을 주어로 할 때, (63)번과 같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더라³⁾(혼잣말)
과거 어느 때에 직접 보고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것을 기억해 내려고 애쓰면서 혼잣말 하는 것처럼 생각해볼 때 쓰인다.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등의 의문사와 같이 쓰인다.

- (66) 어디서 그 음악을 들었더라?
- (67) 누구였더라?
- (68) 철수의 생일이 언제더라?

위와 같이 ‘어디서 그 음악을 들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철수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잠시 생각 안 날 때 쓰이는 혼잣말이다.

6) -더냐

43) 我喜歡那種漂亮的女孩。(<미남이시네요:4>)

-더냐(던²)⁴⁴⁾

‘-더냐’는 선어말어미 ‘-더-’가 종결어미 ‘-냐’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종결어미이다. ‘-더냐’는 두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상대방이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확인의 의미로 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에 진술한 내용에 대한 강한 부정의 의미로 나타난다.

(69) 철수는 어디로 가더냐(던)?

(70) 철수도 거기에 있더냐(던)?

(71) 내가 언제 건방진 말이 했더냐(던)?

(69), (70)번 예문과 같이 화자는 상대방이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확인의 의미로 쓴다는 것이고, (71)번 예문을 보면 앞에 진술한 내용에 대한 강한 부정의 의미로 나타난다.

7) -던데(요)

-던데(요)

‘-던데(요)’는 선어말어미 ‘-더-’와 종결어미 ‘-는데(요)’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종결어미이며, 말한 일은 화자가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72) 가. 철수가 어디 있어요?

나. 10분 전에 봤는데,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던데요.

(73) 부산식당이 어때요? 한 번 가 봤는데 장소도 넓고 음식도 맛있던데요.

(72)번 예문을 보면 철수가 어딘지 물어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답해서 10분 전 철수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73)번 예문을 보면 화자가 거기에 간 느낌을 감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44) ‘-던²’는 ‘-더냐’의 줄임말이다.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던’에 대해 살펴보겠다.

8) -던¹

-던¹(-엇던, -은)

관형사형 어미 ‘-던’은 선어말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를 수식하는 결합 문법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의미적으로 단순히 ‘-더-’ + ‘-ㄴ’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⁴⁵⁾ 즉 ‘-던’에는 ‘-더-’에 없는 특성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더-’에 없는 특성인 사실이나 행위, 상태가 미완료, 지속, 완료, 반복되었다는 의미까지도 나타난다.

(74) 가. 내가 읽던 책을 누가 가져갔어요? (지속동사) (미완료)

나. 이것이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 의자이다. (지속동사) (지속)

다. 이것은 어제 내가 샀던 제품이다. (순간동사) (완료)

라. 중학교 다닐 때 자주 만났던 친구를 다시 만났다. (지속동사) (반복)

(74, 가)는 내가 책을 아직 읽는 동작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74, 나)는 내가 그 때 계속 쓰는 의자이라는 의미이다. (74, 다)는 내가 사는 동작이 이미 끝난 의미이다. (74, 라)는 내가 예전에 만나는 동작이 되풀이하게 나온다는 의미이다.

3.4. 선어말어미 ‘-더-’의 통사적 제약

선어말어미 ‘-더-’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등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문법 형태소이다. 선행연구⁴⁶⁾에서 ‘-더-’의 제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결어

45) 구본관 등(2015), 『한국어 문법 총론I』, 315쪽.

46) 송재목(2011), 박진경(2009)은 연결어미 ‘-더니’와 ‘-엇더니’을 통해서 ‘-더-’에 대해 고찰하였고 장희(2011)은 ‘-더니’를 제시하여 중국어를 대조하면서 ‘-더-’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현수(1980), 심보경

미, 종결어미,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가 중심이 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 이 세 가지 어미로 한정하여⁴⁷⁾ ‘-더-’의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연결어미 ‘-더니’는 의미 기능에 따라 ‘-더니¹(원인)’와 ‘-더니²(대조)’로, ‘-었더니’는 ‘-었더니¹(원인)’과 ‘-었더니²(발견)’를 나눠 그들의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겠다. 종결어미 ‘-더라’는 의미 기능을 ‘회상·보고’, ‘감정 표현’ 그리고 ‘혼잣말’ 셋으로 나눠서 각각의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겠다.⁴⁸⁾ 관형사형 어미 ‘-던’은 선행 동사 유형 제약과 ‘-던¹⁴⁹⁾과 ‘-었던’의 의미 제약을 분석하겠다.

3.4.1. 인칭 제약

1) -더니⁵⁰⁾

(1994), 선광용(2011), 박근영(2013) 등은 ‘-더-’의 의미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종결어미 ‘-더라’를 분석하여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로지(2011), 장뢰(2011), 김수태(2014), 관훈훈(2016) 등은 관형사형 어미 ‘-던’에 통해 ‘-더-’에 대해 고찰하였다.

47)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 이 세 가지 어미로 한정하는 이유는 ‘-더-’로 쓰이는 어미 중에 사용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제약 현상이 많기 때문이다.(오로지, 2012:9)

항목	품사	빈도	항목	품사	빈도
더구나	종결어미	106	더이다	종결어미	26
더구만	종결어미	12	던	관형사형어미	25310
더군(요)	종결어미	879	었던	관형사형어미	37825
더냐	종결어미	104	던	종결어미	18
더니	연결어미	4151	던가	종결어미	1297
었더니	연결어미	2363	던가(요)	종결어미	165
더라	종결어미	635	던걸(요)	종결어미	28
더라고(요)	종결어미	398	던고	종결어미	7
더라니	연결어미	7	던데	연결어미	266
더라니까(요)	종결어미	57	던데(요)	종결어미	502
더라도	연결어미	4361	던들	연결어미	73
더라면	연결어미	70	던지	연결어미	566
더만(요)	종결어미	20	던지라	연결어미	13

48) 국립국어원(2006년:354~356)의 ‘-더라’의 의미 기능을 인용하였다.

49) ‘-던¹’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던²’은 ‘-더냐’의 준말이다.

50) ‘-더니’는 앞 문장의 상태가 뒤 절의 상태로 변화하거나 앞 문장의 행동으로 인해 뒤의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거나 느꼈을 때 쓴다. 일반적으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나 주제가 동일해야 하며, 말하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주어로 와야 하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이나 일이 주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었-’이 앞에 붙은 ‘-었더니’의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나 그 행동의 결과를 말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때 써서 앞의 주어는 언제나 다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앞에 문장에 화자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뒤 문의 이유로 되는 반면, 그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이어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인다. (국립국어원, 2006년, 354쪽)

‘-더니¹(원인)’는 1인칭 주어와 쓰이지 않으나⁵¹⁾ ‘-더니²(대조)’는 인칭 제약이 없다.

- (75) 가. 나는 찬물을 많이 마시더니 배가 아파요. (×)
나. 너는 아까부터 거지거지 하더니 진짜 날 거지로 아냐?⁵²⁾ (○)
다.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역시 1등을 받았군요. (○)

(75)에서 보면 연결어미 ‘-더니¹(원인)’은 1인칭 주어와 쓰이지 않는다. 1인칭을 쓸 때 즉 화자 본인이 자기의 일에 대해 새로 알게 되지 못해서 예문(75, 가)와 같이 비문이 된다. (75, 가)는 1인칭을 쓰려고 하면 ‘-었더니’로 바뀌어야 한다. 화자 본인이 찬물을 마시고 난 후에 자기의 배가 아프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자 본인이 문장 주어가 되어야 한다. (75, 나)와 같이 의문문에서는 화자가 거지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진짜 날 거지를 아냐고 청자한테 물어보는 것이다. (75, 다)와 같이 화자는 3인칭인 그 학생이 공부한 것을 직접 보고 난 후에 1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있다.

‘-더-’의 연결어미 ‘-더니²(대조)⁵³⁾’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76) 가. 내가 중학생일 때는 공부를 잘하더니 지금은 못해요. (○)
나. 네가 예전에는 음악을 좋아하더니 이제는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
다.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집에 있다. (○)

국립국어원(2006)에서 인용된 예문 (76)을 참조하면 ‘-더니²(대조)’는 인칭 제약이 없다.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네가, 철수가’의 1, 2, 3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 (77) 제가 좀 이상했는데 물을 많이 마셨더니 (몸이) 좋아졌습니다.⁵⁴⁾ (○)

51) 국립국어원(2006:209)에서 참조하였다.

52) 你從剛剛開始就一直說乞丐乞丐的，所以我就真是乞丐了麼？(<풀하우스:4>)

53)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앞 문장)과 달리 뒤 문장은 다른 사실을 발생할 때 쓴다. 과거와 현재가 다름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칭 제약을 받지 않는다.(국립국어원, 2006: 355쪽).

한편, ‘-더-’에서 확장한 연결어미 ‘-었더니¹(원인)’는 (77)에서와 같이 1인칭 주어만 사용할 수 있다.⁵⁵⁾ (76)은 화자 본인이 물을 마신 후에 새로 알게 된 몸이 좋아진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²(발견)’ 인칭 제약⁵⁶⁾은 다음과 같다.

(78) 가. (나는) 잠깐 오줌 싸고 왔더니 (그들이) 그새 온 거야?⁵⁷⁾ (○)

나. (나는)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⁵⁸⁾ (○)

‘-었더니²(발견)’의 선행절은 1인칭 주어만 쓸 수 있다. (78)을 보면 화자 본인이 과거에 ‘오줌 싸다’, ‘오빠가 머리 좋은 줄 알다’라는 것을 한 후에 뒤 문장은 새로 알게 된 ‘그들이 그새 오다’, ‘그 오빠가 구멍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2) -더라

‘-더-’의 종결어미 ‘-더라¹(회상·보고)’ 인칭 제약은 다음과 같다.

(79) 가. 나는 영어를 잘하더라. (×)

나. 어제 네가 어떤 여자랑 손잡고 가더라. 그 사람 누구야?⁵⁹⁾ (○)

다. 아침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

라. 내가 어제 밤에 꿈에서 놀이공원에 가더라. (○)

일반적으로 (79 가)와 같이 화자 자신이 스스로에 관한 일은 새로 알게 된 일이 아니라서 1인칭 주어일 경우 종결어미 ‘-더라’는 쓰이지 않는다.⁶⁰⁾ 다만, (79

54) 我本來有點怪怪的，不過喝了點水好像沒事了。(〈미남이시네요:6〉)

55) 국립국어원(2006:354)에서는 과거에 나타내는 어미 ‘-었-’이 앞에 붙은 ‘-었더니’의 경우는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나 그 행위의 결과를 말하거나 화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때 사용하므로 선행절 주어는 언제나 화자 본인이라고 본다.

56) 박진경(2009)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대상의 완료된 동작을 보고 나서 장면이 이어질 때,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는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57) 什麼呀，上趟廁所的功夫，這就來了。(〈미남이시네요:3〉)

58) 我以為這哥哥很聰明呢，原來完全就是個笨蛋啊!(〈착한 남자:2〉)

59) 오로지(2011:12)에서 예문을 인용하였다.

60) 김차균(1980)에서는 ‘비동일 주어 제약’ 해제되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 ‘비동일 주어 제약’은 동작 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될 때, ‘-더-’가 2, 3인칭에는 문장의 서술어에 결합하지만 1인칭 주어에는 결합하지 않는 제약을 말한다. 장경희(1983:297)는 ‘-더라’의 ‘지각적 사태’란 화자가 지각하기 전에 발생하여

라)와 같이 다만 화자가 자신의 일을 새로 알게 되어, 즉 객관화하여 상대방에게 알려 줄 때는 1인칭 주어가 가능하다. 이때는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수동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⁶¹⁾ (79 나)와 (79 다)는 2인칭, 3인칭 주어의 문자으로, 화자 본인이 발화하기 전에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라¹(회상·보고)’와 달리 ‘-더라²(감정 표현)’은 2, 3인칭 주어의 제약을 받는다.

(80) 가.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⁶²⁾ (○)

나. 너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다. 철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라. 철수는 사과를 좋아하더라. (○)

(80나, 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심리나 기분, 감정 등을 화자 본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2, 3인칭 주어를 쓸 수 없고, (80, 가)와 같이 1인칭 주어만 쓸 수 있다.⁶³⁾ 그러나 윤재연(2000:77)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80, 라)가 그 예로, 3인칭 주어가 ‘-더라’와 자연스럽게 함께 쓰이고 있다.

다음에 ‘-더라³(혼잣말)’ 인칭 제약에 대해 살펴보겠다.

(81) 가. (나는) 어디서 그 사람을 보았더라? (○)

나. (너는) 누구시더라? 죄송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다. 철수는 그때 화가 많이 났었지요? 그게 뭐 때문이었더라? (○)

국립국어원(2006ㄴ:355)에 나와 있는 예문 (81)을 보면 ‘-더라³(혼잣말)’은 인

존재하며 그 사태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감각기관을 통하여 화자가 수동적으로 파악한 사태들이다. (박근영, 2013, 재인용).

61) 이홍식(2003:242)에서는 화자의 경험인데 화자 자신의 일이 기술의 대상이 될 때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에 관한 일을 항상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른바 ‘의식의 단절, 새로 알게 됨, 인식의 대상’ 등의 기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화자나 청자가 주어로 나타나도 적용되는 문장은 화자 자신의 일에도 화자가 몰랐던 경우라고 보고 있다.

62) 我喜歡那種漂亮的女孩。(<미남이시네요:4>)

63) 김차균(1980)에서는 심리 동사는 말하는 사람이 감정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로 말하는 사람의 상태를 발화할 때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1인칭 주어에서만 쓰인다. (박근영, 2013, 재인용.)

칭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81, 가)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그 사람을 어디서 봤다’라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스스로 물어보는 것처럼 말하는 문장이다. (81, 나)는 과거에 알게 된 ‘누구이다’이라는 사실을 회상하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물어보는 것처럼 말하는 문장이다. (81, 다)는 과거에 직접 경험하고 새로 알게 된 ‘철수가 화가 난 이유’라는 사실을 회상하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물어보는 것처럼 말하는 문장이다. 이처럼 1, 2, 3인칭 주어에 모두 제약 없이 쓰이고 있다.

3.4.2. 서술어 제약

1) -더니

연결어미 ‘-더니’에 결합하는 선행절의 서술어가 동사, 형용사, ‘체언+이다’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82) 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역시 1등을 받았군요. (○)

나. 날씨가 춥더니 눈이 오는구나. (○)

다. 가수가 꿈이더니 진짜 됐구나.⁶⁴⁾ (○)

(83) 가. 내가 중학생일 때는 공부를 잘하더니 지금은 못해요. (○)

나. 오전에 날씨가 좋더니 지금은 비가 온다. (○)

다. 오전에 흐린 날씨가더니 이제는 맑은 날씨이다. (○)

(82)는 ‘-더니’가 원인의 의미로 쓰인 예이고 (83)은 대조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82), (83)은 모두 서술어의 제약 없이 그 결합이 자연스럽다. 즉, ‘-더니¹(원인)’와 ‘-더니²(대조)’는 선행절 서술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¹(원인)’와 ‘-었더니²(발견)’ 선행절 서술어 제약은 다음과 같다.

64) 說當歌手是你的夢想，還真當了歌手吶！(<미남이시네요:8>)

- (84) 가. 막 싱질냈더니 너무 힘들어요.⁶⁵⁾ (○)
 나. 어제 추웠더니 눈이 왔다. (×)
 다. 전에 선생님이었더니 지식이 많다. (×)

- (85) 가. 가게 찾아갔더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⁶⁶⁾ (○)
 나. 나는 전에 서양 음식이 맛있었더니 맛이 없구나. (×)
 다. 철수가 바보였더니 실은 똑똑한 사람이다. (×)

위의 (84), (85)과 같이 ‘-었더니¹(원인)’와 ‘-었더니²(발견)’는 ‘형용사’와 ‘체언+이다’ 뒤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오로지(2011:22)는 ‘-었더니’로 만든 문장이 선행 서술어는 동사만 쓸 수 있고 형용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더라

‘-더라¹(회상·보고)’는 서술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더라²(감정 표현)’의 서술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이므로 동사 제약, ‘체언+이다’ 제약을 받는다. ‘-더라³(흔잣말)’은 서술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 (86) 가. 그 아이가 어제 태경이형 나가고 난 뒤에 울더라.⁶⁷⁾ (○)
 나.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더라. (○)
 다. 철수가 일본어과 학생이더라.⁶⁸⁾ (○)

위의 (86)과 같이 서술어 제약이 없이 화자가 ‘개가 울다’,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다’, 그리고 ‘철수가 일본어과 학생이다’라는 것을 어미 ‘-더라’를 쓰이면 과거에 직접 경험하고 새로 알게 된 각각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86)과 같이 ‘-더라’로 끝나는 문장이 ‘-다’로 끝나는 문장보다 화자가 ‘그 아이에 대한 호기심을 담다’,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한 줄 몰랐는데’, ‘원래 철수가 다른 과에 다니는 줄 알았다’라는 심리 상태를 부가할 수도 있을 수 있

65) 生氣生大勁兒了，所以很累。(〈착한 남자:2〉)
 66) 去店裏找他，都說他好幾天沒來上班了。(〈착한 남자:2〉)
 67) 看到他在泰京出去後自個哭了起來。(〈미남이시네요:2〉)
 68) 신현숙(1980:121)에서 예문을 인용하였다.

다.⁶⁹⁾

(87) 가. 어디서 그 음악을 들었더라?⁷⁰⁾ (○)

나. 그 반에 누가 예쁘더라?⁷¹⁾ (○)

다. 그게 뭐 때문이었더라? (○)

(87)은 ‘-더라³(혼잣말)’의 예이다. 국립국어원(2006ㄴ:355)에서 제시한 예문 (87)은 ‘-더라³(혼잣말)’가 서술어에서 동사, 형용사, ‘체언+이다’과 결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서술어 성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3.4.3. 시제 제약⁷²⁾

1) -더니

(88) 가. 개가 사람 하나 죽이고 나더니 완전히 변했어.⁷³⁾ (○)

나. 날씨가 춥더니 눈이 오는구나. (○)

다. 민혁이 시계 보더니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⁷⁴⁾ (○)

‘-더니¹(원인)’의 선행절 문장 시제는 후행절 문장 시제보다 더 앞선다. 이에 따라 후행절의 문장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으며, 미래일 수도 있다.⁷⁵⁾ (88)은 각각 ‘1등을 이미 하다’라는 과거 사실, ‘눈이 지금 오다’라는 현재의 사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다’라는 미래 사실을 후행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89) 가. 전에는 이 식당 음식이 맛이 좋더니 요즘은 맛이 없어졌어요. (○)

69) 신현숙(1980:121)에서 보고자가 알고 있던 정보가 아니라 새로 관찰한 정보를 제공할 때 ‘-더라’를 쓰는 것 같다. 이때 피보고자의 관심보다는 보고자의 관심 쪽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이 감탄요소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70) 국립국어원(2006ㄴ:355)에서는 ‘-더라³(혼잣말)’의 예문을 인용하였다.

71) 박재연(2008:223)에서 예문을 인용하였다.

72) 서정수(1977:123)는 ‘-더-’의 시간성을 고찰하였다. 발화시간은 ‘현재’이고, 인식시간은 ‘과거’이며, 사건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하다고 하였다.

73) 他殺過人之後人完全變了.(〈착한 남자:7〉)

74) 民赫看了眼表, 所以知道得先起來了.(〈풀하우스:9〉)

75) 이수련(2013)에서는 논의하였다.

나. 나보고는 개밥 먹느냐고 그러더니 되게 잘 한다.⁷⁶⁾ (○)

다. 바쁘다고 그러더니 금방 나가요?⁷⁷⁾ (○)

‘-더니²⁾(대조)’의 선행절 문장 시제는 후행절 문장 시제보다 더 앞서다. 이에 따라 후행절의 문장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으며, 미래일 수도 있다. (89가, 나, 다) 각각 ‘맛이 없어졌다’라는 과거 사실을 이미 된 것, ‘지금 잘하다’라는 현재의 사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않다’라는 미래 사실을 물음은 후행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90) 가. 제가 좀 이상했는데 물을 많이 마셨더니 좋아졌습니다.⁷⁸⁾ (○)

나. 찬물을 마시었더니 배가 아파요. (○)

다. 공부를 잘 했더니 1등을 받겠지? (○)

위와 같이 ‘-었더니¹⁾(원인)’ 후행절 시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90가, 나, 다) 각각 ‘좋아졌다’, ‘배가 아파요’, ‘받겠지’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낸다.

(91) 가. 야, 너 한동안 안 봤더니 키가 더 커졌다.⁷⁹⁾ (○)

나. 이 언니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⁸⁰⁾ (○)

다. 가게 갔더니 아무도 없을 것이다. (×)

후행절에 있는 발견한 일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새로 발견한 일은 예문(91, 가)과 같이 ‘키가 커졌다’와 같이 이미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행절 문장이 과거시제로 쓰인다. 그리고 (91, 다)와 같이 미래 시제로 쓰이면 비문이 된다.⁸¹⁾ 이는 후행절에 발견하는 사실은 미래일 수 없기 때문이다.

2) -더라

76) 看了我說‘你怎麼在吃狗食呢?’，你倒好(自己吃得還挺香)。(<폴하우스:7>)

77) 你不是說很忙嗎，現在又要出去?(<폴하우스:4>)

78) 我本來有點怪怪的，不過喝了點水好像沒事了。

79) 백久不見你 個子又高了。(<착한 남자:15>)

80) 以爲這個姐姐很聰明呢，原來這麼傻。(<착한 남자:2>)

81) 백봉자(2006:212)에서는 선행절에는 주어가 주로 3인칭이다. 후행절에는 미래시제가 오면 안 된다. 주로 평서문에서 사용되고 청유문, 명령문에서 쓰일 수 없다.

‘-더-’의 종결어미 ‘-더라’의 시제 제약은 과거시제 제약, 현재시제 제약, 미래시제 제약을 나눌 수 있다.

- (92) 가. 어제 철수가 서울에 가더라.⁸²⁾ (○)
나. 오늘 철수가 서울에 가더라. (○)
다. 내일 철수가 서울에 가더라. (○)

위의 (92)과 같이 ‘철수가 서울에 가’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임은 시간어가 지시해 준다. 그러나 화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인식한 시간은 발화하기 전의 어느 시점이다. 바로 ‘-더라’는 화자의 인식시가 과거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다.⁸³⁾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제약 없이 다 알맞은 문장이 된다.

- (93) 가. 나는 어제 기분이 좋더라. (○)
나. 나는 지금 기분이 좋더라. (×)
다. 나는 내일 기분이 좋더라. (×)

‘-더라²(감정 표현)’⁸⁴⁾의 경우는 ‘-더라¹(회상·보고)’와 달리 화자 자기의 심리 상태는 화자 본인이 늘 알고 있어서 ‘사건시>인지시>발화시’⁸⁵⁾의 규칙을 따라 (93, 가)와 같이 ‘기분이 좋다’라는 사실은 과거시제에만 적용된다. (93나, 다)와 같이 현재시제와 미래시제 제약을 받는다.

- (94) 가. 민호가 어제 어디 가더라? (○)
나. 민호가 오늘 어디 가더라? (○)

82) 심보경(1994:38)에서 인용한 예문이다.

83) 서정수(1977:123)는 ‘-더-’의 시간성을 고찰하였다. 발화시간은 ‘현재’이고, 인식시간은 ‘과거’이며, 사건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하다고 하였다. 윤재연(2000:97)에서는 「상황시>인지시>발화시」란 상황시가 인지시에 앞서고, 발화시가 인지시에 앞선다는 것이다.

84) 이홍식(2003:242)에서는 화자의 경험인데 화자 자신의 일이 기술의 대상이 될 때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에 관한 일을 항상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리적 상태를 진술할 때 이 점이 더 느껴진다. 화자 자신의 심리상태이라도 화자가 몰랐던 경우이어야 적절한 문장이 된다.

85) 윤재연(2000:16)에서는 ‘사건시>인지시>발화시’는 상화시가 인지시에 앞서고, 발화시가 인지시에 앞선다는 것이다.

다. 민호가 내일 어디 가더라? (○)

혼잣말의 의미인 ‘-더라³(혼잣말)’는 ‘-더라¹(회상·보고)’와 마찬가지로 사건시는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다 사용이 되어 단지 알게 된 시간은 과거이며, 지금 발화하면⁸⁶⁾ 위의 (95)와 같이 시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95가, 나, 다)는 각각 ‘민호가 어제 어디 가’, ‘민호가 오늘 어디 가’, ‘민호가 내일 어디 가’라는 상황은 화자가 과거에서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후 자신이 기억하지 않을 때 떠올리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문장이다.

3.4.4. 문장 유형 제약

문장 유형 제약은 평서문 제약, 의문문 제약, 청유문 제약, 명령문 제약 그리고 감탄문 제약을 나눌 수 있다.

1) -더니

(96) 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역시 1등을 받았어요. (○)

나. 아까부터 거지거리 하더니 진짜 날 거지로 아나?⁸⁷⁾ (○)

다. 새로운 백화점이 생기더니 같이 가자. (×)

라. 밥을 새워 공부하더니 빨리 자세요. (×)

마. 가수가 꿈이더니 진짜 됐구나.⁸⁸⁾ (○)

(97) 가. 내가 중학생일 때는 공부를 잘하더니 지금은 못해요. (○)

나. 바쁘다고 그러더니 지금 나가요?⁸⁹⁾ (○)

다.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과에 가자. (×)

라.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과에 가세요. (×)

마. 아까는 울어서 곤란하게 하더니 이제는 웃어서 곤란하게 하네.⁹⁰⁾ (○)

86) 서정수(1977:123)는 ‘-더-’의 시간성을 고찰하였다. 발화시간은 ‘현재’이고, 인식시간은 ‘과거’이며, 사건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하다고 하였다.

87) 你從剛剛開始就一直說乞丐乞丐的，所以我就真是乞丐了麼？(<풀하우스:4>)

88) 說當歌手是你的夢想，還真當了歌手吶！(<미남이시네요:8>)

89) 你不是說很忙嗎，現在又要出去？(<풀하우스:4>)

90) 高美男，很好笑麼？切，剛剛哭得叫人不知所措，現在又笑得讓人不知所措。(<미남이시네요:5>)

(96), (97)번 예문과 같이 ‘-더니’는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⁹¹⁾

- (98) 가. 막 성질냈더니 너무 힘들어요.⁹²⁾ (○)
나. 오냐오냐해줬더니 자기 주제도 잊었나?⁹³⁾ (○)
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새 옷을 사자. (×)
라.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선물을 주세요. (×)
마. 요즘 좀 조용한 가 했더니, 이게 또 아침부터 까부네.⁹⁴⁾ (○)
- (99) 가. 가게 찾아갔더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⁹⁵⁾ (○)
나. 잠깐 오줌 싸고 왔더니 그새 온 거야?⁹⁶⁾ (○)
다. 미술관에 갔더니 너도 같이 가자. (×)
라. 미술관에 갔더니 빨리 가세요. (×)
마.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⁹⁷⁾ (○)

‘-었더니¹⁾(원인)’와 ‘었더니²⁾(발견)’는 다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2) -더라

- (100) 가.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더라. (○)
나. 부산에 갔다 와서 아주 좋더라? (×) → (√ 좋더냐?)
다. 우리 미술관에 가더자. (×)
라. 미술관에 가더라. (×)
마.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더라! (×) → (√ 좋더군요)

91) 송재영·한승규(2008) 등의 선행 연구 중에도 확인할 수 있다.
92) 剛太生气了，以至于現在很累。(〈착한 남자:2〉)
93) 給你三分顏色，你就分不清自己的身份了？(〈착한 남자:17〉)
94) 我就覺得你有點安靜，果然又從一大早開始鬧了。(〈풀하우스:5〉)
95) 去店里找他，都說他好几天沒來了。(〈착한 남자:2〉)
96) 什麼呀，上趟廁所的功夫，這就來了。(〈미남이시네요:3〉)
97) 我還以為這個哥哥很聰明呢，原來就是個大笨蛋。(〈착한 남자:1〉)

(101) 가.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⁹⁸⁾ (○)

나. 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 (√ 좋더냐?)

다. 우리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자. (×)

라.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세요. (×)

마.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 (√ 좋더군요)

일반적으로 종결어미 ‘-더라’는 (100, 가), (101, 가)와 같이 평서문에서 표현한다. 의문문에서는 ‘-더라’를 쓰지 않고 ‘-더냐’로 쓰이는 것이어서 (100, 나), (101, 다)와 같이 ‘-더라’는 의문문 제약을 받는다. 감탄문에서는 ‘-더라’를 쓰지 않고 감탄을 표현하기 위한 종결어미 ‘-더군요’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100, 마)와 (101, 마)와 같이 ‘-더라’는 감탄문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더-’가 쓰인 문장의 종결어미로 쓰일 때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사용될 수 없다. 선광용(2011:47)에서는 선어말어미 ‘-더-’가 청유형 종결어미 ‘-자’, 명령형 종결어미 ‘-어라’와 공기되면 비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00다, 라), (101다, 라)와 같이 종결어미 ‘-더라’는 의미의 관계없이 모두 청유문 제약과 명령문 제약을 받는다.

(102) 어디서 그 음악을 들었더라? (○)

(102)와 같이 ‘-더라³⁾(혼잣말)’란 자신에게 홀로 물어보는 것처럼 발화하는 것이어서 의문문에서만 쓰일 수 있다.

3.4.5. 기타 제약

‘-더-’의 기타 제약으로는 관형사형 어미 ‘-던¹⁾’과 ‘-있던⁹⁹⁾’에 대한 제약을 들 수 있다. ‘-던¹⁾’과 ‘-있던’의 선행 동사 유형 제약과 그들의 의미 제약이 뭔지를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던¹⁾’은 기능에 따라 ‘미완료’와 ‘과거·지속’을 나

98) 我喜歡那種漂亮的女孩。(〈미남이시네요:4〉)

99) ‘-던¹⁾’ 중국어 번역: ‘那時候一直...着的...’, ‘-있던’ 중국어 번역: ‘那時候...了的...’.

100) ‘-던¹⁾’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던²⁾’은 ‘-더냐’의 준말이다.

눌 수 있고, ‘-었던’은 기능에 따라 ‘완료’와 ‘한번·반복’을 나눌 수 있다.

1) ‘-던¹’과 ‘-었던’의 선행 동사 유형 제약

‘미완료’ 기능이 부가된 ‘-던¹’의 선행 동사 유형 제약은 다음과 같다.

(103) 가. 내가 읽던 책을 누가 가져갔어요?¹⁰¹⁾ (○) 지속동사

나. 감기에 걸리던 여자는 철수이다. (×) 순간 동사

‘과거·지속’ 기능이 부가된 ‘-던¹’의 선행 동사 유형 제약은 다음과 같다.

(104) 가. 여기가 내가 옛날에 살던 곳이에요. (○) 지속동사

나. 그 옷은 엄마가 지난 주 사주던 것이다. (×) 순간동사

위와 같이 ‘미완료’의 의미든, ‘지속’의 의미이든 모두 ‘-던’의 ‘지속’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립국어원(2006ㄱ:212)에서는 순간적 행위, 특정한 시점의 행동이나 상태, 반복적이지 않는 일회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후에는 ‘-던’이 연결돼 쓰일 수 없다.

‘완료’ 기능이 부가된 ‘-었던’의 선행 동사 유형 제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05) 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친구가 오늘 귀국한다. (○) (지속동사)

나. 어제 감기에 걸렸던 철수가 오늘 나아졌다. (○) (순간동사)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학하는 동작’과 순간적으로 ‘감기에 걸리는 동작’은 다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선행 동사 유형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번·반복’ 기능이 부가된 ‘-었던’의 선행 동사 유형 제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06) 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친구가 오늘 귀국했다. (○) (지속동사)

나. 중학교 다닐 때 자주 만났던 친구를 다시 만났다. (○) (지속동사)

다. 그 치마는 전에 아빠가 사주었던 것이다. (○) (순간동사)

‘한번·반복’의 의미인 ‘-었던’은 지속동사와 순간동사가 다 적용된다. 예문(가)과 같이 ‘유학을 가다’라는 행위는 이미 지나가고 예전에 유학을 한번 가도

101) 국립국어원(2006ㄱ:170~172, 210~212)에서 예문을 인용하였다.

되고 계속 갔다 왔다 해도 되는 것이며, 단 지금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는 의미를 갖는다. 예문 (나)과 같이 ‘자주’를 붙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반복적으로 만나는 친구를 의미하는데, 이제는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된다고 의미한다. 예문 (다)과 같이 ‘아빠가 그 치마를 사 준 행위’가 반복적인 경우나 일회적인 경우나 다 맞는 표현이다.

2) ‘-던’과 ‘-었던’ 의미 제약

‘-던’과 ‘-었던’ 공통점은 과거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의미 제약은 ‘-던’이 ‘미완료’이고, ‘-었던’이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두 번째 의미 제약은 ‘-던’이 ‘과거·지속’을 의미하는데, ‘-었던’이 ‘한번·반복’을 의미한다.

(107) 가. 어제 먹던 수박은 어디 갔어요? (○)

나. 어제 먹었던 수박은 하나 더 사요. (○)

(108) 가. 여기서 내가 살던 집이다. (○)

나. 여기서 내가 살았던 집니다. (○)

(107, 가)는 내가 어제 수박을 먹고 있었는데 아직 남아 있어서 미완료 의미를 나타낸다. (107, 나)는 내가 어제 수박을 이미 다 먹었다는 완료된 의미를 해서 하나 더 달라고 하는 뜻이다. (108, 가)는 내가 과거에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지속적인 의미인데, (108, 나)는 내가 과거에 여기서 산 적이 있었다는 일회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4. 선어말어미 ‘-겠-’, ‘-더-’의 교수·학습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문법 교육할 때 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규범적인 문법을 교수하는 것보다는 제약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는 방법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본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습득시키기 위한 문법 교육이 주된 내용이 된다.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한국어를 정확하여 유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선어말어미 ‘-겠-’, ‘-더-’의 통사적 제약에 따른 오류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하도록 한다. 문법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 문법과 관련된 제약을 알아야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앞의 3장에서 ‘-겠-’과 ‘-더-’의 제약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겠-’, ‘-더-’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¹⁰²⁾

4.1. 선어말어미 ‘-겠-’, ‘-더-’의 오류 양상

선어말어미 ‘-겠-’, ‘-더-’에 대한 문법 표현은 한국어 대화에서 자주 나타난다. 의미 차이나 용법 제약에 따른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피하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므로 선어말어미 ‘-겠-’, ‘-더-’를 잘 학습하여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어 수준도 보통 학습자들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철현(2002:57)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오류는 ‘-으시-’, ‘-는-’, ‘-었-’, ‘-겠-’, ‘-더-’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익섭·임홍빈(1983:177)은 ‘-겠-’, ‘-더-’는 시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서법으로 보아 쓰이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다고 하

102) 여기 제시된 자료는 국립국어원(2006)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와 드라마 대본 <풀하우스>, <미남이시네요>와 <착한 남자> 중의 예문을 중심으로 하겠다.

였다. 따라서 ‘-겠-’은 미래 시제만 한정되지 않고 ‘의지, 추측, 가능·능력’까지의 감정 부가 기능을 더한다. ‘-더-’도 ‘회상’과 같은 시제적 의미보다는 양태적 의미에 더 가깝다.¹⁰³⁾ 그리고 시제·상·서법에서 이러한 복잡한 성격 때문에 제약 용법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국립국어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제약에 따른 ‘-겠-’, ‘-더-’ 관련 오류 양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음에 선어말어미 ‘-겠-’의 ‘추측’, ‘의지’, ‘가능·능력’ 의미로 쓰일 때, 선어말어미 ‘-더-’의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 이 세 가지로 한정하여¹⁰⁴⁾ 각각 통사적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을 찾아내고 제시하기로 한다.

4.1.1. 선어말어미 ‘-겠-’의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¹⁰⁵⁾

1)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겠-’의 의미는 인칭 제약과 큰 관련이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선어말어미 ‘-겠-’은 인칭에 따라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번호	‘-겠-’의 추측 의미로 쓰인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	가. 나는 비빔밥을 먹겠다. ¹⁰⁶⁾ (×) 나. 너는 보면 알겠다. ¹⁰⁷⁾ (○) 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겠군요. (○) 라. 내가 내일 학교에 오겠니? (○) 마. 네가 내일 학교에 오겠니? ¹⁰⁸⁾ (×) 바. 그가 내일 학교에 오겠니? (○)

103) 구본관 등(2015), 『한국어 문법 총론I』, 314쪽.

104)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 이 세 가지 어미로 한정된 이유는 ‘-더-’로 쓰이는 어미 중에 구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제약 현상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105) 여기서 다룬 오류 예문은 국립국어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와 선행연구에서 참고하였다.

106) 김순저(2012:29)에서는 이 예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추측’이 아니고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107) 您看一下的話就應該會知道的。<풀하우스:1>

108) 김순저(2012:29)에서는 이 예문은 주어 2인칭이 행동주이므로 ‘추측’을 나타내지 않고 ‘의도’를 나타내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평서문에서는 서술어 동사일 때, (1, 가)와 같이 1인칭을 쓰면 ‘추측’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은 학습자가 ‘-겠-’의 의미 중 ‘추측’만 생각할 때 흔히 나타나는 오류이다. 의문문에서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2인칭이 쓰일 때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1, 마)와 같이 추측을 표현하려는 학습자가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2인칭의 ‘-겠-’을 사용하면 다른 의미로 전환하게 되는 오류가 나타난다.

번호	‘-겠-’의 의지 의미로 쓰인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	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요. ¹⁰⁹⁾ (○) 나. 너는 내일 회사에 나오겠다. (×) ¹¹⁰⁾ 다. 김영호는 내일 회사에 나오겠다. (×) 라. 내가 내일 도서관에 가겠니? (×) 마. 너 같은 피라미가 박 변을 왜 죽이려 그랬겠어? ¹¹¹⁾ (○) 바. 그가 내일 도서관에 가겠니? (×)

(2나, 다)와 같이 평서문에서는 2, 3인칭을 쓰면 ‘의지’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추측’ 의미로 전환한다는 오류가 나타난다.¹¹²⁾ (2라, 바)와 같이 의문문에서는 1, 3인칭을 쓰면 ‘의지’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추측’ 의미로 전환한다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서술어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선어말어미 ‘-겠-’이 ‘추측’ 의미를 나타낼 때 서술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데 의지적 의미와 능력적 의미를 나타낼 때 몇 가지 서술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번호	‘-겠-’의 의지 의미로 쓰인 서술어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09) (即便)我再重複說一遍(也是一樣的)。(<폴하우스:1>)

110) 김순저(2012:30)에서는 예문(나, 다, 라, 바)를 인용하였다.

111) 像你這種無名小卒，有什麼理由去殺林律師呢？(<착한 남자:20>)

112) ‘-겠-’의 의지 의미는 화자나 청자의 강한 의지와 태도를 강조하며, 화자나 청자가 본인이 아니면 주관적인 의도와 의지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평서문에서 1인칭을 쓰고, 의문문에서 2인칭을 쓴다.

3	가. (나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¹¹³⁾ (○) 나. 내가 낯선하면 예쁘겠다. (×) ¹¹⁴⁾ 다. 내가 제일 멋진 사람이겠다. (×)
---	---

번호	‘-겠-’의 가능·능력 의미로 쓰인 서술어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4	가. 우리 은행에서 고객을 상대로 뺨을 치겠다? ¹¹⁵⁾ (○) 나. 아버지는 젊을 때 매우 멋있었습니다. (×) ¹¹⁶⁾ 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겠다. (×)

(3나, 다)와 같이 ‘-겠-’으로 ‘의지’를 표현하려는 학습자가 ‘형용사’와 ‘체언+이다’를 사용하면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전환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4나, 다)와 같이 ‘-겠-’으로 ‘가능·능력’을 표현하려는 학습자가 ‘형용사’, ‘체언+이다’를 사용하면 ‘가능·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전환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시제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 의미를 나타낼 때는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의지’, ‘가능·능력’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과거시제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번호	‘-겠-’의 ‘의지’ 의미로 쓰인 시제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5	가. 나는 어제 식당에 가겠다. (×) ¹¹⁷⁾ 나. 지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다. 오늘도 괜찮아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¹¹⁸⁾ (○) 라. 나는 어제 식당에 가겠다고 했다. (○)

113) 那就拜托了, 我先告辭了。(〈폴하우스:1〉)

114) 김순저(2012:30)에서는 ‘-겠-’의 서술어는 형용사와 ‘체언+이다’일 때 ‘의지’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115) 呀, 騙什麼, 我們銀行還會騙顧客麼?(〈폴하우스:1〉)

116) 兪旭峰(2012:42)는 ‘형용사’, ‘체언+이다’가 일반적으로 ‘-겠-’의 ‘가능·능력’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다.

117) 김순저(2012:30)에서는 ‘의도’는 과거 시제에 적용하지 못해서 지금이나 미래의 일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118) 今天也可以。那就一會見。(〈폴하우스:4〉)

(5, 가)와 같이 ‘의지’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주체의 심리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일에 대해 ‘의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시제에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다만 (5, 라)와 같이 인용문에서 과거의 일은 그 당시로서 ‘현재’일 때 과거시제를 적용하게 된다.

번호	‘-겠-’의 가능·능력 의미로 쓰인 시제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6	가. 철수가 집에 도착했겠다. ¹¹⁹⁾ (×) 나. 저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씩씩하게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 ¹²⁰⁾ (○) 다. 내일 그 일을 할 수도 있겠다. (×) ¹²¹⁾

‘-겠-’은 ‘가능·능력’으로 쓰일 때, 과거시제나 미래시제에 사용되면 어색하고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과거나 미래 사실에 대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므로 ‘가능·능력’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과거나 미래의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4) 문장 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겠-’의 ‘추측’, ‘가능·능력’ 의미인 경우에는 청유문, 명령문에서 쓰이면 어색해지며, ‘-겠-’의 ‘의지’ 의미인 경우에는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에서 쓰이면 적당하지 않다.

번호	‘-겠-’의 추측 의미로 쓰인 문장 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7	가. 이제 나가주시면 좋겠는데요. ¹²²⁾ (○) 나. 얼마나 그 상황이 난처했겠어요? ¹²³⁾ (○)

119) 유혼동(2012:15,20)은 ‘-았-’과 ‘-겠-’이 결합하는 경우는 ‘-았-’의 과거의 일이라서 과거 사실에 대해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가 나타나는 형태이며 ‘과거의 추측’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김순저(2012:33)에서는 ‘-았-’이 결합되는 경우에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120) 她現在不管發生什麼情況，也能堅強地挺住了啊。(〈착한 남자:20〉)

121) 유혼동(2012:85)에서도 ‘-겠-’은 과거 시간 부사나 미래 시간 부사와 함께 실현되지 않으며, 현재 말하는 사람이 인지 상태에서에서만 실현된다고 하였다.

	다. 내일 회사에 가겠자. (×) 124) 라. 빨리 준비해서 나가겠라. (×) 마. 가족들이 모두 모이겠군요. (○)
--	--

번호	‘-겠-’의 의지 의미로 쓰인 문장 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8	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요.125) (○) 나. 참, 차 뭐 드시겠어요?126) (○) 다. 내년에 결혼하겠자. (×) 라. 내년에 결혼하겠라. (×) 마. 내년에 결혼하겠군요. (×)127)

번호	‘-겠-’의 가능·능력 의미로 쓰인 문장 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9	가. 아무도 못 믿겠다.128) (○) 나. 박준하, 나 알아보겠어?129) (○) 다. 그 정도이면 우리도 하겠자. (×) 라. 그 정도이면 하겠라. (×) 마. 저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씩씩하게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130) (○)

(7), (8), (9)와 같이 ‘추측’, ‘의지’, ‘가능·능력’ 의미의 ‘-겠-’은 다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쓰이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청유문과 명령문은 남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추측’, ‘의지’, ‘가능·능력’의 뜻을 나타내는 ‘-겠-’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 의미인 ‘-겠-’은 감탄문에서 쓰이면 오류도 발생한다. 이는 화자가 자기의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내용이므로 감탄문에서 ‘의지’ 표현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5) 연결어미와의 공기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122) 我們這邊已經給您解釋的很清楚了，你現在出去的話大概比較好。(〈폴하우스:1〉)

123) 萬一我真的跟劉民赫先生是那種關係的話，這得多尷尬呀。(〈폴하우스:1〉)

124) 俞旭峰(2012:45)에서는 ‘-겠-’은 청유문 제약과 명령문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125) (即便)我再重複說一遍(也是一樣的)。(〈폴하우스:1〉)

126) 啊，對了，您要不要喝杯茶？(〈폴하우스:1〉)

127) 김순저(2012:31)는 화자가 자기의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문에서 ‘의지’ 표현은 어울릴 수 없다고 하였다.

128) 誰也不能相信。(〈착한 남자:18〉)

129) 朴俊河，你能認出我嗎？(〈착한 남자:20〉)

130) 她現在不管發生什麼情況，也能堅強地挺住了啊。(〈착한 남자:20〉)

연결어미와의 공기제약은 위와 같은 제약과 달리 ‘-겠-’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주로 각각 연결어미를 따라 ‘-겠-’과 같이 공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현된다.

번호	‘-겠-’의 연결어미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0	가. 내년이면 나는 서른 살이 <u>되고</u> , 큰형은 마흔 살이 될 것이다. (○) 나열 나. 내일은 태풍이 강하게 <u>불겠고</u> 눈도 내리겠습니다. (○) 나열 다. 나는 머리를 <u>감고</u> 잠을 잘 것이다. (○) 순서 라. 나는 머리를 <u>감겠고</u> 잠을 잘 것이다. (×) 순서

나열 ‘-고’는 ‘-겠-’과 공기하거나 공기하지 않아도 문장에서 쓰일 때 다 맞는다. 그러나 순서 ‘-고’는 ‘-겠-’과 공기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번호	‘-겠-’의 연결어미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1	가. 내년에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u>적당한</u> 신붓감이 없다. (×) 대립 나. 내년에는 결혼을 해야 <u>하겠는데</u> 적당한 신붓감이 없다. (○) 대립 다. 월요일에 영화관을 <u>열는데</u> 표가 없을 것 같다. (○) 배경 라. 월요일에 영화관을 <u>열겠는데</u> 표가 없을 것 같다. (×) 배경

(11, 가)와 같이 대립 ‘-는데’는 반드시 ‘-겠-’과 공기해야 하는데 공기하지 않는 경우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나 (11, 라)와 같이 배경 ‘-는데’는 ‘-겠-’과 공기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4.1.2. 선어말어미 ‘-더-’의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더-’에 대한 표현들이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데 한국어 학습자들이 잘 표현할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이다. 선행연구 중에서는 ‘-더-’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연결어미, 종결어미,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로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 글에서도 본고에서도 주로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

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 세 가지 어미를 집중해서¹³¹⁾ ‘-더-’의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제약에 따른 오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제시하기로 하겠다.

1)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유형 양상

번호	‘-더-’의 연결어미 ‘-더니 ¹ (원인)’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2	가. (나는) 찬물을 많이 <u>마시더니</u> 배가 아파요. (×) ¹³²⁾ 나. (나는) 찬물을 많이 <u>마셨더니</u> 배가 아파요. (○)

‘-더니¹(원인)’는 1인칭을 쓸 때 즉 화자 본인이 자기의 일에 대해 새로 알게 되지 못해서 예문(12, 가)와 같이 오류가 발생한다. 1인칭을 쓰려고 하면 (12, 나)와 같이 ‘-었더니’로 바뀌어야 한다.

번호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 ¹ (원인)’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3	가. <u>제가</u> 좀 이상했는데 물을 많이 <u>마셨더니</u> (몸이) 좋아졌습니다. ¹³³⁾ (○) 나. <u>네가</u> 열심히 공부했더니 역시 1등을 받았군요. (×) ¹³⁴⁾ 다. <u>철수가</u> 열심히 공부했더니 역시 1등을 받았군요. (×)

번호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 ² (발견)’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4	가. (나는)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u>알았더니</u> 완전 구멍이네. ¹³⁵⁾ (○) 나. (네가) 서양 음식을 먹었더니 맛이 없는 거죠? (×) 다. <u>철수가</u> 학교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

131)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 이 세 가지 어미를 집중한 이유는 ‘-더-’로 쓰이는 어미 중에 구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제약 현상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132) 국립국어원(2006-:208)에서는 ‘-더니’는 1인칭 주어로 쓰일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때 ‘-었더니’로 바뀌어야 한다.

133) 我本來有點怪怪的，不過喝了點水好像沒事了。(〈미남이시네요:6〉)

134) 국립국어원(2006-:354)에서는 ‘-었더니’(원인, 발견)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나 그 행동의 결과를 말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때 써서 앞의 주어는 언제나 다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35) 我以爲這哥哥很聰明呢，原來完全就是個笨蛋啊!(〈착한 남자:2〉)

‘-었더니¹(원인)’, ‘-었더니²(발견)’의 선행절은 1인칭 주어만 쓸 수 있어서 (13 나, 다)와 (14 나, 다)와 같이 2, 3인칭 주어 쓰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국립국어원(2006ㄴ:354)에서는 ‘-었더니’의 경우는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나 그 행위의 결과를 말하거나 화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때 사용하므로 선행절 주어는 언제나 화자 본인이어서 2인칭이나 3인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번호	‘-더-’의 종결어미 ‘-더라 ¹ (회상·보고)’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5	가. 나는 영어를 잘하더라. ¹³⁶⁾ (×) 나. 어제 네가 어떤 여자랑 손잡고 가더라. 그 사람 누구야? ¹³⁷⁾ (○) 다. 개가 어제 태경이형 나가고 난 뒤에 울더라. ¹³⁸⁾ (○) 라. 내가 어제 밤에 꿈에서 놀이공원에 가더라. (○)

일반적으로 화자 본인은 자기 일을 새로 알게 된 일이 아니라서 종결어미 ‘-더라’로 쓰이는 문장에서 1인칭을 쓰면 오류가 되는데, 다만 화자가 자기 일을 객관화하여 상대방에게 알려 줄 때는 가능하다. (15, 라)와 같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수동적인 상황이면 1인칭이 된다.

번호	‘-더-’의 종결어미 ‘-더라 ² (감정 표현)’ 인칭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6	가.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¹³⁹⁾ (○) 나. 너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¹⁴⁰⁾ 다. 철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16나, 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심리나 기분, 감정 등을 화자 본인이 알 수 없으므로 종결어미 ‘-더라²(감정 표현)’은 화자 본인만 즉 1인칭 주어만 쓸 수 있다. 2, 3인칭을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136) 국립국어원(2006ㄱ:209)의 예문을 참고하였다.

137) 오로지(2011:12)에서 예문을 인용하였다.

138) 他昨天在泰京哥出去後還哭來著。(<미남이시네요:4>)

139) 我喜歡那種漂亮的女孩。(<미남이시네요:4>)

140) 국립국어원(2006ㄴ:355)에서는 화자 본인일 경우는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아니면 ‘-더라’의 사용 제약을 받는다.

2) 서술어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번호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 ¹ (원인)’ 선행절 서술어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7	가. 막 성질냈더니 너무 힘들어요. ¹⁴¹⁾ (○) 나. 어제 추웠더니 눈이 왔다. (×) 다. 전에 선생님이었더니 지식이 많다. (×)

번호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 ² (발견)’ 선행절 서술어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8	가. 가게 <u>찾아갔</u> 더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¹⁴²⁾ (○) 나. 나는 전에 서양 음식이 <u>맛있었</u> 더니 맛이 없구나. (×) 다. 철수가 <u>바보였</u> 더니 똑똑한 사람이구나. (×)

‘-었더니¹(원인)’과 ‘-었더니²(발견)’는 ‘형용사’와 ‘체언+이다’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형용사’와 ‘체언+이다’를 쓰면 오류가 발생된다. 오로지(2011:22)는 ‘-었더니’로 만든 문장이 선행 서술어는 동사만 쓸 수 있고 형용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시제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더니’의 후행 절 시제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번호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 ² (발견)’ 후행절 시제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19	가. 야, 너 한동안 안 봤더니 키가 더 <u>커졌다</u> . ¹⁴³⁾ (○) 나. 이 언니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u>구멍이네</u> . ¹⁴⁴⁾ (○) 다. 가게 갔더니 아무도 없을 것이다. (×)

새로 발견한 사실은 후행절에서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로 나타나야 하는데, 새

141) 剛太生气了, 所以現在特別累。(〈착한 남자:2〉)

142) 去店里才知道, 都說他好几天沒來上班了。(〈착한 남자:2〉)

143) 許久不見你, 個子又高了。(〈착한 남자:15〉)

144) 我還以為這個哥哥很聰明呢, 原來就是個大笨蛋。(〈착한 남자:1〉)

로 발견한 일은 (19, 가)와 같이 ‘키가 커졌다’와 같이 이미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행절 문장이 과거시제로 쓰인다. 그러나 미래 시제로 쓰이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후행절에 발견하는 사실은 미래일 수 없기 때문이다.¹⁴⁵⁾

4) 문장 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번호	‘-더-’의 연결어미 ‘-더니 ¹ (원인)’ 문장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0	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역시 1등을 받았어요. (○) 나. 아까부터 거지거지 하더니 진짜 날 거지로 아냐? ¹⁴⁶⁾ (○) 다. 새로운 백화점이 생기더니 같이 가자. (×) ¹⁴⁷⁾ 라. 밥을 새워 공부했더니 빨리 자세요. (×) 마. 가수가 꿈이더니 진짜 됐구나. ¹⁴⁸⁾ (○)

번호	‘-더-’의 연결어미 ‘-더니 ² (대조)’ 문장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1	가. 내가 중학생 일 때는 공부를 잘하더니 지금은 못해요. (○) 나. 바쁘다고 그러더니 지금 나가요? ¹⁴⁹⁾ (○) 다.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과에 가자. (×) 라.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과에 가세요. (×) 마. 아까는 울어서 곤란하게 하더니 이제는 웃어서 곤란하게 하네. ¹⁵⁰⁾ (○)

번호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 ¹ (원인)’ 문장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2	가. 막 성질냈더니 너무 힘들어요. ¹⁵¹⁾ (○) 나. 오냐오냐해줬더니 자기 주제도 잊었나? ¹⁵²⁾ (○) 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새 옷을 사자. (×) 라.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선물을 주세요. (×) 마. 요즘 좀 조용한 가 했더니, 이게 또 아침부터 까부네. ¹⁵³⁾ (○)

145) 백봉자(2006:212)에서는 ‘-더니’는 후행절에 미래시제가 오면 안 된다고 하였다.

146) 你從剛剛開始就一直說乞丐乞丐的, 所以我就真是乞丐了麼? (<풀하우스:4>)

147) 선광용(2011:47)에서는 선어말어미 ‘-더-’가 청유형 종결어미 ‘-자’, 명령형 종결어미 ‘-어라’와 공기 되면 비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더니’와 ‘-더라’는 모두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148) 說當歌手是你的夢想, 還真當了歌手吶! (<미남이시네요:8>)

149) 你不是說很忙嗎, 現在又要出去? (<풀하우스:4>)

150) 高美男, 很好笑麼? 切, 剛剛哭得叫人不知所措, 現在又笑得讓人不知所措. (<미남이시네요:5>)

151) 剛太生气了, 以至于現在很累. (<착한 남자:2>)

152) 給你三分顏色, 你就分不清自己的身份了? (<착한 남자:17>)

번호	‘-더-’의 연결어미 ‘-었더니 ² (발견)’ 문장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3	가. 가게 찾아갔더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¹⁵⁴⁾ (○) 나. 잠깐 오줌 싸고 왔더니 그새 온 거야? ¹⁵⁵⁾ (○) 다. 나는 미술관에 갔더니 공부하자. (×) 라. 나는 미술관에 갔더니 빨리 가세요. (×) 마.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 ¹⁵⁶⁾ (○)

‘-더니¹(원인)’, ‘-더니²(대조)’, ‘-었더니¹(원인)’, ‘-었더니²(발견)’는 청유문, 명령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청유문, 명령문을 쓸 때 오류가 발생한다.

번호	‘-더-’의 종결어미 ‘-더라 ¹ (회상·보고)’ 문장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4	가.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더라. (○) 나. 부산에 갔다 와서 아주 좋더라? (×) → (√좋더냐?) 다. 우리 미술관에 가더자. (×) 라. 미술관에 가더세요. (×) 마. 철수가 만든 음식이 아주 맛있더라! (×) → (√맛있더군.)

번호	‘-더-’의 종결어미 ‘-더라 ² (감정 표현)’ 문장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5	가.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¹⁵⁷⁾ (○) 나. 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 (√좋더냐?) 다. 우리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자. (×) 라.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세요. (×) 마.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 (√좋더군요)

‘-더라¹(회상·보고)’와 ‘-더라²(감정 표현)’는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에 서 다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¹⁵⁸⁾

153) 我就覺得你有點安靜，果然又從一大早開始鬧了。(〈풀하우스:5〉)

154) 去店里找他，都說他好几天沒來了。(〈착한 남자:2〉)

155) 什麼呀，上廁所的功夫，這就來了。(〈미남이시네요:3〉)

156) 我還以為這個哥哥很聰明呢，原來就是個大笨蛋。(〈착한 남자:1〉)

157) 我喜歡那種漂亮的女孩。(〈미남이시네요:4〉)

158) 의문문에서는 ‘-더라’를 쓰지 않고 ‘-더냐’를 쓰고 있다. 감탄문에서는 ‘-더군요, -더군’ 등을 쓰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라’를 쓰면 오류가 발생한다.

5) 관형사형 어미 ‘-던’ 관련된 제약에 따른 오류 양상

관형사형 어미 ‘-던’은 선어말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이다. 그러나 ‘-던’은 명사를 수식하는 결합 문법 항목으로 흔히 이해하지만, 관형사형 어미 ‘-던’을 단순히 ‘-더+ㄴ’로 분석하여 ‘-던’에 대한 설명하기 어렵다. 즉 ‘-던’에는 ‘-더-’에 없는 특성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더-’에 없는 특성인 사실이나 행위, 상태가 중단, 반복, 미완료, 지속 하였다는 기능까지도 더한다.

다음에 3장에서 나타나는 ‘-던’과 ‘-있던’에 대한 제약 문제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번호	‘미완료’ 기능이 부가된 ‘-던’의 선행 동사 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6	가. 내가 <u>먹던</u> 수박은 어디 갔니? ¹⁵⁹ (○) 지속동사 나. 감기에 <u>걸리던</u> 남자는 철수이다. (×) 순간 동사

‘미완료’ 기능이 부가된 ‘-던’의 선행 동사 유형은 지속동사만 적용된다. 순간동사가 쓰이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번호	‘과거·지속’ 기능이 부가된 ‘-던’의 선행 동사 유형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7	가. 내가 자주 감기에 <u>걸리던</u> 사람이다. (×) 순간동사 나. 그 옷은 엄마가 지난 주 <u>사</u> <u>주던</u> 것이다. (×) 순간동사

‘과거·지속’ 기능이 부가된 ‘-던’의 선행 동사 유형은 지속동사만 적용된다. 순간동사가 쓰이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번호	‘미완료’의 ‘-던’와 ‘완료’의 ‘-있던’의 의미 제약에 따른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8	가. 아까 <u>먹었던</u> 수박은 어디 갔어요? (×) 나. 아까 <u>먹던</u> 수박은 어디 갔어요? (○)

159) 국립국어원(2006ㄱ:211)에서 예문을 인용하였다.

번호	‘과거·지속’의 ‘-던’와 ‘한번·반복’의 ‘-있던’ 의미 제약 오류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29	가. 그저께 <u>가던</u> 식당에 가자. (×) 나. <u>사귀었던</u> 남자친구가 헤어졌어요. (×)

(28, 가)와 같이 ‘먹었던 수박’은 이미 ‘다 먹었다’라는 남아 있지 않는 뜻이라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28, 나)와 같이 ‘미완료’ 기능이 부가된 ‘-던’을 사용해야 한다. (29, 가)는 내가 그저께 가 본 식당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여기 ‘-던’을 쓰면 그저께부터 계속 가고 있는 뜻이라서 오류가 발생한다. (29, 나)는 ‘-있던’을 쓰면 내가 과거에 이미 사귀는 것을 끝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시 헤어진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4.2. 선어말어미 ‘-겠-’, ‘-더-’의 교수·학습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기존 번역 중심 교수법보다는 실제 상황 대화를 중시하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¹⁶⁰⁾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선어말어미 ‘-겠-’이나 ‘-더-’를 교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초급 학습자에게는 ‘-겠-’, ‘-더-’의 문법 의미를 교수하고 이들의 의미를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제약 제시하기’를 통한 학습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선어말어미의 의미에만 치중하고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교수로 인하여 학습자가 비문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겠-’이나 ‘-더-’에 대한 제약을 제시하는 교수로 하면 제약에 따른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학습자가 비문을 만든 오류의 원인도 파악할 수 있다. 위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정문과 비문의 형태를 인식하고 정문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¹⁶¹⁾을 토대로 5단계 교수 모형¹⁶²⁾(‘도입

160)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교수 모형에 대해 제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Warm-up) →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활용(Use) → 마무리(Follow-up))을 이용하여 선어말어미 ‘-겠-’, ‘-더-’의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한다.

4.2.1. ‘-겠-’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

선어말어미 ‘-겠-’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미이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겠-’의 용법과 의미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겠-’의 의미가 일정하지 않고 의미에 따른 제약 상황에 의해 학습자들에게 자주 틀리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약을 중심으로 ‘-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필수적이다.

제3장에서 선정한 세 가지 의미인 ‘추측’, ‘의지’, ‘가능·능력’을 중심으로 ‘-겠-’의 기능별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여 효과적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도입

도입은 학습자들이 학습 동기와 흥미를 일으켜 수월한 수업 진행을 위해 자연스럽게 ‘-겠-’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다음과 같이 교사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의미로 쓰인 ‘-겠-’이 도입된다.

<표 4> ‘-겠-’ 관련 대화에 따라 각 의미 도입

교사: 지금 몇 시예요? 학생: 1시 50분입니다. 교사: 좀 있으면 2시가 <u>되겠어요</u> . (미래)

161)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대해 제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162) 문법 교육의 순서를 나타내는 5단계 학습·교수 모형은 이해영(1998), 김정숙(1998), 현운호(2001)를 참고하였다. 5단계의 교수 모형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1) 도입: 학습자 흥미·동기 유발
- (2) 제시: 목표 문법의 의미/문법적 제약 제시
- (3) 연습: 문법에 대해 익히는 구조적 연습
- (4) 활용: 일상생활에 제시한 과제 수행
- (5) 마무리: 이상 공부한 내용을 정리

교사: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요?
 학생: 맑겠죠. (추측)
 교사: 지금 추워요?
 학생: 네. 춥습니다.
 교사: 1월이 되면 더 춥겠다. 그리고 옷을 그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리겠다. (추측)

교사: 철수야, 오늘 청소를 왜 안 했네.
 학생: 죄송합니다.
 교사: 내일도 안 해요?
 학생: 내일은 꼭 청소하겠습니다. (의지)

교사: 철수야, 가방을 좀 줄 수 있겠니? (가능·능력)
 학생: 네, 여기 있어요.
 교사: 그리고 이 가방은 책 10권을 들어가겠어요? (가능·능력)
 학생: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의 <표 4>와 같이 교사가 질문을 하면 학생들에게는 ‘-겠-’을 대답하라고 한다. 아니면 교사가 질문을 한 후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서 ‘-겠-’으로 답하는 수 정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겠-’이 도입된다.

② 제시

제시는 학습자들에게 ‘-겠-’의 형태와 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초급 학습자에게는 의미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겠-’의 의미별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표 5> ‘-겠-’의 의미 기능 교수·학습 방안

교육 대상	초급 학습자
학습목표	‘-겠-’의 기본 의미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유형	미래, 추측, 의지, 가능, 완곡
의미와 용법	① 미래: 미래에 나타나는 일을 강조한다. ② 추측: 과거, 지금이나 미래에 대한 추측을 표현한다. ③ 의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④ 가능: 가능이나 능력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⑤ 완곡: 부드럽게 우회적 표현이나 강조할 때 쓰인다.
보기	(1) 잠시 후에 2시가 <u>되겠어요</u> . (一會就2點了。) (2) 이번 운동회에는 민경이도 <u>참가하겠군요</u> . (這次運動會, 敏靜好像參加啊。) (3) 내가 이 일을 <u>하겠습니다</u> . (我來做這個事。) (4) 이 일을 어떻게 둘이 <u>할 수 있겠니?</u> (那個事兩人怎麼能做的了呢?) (5) 잘 <u>모르겠습니다</u> . (我不太清楚。)

<표 5>와 같이 의미에 대한 교사는 한국어에 대해 ‘-겠-’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초급 학습자에게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다음은 중·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겠-’의 의미별로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는 교수 과정들이다.

<표 6> ‘추측’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학습 방안

교육 대상	중·고급 학습자
학습목표	‘추측’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
유형	인칭, 서술어, 시제, 문장유형 제약
제약과 용법	① 인칭 제약: 평서문에서 1인칭 제약, 의문문에서 2인칭 제약. ② 서술어 제약: 없음. ③ 시제 제약: 없음. ④ 문장유형 제약: 청유문 제약, 명령문 제약.
보기	(*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 인칭 제약 (1) 가. <u>나는</u> 비빔밥을 먹겠다. (*) → 의지 나. <u>(너는)</u> 보면 알겠다. ¹⁶³⁾ (○) 다. <u>가족들이</u> 모두 모이겠군요. (○) 라. <u>나도</u> 이러다간 감기 걸리겠다. (○) (2) 가. <u>나는</u> 그때 빵을 먹었겠다. (○) 나. <u>너는</u> 그때 빵을 먹었겠다. (○) 다. <u>그는</u> 그때 빵을 먹었겠다. (○) (3) 가. <u>내가</u> 내일 학교에 오겠니? (○) 나. <u>네가</u> 내일 학교에 오겠니? (*) → 의지 다. <u>철수가</u> 내일 학교에 오겠니? (○)

	<p>문장유형 제약</p> <p>(4) 가. 그 사람이 내일 외국에 가겠다. (○) 나. 내일도 바쁘겠지? (○) 다. 내일 회사에 가겠자. (×) 라. 빨리 준비해서 나가겠라. (×) 마. 친척들이 모두 모이겠군요. (○)</p>
--	---

<표 7> ‘의지’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학습 방안

교육 대상	중·고급 학습자
학습목표	‘의지’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
유형	인칭, 서술어, 시제, 문장 유형 제약
제약과 용법	<p>① 인칭 제약: 평서문에서 2, 3인칭 제약, 의문문에서 1, 3인칭 제약. 인용문에서 인칭 제약 없음.</p> <p>② 서술어 제약: ‘형용사’, ‘체언+이다’ 제약.</p> <p>③ 시제 제약: 과거시제 제약.</p> <p>④ 문장 유형 제약: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제약.</p>
보기	<p>(*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p> <p>인칭 제약</p> <p>(1) 가. <u>나는</u> 이 일을 하겠다. (○) 나. <u>너는</u> 이 일을 하겠다. (×) → 추측 다. <u>철수는</u> 이 일을 하겠다. (×) → 추측</p> <p>(2) 가. <u>내가</u> 내일 도서관에 오겠니? (×) → 추측 나. (<u>너는</u>) 내일 도서관에 오겠니? (○) 다. <u>그가</u> 내일 도서관에 가겠니? (×) → 추측</p> <p>(3) 가. <u>나는</u> 이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 나. <u>너는</u> 이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 다. <u>철수는</u> 이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p> <p>서술어 제약</p> <p>(4) 가. 나는 그 일을 <u>하</u>겠다. (○) 나. 내가 날씬하면 <u>예쁘</u>겠다. (×) → 추측 다. 내가 제일 멋진 <u>사람이</u>겠다. (×) → 추측</p> <p>(5) 가. 나는 내 생활에 <u>충실</u>하겠다. (○) 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의 <u>후원자</u>이겠다. (○)</p> <p>시제 제약</p>

163) 您看一下的話就應該會知道的。<풀하우스:1>

	<p>(6) 가. 나는 <u>지금</u> 식당에 가겠다. (○) 나. 나는 <u>어제</u> 식당에 가겠다. (×) 다. 나는 <u>내일</u> 식당에 가겠다. (○) 라. 나는 <u>어제</u> 식당에 가겠다고 했다. (○)</p> <p>문장 유형 제약</p> <p>(7) 가. 내가 내년에 결혼하겠다. (○) 나. 내가 내년에 결혼하시겠습니까? (○) 다. 내년에 결혼하겠자. (×) 라. 내년에 결혼하겠라. (×) 마. 내가 내년에 결혼하겠군요. (×)</p>
--	---

<표 8> ‘가능·능력’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학습 방안

교육 대상	중·고급 학습자
학습목표	‘가능·능력’ 의미인 ‘-겠-’의 제약 교수
유형	인칭, 서술어, 시제, 문장유형 제약
제약과 용법	<p>① 인칭 제약: 없음. ② 서술어 제약: 형용사, ‘체언+이다’ 제약. ③ 시제 제약: 과거시제, 미래시제 제약. ④ 문장 유형 제약: 청유문, 명령문 제약.</p>
보기	<p>(*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p> <p>서술어 제약</p> <p>(1) 가. 나도 그 수준이면 잘 <u>하</u>겠다. (○) 나. 아버지는 젊을 때 매우 <u>멋있</u>겠다. (×) → 추측 다. 저 사람이 <u>대통령이</u>겠다. (×) → 추측</p> <p>시제 제약</p> <p>(2) 가. 철수가 집에 <u>도착했</u>겠다. (×) → 추측 (과거) 나. 저 아이라면 <u>이제</u> 어떤 상황이 닥쳐도 씩씩하게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¹⁶⁴⁾ (○) (현재) 다. 철수가 <u>내일</u> 그 일을 하겠다. (×) → 추측 (미래)</p> <p>문장유형 제약</p> <p>(3) 가. 나도 그 수준이면 잘 하겠다. (○) 나. 박준하, 나 <u>알아보</u>겠어?¹⁶⁵⁾ (○) 다. 그 정도이면 우리도 하겠자. (×) 라. 그 정도이면 하겠라. (×) 마. 저 아이라면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씩씩하게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¹⁶⁶⁾ (○)</p>

<표 6>, <표 7>, <표 8>과 같이 중·고급 학습자에게 ‘-겠-’의 ‘추측’, ‘의지’, ‘가능·능력’ 의미에 따라 통사적 제약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제시하였다.

<표 9> ‘-겠-’의 연결어미 공기 제약 교수·학습 방안

교육 대상	중·고급 학습자
학습목표	의미 관계없이 ‘-겠-’의 연결어미 공기제약 교수·학습
유형	‘-겠-’과 연결어미 공기제약
제약과 용법	<p>연결어미 공기제약¹⁶⁷⁾ :</p> <p>없음 : (나열) -고, -(으)며</p> <p>(+) : (대립·대조) -(으)나, -지만, -는데/-(으)는데 (이유·원인) -(으)니, -(으)니까, -(으)므로</p> <p>(-) : (동시) -(으)면서, -(며), -자, -자마자 (시간 순서) -고, -아서/어서 (전환) -다가 (대립·대조) -아도/-어도 (이유·원인) -아서/-어서, -느라고 (조건)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목적) -(으)러, -(으)려고, -도록, -게 (인정) -아도/-어도, -(으)르더라도, -더라도 (선택) -거나, -든지 (방법·수단) -아서/-어서, -고 (배경) -(으)니, -는데/-(으)는데</p> <p>특별히 뽑아서 교수</p> <p>-고(나열): 없음 -고(순서): (-)</p> <p>- (으)며(나열): 없음 - (으)며(동시): (-)</p> <p>-자: (-)</p>

164) 她現在不管發生什麼情況，也能堅強地挺住了啊。(〈착한 남자:20〉)

165) 朴俊河，你能認出我嗎？(〈착한 남자:20〉)

166) 她現在不管發生什麼情況，也能堅強地挺住了啊。(〈착한 남자:20〉)

	-자마자: (-) -아서/어서(순서): (-) -아서/어서(이유): (-) -는데(대립): (-) -는데(배경): (-)
보기	(*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1) 가. 내일은 태풍이 강하게 <u>불고</u> 눈도 내리겠습니다. (○) 나. 내일은 태풍이 강하게 <u>불겠고</u> 눈도 내리겠습니다. (○) (2) 가. 나는 커피숍에 <u>가다가</u> 학교에 갈 것이다. (○) 나. 나는 커피숍에 <u>가겠다고</u> 학교에 갈 것이다. (×) (3) 가. 집 열심히 <u>정리하니까</u> 꼭 깨끗해지겠다. (×) 나. 집 열심히 <u>정리하겠으니까</u> 꼭 깨끗해지겠다. (○)

<표 9>와 같이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겠-’의 의미 관계없이 연결어미와의 공기제약을 살펴보고 제시하였다.

③ 연습

연습은 제시에서 이루어진 ‘-겠-’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이 익숙해지도록 학습하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겠-’의 ‘추측’ 의미일 때 통사적 제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제시한다.

<표 10> ‘추측’ 의미로 쓰인 ‘-겠-’의 제약 연습 문제

다음과 같이 ‘추측’ 의미 ‘-겠-’을 나타낼 때 문장을 채우세요. 1. _____ 비빔밥을 먹겠다. (인칭: 나는/너는/철수는) 2. 내일 _____ 오겠다. 3. _____ 보면 알겠다. (내가/네가/그가) 4. _____ 내일 학교에 오겠어요? (내가/네가/그가) 5. 날씨가 추워지면 _____, 동사

167) ‘없음’은 ‘-겠-’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는 그러한 어미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미이며, ‘(-)’는 그러한 어미를 쓰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6. 약을 안 먹으면 _____, 형용사
7. 정장을 입는 사람은 _____. 체언+ 이다
9. 전화 안 받는데, 아마 기숙사로 _____. (들어가다) 과거
10.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일이 많아서 _____. (힘들다) 현재
11. 하늘을 보니까 내일은 _____. (비가 오다) 미래
12. 그 사람이 내일 외국에 _____. (가다) 평서문
13. 내일도 _____? (바쁘다) 의문문
14. 친척들이 모두 _____군요. (모이다) 감탄문

<표 11> ‘의지’ 의미로 쓰인 ‘-겠-’의 제약 연습 문제

- 다음과 같이 ‘의지’ 의미 ‘-겠-’을 나타낼 때 문장을 채우세요.
1. _____ 이 일을 하겠다. (인칭: 내가/네가/그가)
 2. _____ 내일 도서관에 가겠니? (내가/네가/그가)
 3. _____ 이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네가/그가)
 4. 나는 어제/지금/내일 식당에 _____. (가다)
- 다음과 같이 ‘-겠-’은 ‘의지’ 의미로 쓰일 때 괄호 앞에 있는 문장은 맞으면 ‘○’로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5. 나는 그 일을 하겠다. () 동사
 6. 가. 내가 날씬하면 예쁘겠다. () 형용사
나. 나는 내 생활에 충실하겠다. () 형용사
 7. 가. 내가 제일 멋진 사람이겠다. () 체언+ 이다
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의 후원자이겠다. () 체언+ 이다
 8. 나는 어제 식당에 가겠다. () 과거
 9. 나는 지금 음악관에 가겠다. () 현재
 10.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겠다. () 미래
 11. 가. 내가 내년에 결혼하겠다. () 평서문
나. 네가 내년에 결혼하시겠습니까? () 의문문
다. 내년에 결혼하겠자. () 청유문
라. 내년에 결혼하겠라. () 명령문
마. 내가 내년에 결혼하겠군요. () 감탄문

<표 12> ‘가능·능력’ 의미로 쓰인 ‘-겠-’의 제약 연습 문제

다음과 같이 ‘가능·능력’ 의미 ‘-겠-’을 나타낼 때 빈칸을 채우며, 괄호 앞에 있는 문장은 맞으면 ‘○’로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1. 그 수준이면 _____ 했겠다. (인칭: 나도/너도/내 아들도)
2. _____ 여권 좀 보여 주시겠어요? (나는/너는/그는)
3.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겠다. () 동사
4. 아버지는 젊을 때 매우 멋있겠다. () 형용사
6. 저 사람이 대통령이겠다. () 체언+이다
7. 철수가 집에 도착했겠다. () 과거
8. 아이고, 이 바지에 세 사람도 들어가겠어요. () 현재
9. 철수가 내일 그 일을 하겠다. () 미래
10. 가. 그 정도이면 내 동생도 했겠다. ()
 - 나. 박준하, 날 알아보겠어? ()
 - 다. 그 정도이면 우리도 하겠자. ()
 - 라. 그 정도이면 하겠라. ()
 - 마. 아이고, 이 바지에 세 사람도 들어가겠군요. ()

<표 13> ‘-겠-’의 제약 연습 종합 문제

<종합 문제>

다음 문장의 ‘-겠-’은 ‘추측’, ‘의지’, ‘가능·능력’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세요.

- (1)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 (2) 나는 세상에 제일 멋진 사람이겠다. ()
- (3) 나는 그때 빵을 먹었겠다. ()
- (4) 나도 이러다간 감기에 걸리겠다. ()
- (5) 철수는 이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
- (6) 너는 보면 알겠다. ()
- (7)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늦겠다. ()
- (8) 이 문장은 시나리오로는 안 되겠는데, 스토리도 엉망이고요. ()
- (9) - 철수가 전화 안 받는데.
- 아마 집에 들어갔겠지. ()
- (10) - 가니까 뭐라고 했어? 출판하겠대? ()
- 네? 아니,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 (11) 고객님, 여권 좀 보여 주시겠어요? ()
- (12)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겠다. ()
- (13) - 수지는 누군지 알아요? 지금 국민요정이라는 분이예요.
- 아, 나 누군지 알겠어요. ()

다음 문장을 이해하고 ‘-겠-’으로 빈칸을 채우세요.

- (1) 나는 어제/지금/내일 식당에 _____. (가다) [의지]
- (2) - 철수가 기숙사에 들어갔어?
- 이미 기숙사에 _____ (들어가다)

- (3) 내일 비가 _____ . (오다)
 (4) 네가 계속 옷을 별로 안 입으로 _____ (동사)
 (5) 감기를 걸리면 _____ (형용사)
 (6)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나도 _____ (동사)
 (7) 아이고,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 사람은 _____ (채언+이다)
 (8) 그 사람은 젊었을 때 _____ (형용사)
 (9) - 이번에 토익 시험을 합격할 수 있어요?
 - _____ . (합격할 수 있다)

교사는 위 문장들을 제시할 때, 일부 문장은 통사적 제약 때문에 적용하는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 해소의 경우도 고려해야 해서 이 부분은 교수 상황 시 주의해야 한다.

<표 14> ‘-겠-’의 연결어미와 공기 제약 연습 문제

다음과 같이 ‘-겠-’과 각각 연결어미 공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세요.

1. 내일은 태풍이 강하게 불겠고 눈도 내리겠습니다. () 나열(-고)
 나는 머리를 감겠고 잠을 잘 것이다. () 순서(-고)
2. 내년이면 나는 서른 살이 되며, 큰형은 마흔 살이 될 것이다. () 나열(-며)
 혜진은 아침을 먹겠으면 신문을 볼 것이다. () 동시(-며)
 혜진은 아침을 먹겠으면서 신문을 볼 것이다. ()
3. 밥을 많이 먹겠어서 배부를 것이다. () 이유(-아서)
 철수는 배를 타겠어서 영국에 갈 것이다. 수단(-아서)
4. 한국어 시험은 잘 볼 수 있겠는데 영어 시험은 자신이 없다. () 대립(-는데)
 월요일에 영화관을 열겠는데 표가 없을 것 같다. () 배경(-는데)
5. 지금 밥 먹으러 가겠으니 이따가 전화를 주세요. () 이유(-니)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으니 벌써 1시가 넘을 거야. () 배경 (-니)
6. 집 오자/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
7. 나는 커피숍에 가겠다가 학교에 갈 것이다. ()
8. 한국어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지만 영어 시험은 자신이 없다. ()
9. 지금 밥 먹으러 가겠으니 이따가 전화를 주세요. ()
10. 학교 늦게 가겠느라고 비평을 당할 것이다. ()

11. 일찍 일어나겠으면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
12. 열심히 공부하겠어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
13. 대학에 들어가겠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다. ()
14. 밥을 먹겠으려 식당에 갈 것이다. ()
15. 논문을 쓰겠으려고 밤새울 것이다. ()
16. 좋은 생활을 하겠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
17. 한국어를 잘 하겠게 책을 많이 살 것이다. ()
18. 네가 가겠어도 나는 슬프지 않을 것이다. ()
19. 혜택을 안 주겠을지라도 공정하게 대처해야지. ()
20. 그 말을 누가 하겠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

<표 10>, <표 11>, <표 12>는 ‘-겠-’의 의미별로 연습 문제를 만들었다. 주로 빈칸을 채우거나 판단 문제를 통해 학습자들이 ‘-겠-’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 그의 통사적 제약을 익숙해지게 한다. <표 13>는 ‘-겠-’의 종합 문제로 출제하는 데 한국어 학습자들이 ‘-겠-’에 대해 각각의 의미에 대해 제약을 분별하게 익숙해지게 한다. <표 14>는 ‘-겠-’은 연결어미와 공기 제약을 익숙해지도록 만든 문제이다. 주로 판단 문제로 출제하였다.

④ 활용

활용은 연습에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제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이다. 일상을 반영한 드라마 대본¹⁶⁸⁾을 활용하여 ‘-겠-’에 대한 통사적 제약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이해하면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표 15> 드라마 대화문 중 ‘추측’ 의미 ‘-겠-’의 제약 양상

추측

최실장: (당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¹⁶⁹⁾
(2인칭, 동사, 미래시제, 평서문)

동욱: 어서 들어가. 늦었어.

지은: 참, 화분에 물 좀 주고, 알았지?

희진: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늦겠다.¹⁷⁰⁾

168) ‘풀 하우스’와 ‘미남이시네요’, ‘착한 남자’ 대본 출처는 ‘http://www.hjzlg.com/YCMS_Down.asp’이다.

(2인칭, 동사, 미래시제, 평서문)

민혁: 참,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다 건강하시지?

영재: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은) 그러시겠지 뭐.¹⁷¹⁾

(3인칭, 동사, 현재시제, 평서문)

희진: 이영재가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지.

동욱: (이영재가) 그렇겠지?¹⁷²⁾ (하고)...매니지먼트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관계거든.

(3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지은: 얘기가 좀 긴데요.

영재: 그럼 짧게 하면 (얘기가) 되겠네요.¹⁷³⁾

(3인칭, 동사, 현재시제, 감탄문)

최실장: 내일 신문에 또 나겠는데요. 근데 도대체 거긴 뭐 하러 갔어요?

영재:

(3인칭, 동사, 미래시제, 평서문)

아이의 엄마: 우리 명주 혈색이 많이 좋아졌다. (명주가) 금방 낫겠다.¹⁷⁴⁾

(3인칭, 동사, 미래시제, 평서문)

혜원: 전화 안 받는데.

지은: (민혁이) 아마 집에 들어갔겠지.

(3인칭, 동사, 과거시제, 평서문)

지은: 사기라뇨? 말조심하세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영재: 뭐야? 말조심?

지은: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 이영재 씨가 아니에요?

영재: 뭐야?

지은: 만약에 제가 진짜 유민혁씨랑 그런 사이였으면, (나는) 얼마나 그 상황이 난처했겠어요?¹⁷⁵⁾

(1인칭, 형용사, 과거시제, 의문문)

최실장: 저희 쪽에선 해명이 된 거 같으니까, 이제 나가주시면 좋겠는데요.¹⁷⁶⁾

지은: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2인칭, 형용사, 현재시제, 평서문)

대표: 물론 지은 씨는 이런 일 처음이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너는) 앞으로 좀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¹⁷⁷⁾ 이영재랑 결혼하면서 그 정도 각오가 없었던 건 아니죠?

지은: 죄송합니다.

(2인칭, 형용사, 현재시제, 평서문)

지은: 로맨스 물인데요. 말하자면 여자 카사노바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죠.

민혁: 재밌겠는데요.¹⁷⁸⁾

(3인칭, 형용사, 미래시제, 평서문)

<표 16> 드라마 대화문 중 ‘의지’ 의미 ‘-겠-’의 제약 양상

의지

최실장: 짐은 미리 치워주신다고 하셨죠?

동욱: 그럼요, 치워드려야죠.

최실장: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계보고)...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¹⁷⁹⁾

(1인칭, 동사, 현재시제, 평서문)

지은: 어쨌든 집주인인 저랑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최실장: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¹⁸⁰⁾ 서류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도 끝났고요.

(1인칭, 동사, 미래시제, 평서문)

민혁: 네, 보내 주신 거 잘 읽었습니다. 좀 봤으면 하는데 오늘은 시간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부터 일이 좀 많아질 거 같아서요.(하고, 시계보다) 너무 급한가요?

지은: 아뇨, 아뇨, 오늘도 괜찮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때 뵙겠습니다.¹⁸¹⁾

(1인칭, 동사, 미래시제, 평서문)

조비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정말 우연입니다. 박 변호사님 차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서은기: 그래요?

조비서: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¹⁸²⁾

서은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1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민혁: 결혼식 때 갔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인사 못 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지은: 네. 감사합니다.

민혁: 참, (지은 씨는) 차 뭐 드시겠어요? ¹⁸³⁾

지은: 아뇨. 별루....괜찮아요.

(2인칭, 동사, 미래시제, 의문문)

169) 您看一下的話就會知道文件上一點問題都沒有。(〈폴하우스:1〉)

170) 不用擔心啦, 趕緊走, 你要晚啦。(〈폴하우스:1〉)

171) 應該會是那樣的。(〈폴하우스:1〉)

172) 大概會是那樣的吧?(〈폴하우스:4〉)

173) 那你簡單點說的話大概就行。(〈폴하우스:1〉)

174) 我們明珠臉色好了很多, 馬上就會康復的。(〈착한 남자:20〉)

175) 萬一我真的跟劉民赫先生是那種關係的話, 這得多尷尬呀。(〈폴하우스:1〉)

176) 我們這邊已經給您解釋的很清楚, 你現在出去的話大概比較好。(〈폴하우스:1〉)

177) 以後還是小心一點會比較好。(〈폴하우스:2〉)

178) 那應該會很有意思呢。(〈폴하우스:2〉)

지은: 스토리가 엉망이에요?
 대표: 어, (그 작가는) 도대체 뭘 얘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문장도 엉망이고, 구성도 뒤죽박죽이야.¹⁸⁴⁾
 (3인칭, 동사, 현재시제, 인용문)

혜원: 근데 오빠 원래 유통 쪽에 관심 있었잖아? 아저씨도 오빠한테 유통 쪽 일 맡기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¹⁸⁵⁾
 (3인칭, 동사, 미래시제, 인용문)

영재: 가니까 뭐라 그래? (그는) 출판하겠대?¹⁸⁶⁾
 지은: 네? 아니,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3인칭, 동사, 미래시제, 인용문)

<표 17> 드라마 대화문 중 ‘가능·능력’ 의미 ‘-겠-’의 제약 양상

가능·능력

한재식: 내가, 이 한재식이, 어? 그까짓 미역국하고 오피스텔하고 바꿨겠냐? 어!¹⁸⁷⁾
 (1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직원: 객실 예약이 안 돼 있는데요. (당신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¹⁸⁸⁾
 지은: 헉, 예약이 안 됐대?
 (2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직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당신은) 1305호 팬찮으시겠습니까?¹⁸⁹⁾
 지은: 네, 감사합니다.
 (2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지은: (직원에게 주고) (당신은) 이거 좀 전해주시겠어요?¹⁹⁰⁾ 원고거든요.
 직원: 네. (받아두면)
 (2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대표: (네가) 우리말 들겠냐? 알아서 하겠지.¹⁹¹⁾
 (2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지은: 저기요, 제가 여기 예금 한 게 있는데요. (너는) 그거 이상 없는지 확인 좀 해

179) 那就拜托了, 我先告辭了。(〈폴하우스:1〉)

180) (即便)我再重複說一遍(也是一樣的)。(〈폴하우스:1〉)

181) 不不, 今天也可以。那就一會見。(〈폴하우스:4〉)

182) 我真的很冤枉, 我爲神馬要做那種事呢?(〈착한 남자:20〉)

183) 啊, 對了, 您要不要喝杯茶?

184) 根本不知道這故事到底要說的是什麼。文章也亂七八糟的, 構成也亂成一團。(〈폴하우스:4〉)

185) 叔叔也說要你負責流通方面的嘛?(〈폴하우스:1〉)

186) 你去了說啥了, 說要出版了?(〈폴하우스:4〉)

주시겠어요?¹⁹² (2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은기: 박준하, 나 알아보겠어? 은기 알아보겠어?¹⁹³
(2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간호사: 글썸, 제일 친한 친구 분 주소라면서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요.
지은: 그러니까 답답하죠. 저도 지금 미치겠어요. 제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¹⁹⁴
간호사: ...(뭘 소린지)하여튼 저희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3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미남: 근데 제 이름이 부담스럽게 독특하니까 (사람들이) 기억하시지 않겠어요?¹⁹⁵
제가 유명해지면 꼭 알아보고 찾아오실 거예요. 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정말 예쁘게 웃는다)
신우: (안쓰러운 씩씩 중얼) 그런 거였구나.
(3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동욱: 어, 우리 은행에서 우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해외관광 경품행사를 하는데 지은이 네가 딱 당첨이 된 거야.
지은: 이거, 뺑 아냐?
동욱: 야, 뺑은...우리 은행에서 고객을 상대로 뺑을 치겠냐?¹⁹⁶
(3인칭, 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강마루: 저 아이라면 (저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씩씩하게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¹⁹⁷
(3인칭, 동사, 현재시제, 감탄문)

드라마의 대본을 활용하여 ‘-겠-’이 들어 있는 문장 중에 인칭, 서술어, 시제, 문장 유형 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실생활에서 재현되는 문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겠-’의 통사적 제약 상황을 전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중국어 번역문도 부가하므로 이해하기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겠-’의 각각의 의미별로 자신의 실제 생활을 결합하여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것은 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187) 我,韓在植, 會拿海帶湯交換商務樓嗎?(<착한 남자:20>)

188) 客房沒有預約上呢, 您能再確認一下嗎?(<폴하우스:1>)

189) 稍等一下, 1305號房間可以嗎?(<폴하우스:1>)

190) 這個可以給我轉交一下嗎?(<폴하우스:4>)

191) 我們的話你能聽聽嗎? 你會看著辦的吧?(<폴하우스:2>)

192) 能給我確認一下我這個有什麼異常麼?(<폴하우스:1>)

193) 朴俊河, 你能認出我嗎?(<착한 남자:20>)

194) 所以說真的很鬱悶, 我現在都要瘋了, 我的心臟誰又能知道呢?(<폴하우스:2>)

195) 不過我的名字非常有特點, 不是才能記住嗎?(<미남이시네요:4>)

196) 呀, 騙什麼, 我們銀行還會騙顧客麼?(<폴하우스:1>)

197) 她現在不管發生什麼情況, 也能堅強地挺住了啊。(<착한 남자:20>)

대본에 제시했던 ‘-겠-’의 ‘추측, 3인칭, 동사, 현재시제, 평서문’으로 한 문장 ‘그러시겠지 뭐’는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어 번역문을 참고하여 이해하면서 자신의 존재하는 실생활을 기반으로 문장을 만들게 한다.

⑤ 마무리

마무리는 학습한 ‘-겠-’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을 회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표 18> ‘-겠-’의 통사적 제약 정리

<p><추측></p> <p>① 인칭 제약: 평서문에서 1인칭 제약, 의문문에서 2인칭 제약.</p> <p>② 서술어 제약: 없음.</p> <p>③ 시제 제약: 없음.</p> <p>④ 문장 유형 제약: 청유문 제약, 명령문 제약.</p> <p><의지></p> <p>① 인칭 제약: 평서문에서 2, 3인칭 제약, 의문문에서 1, 3인칭 제약. 인용문에서 인칭 제약 없음.</p> <p>② 서술어 제약: ‘형용사’, ‘체언+이다’ 제약.</p> <p>③ 시제 제약: 과거시제 제약.</p> <p>④ 문장 유형 제약: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제약.</p> <p><가능></p> <p>① 인칭 제약: 없음.</p> <p>② 서술어 제약: 형용사, ‘체언+이다’ 제약.</p> <p>③ 시제 제약: 과거시제, 미래시제 제약.</p> <p>④ 문장 유형 제약: 청유문, 명령문 제약.</p>
--

4.2.2. ‘-더-’에 대한 교육 방안

‘-더-’는 연결형, 종결형, 관형사형 등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쓰이는 선어말어미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겠-’ 만큼이나 ‘-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유는 ‘-겠-’과 비슷하게 제약과 관련된 것이다. 주로 ‘-더-’는 양태의미를 갖고 제약이 나타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그것을 표현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더-’를 배제하고 다른 어미를 선택하여 비문을 자주 구성한다.

제3장에서 선정한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관형사형 어미 ‘-던’을 중심으로 ‘-더-’의 제약을 제시하여 효과적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단계에 대한 정의는 생략한다.

① 도입

다음과 같이 교사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더-’의 결합형이 도입된다.

<표 19> ‘-더-’ 관련 대화에 따라 각 결합형 도입

교사: 철수야, 아직도 서양 음식을 좋아해요?
 학생: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교사: 아, 철수는 예전에 서양 음식을 좋아하더니 지금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대조)

교사: 여러분, 철수는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더니 1등을 받았어요. (원인)
 학생: 축하합니다.

교사: 여러분, 내 한국말이 어때요? 괜찮죠?
 학생: 네, 잘합니다.
 교사: 대학에 다닐 때 매일 연습했더니 잘하는 거예요. (원인)

교사: 어제 우리 반 학생은 다 어디 갔어요?
 학생: 체육 대회에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제 교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깜짝 놀랐어요. (발견),
 (회상·보고)

교사: 나는 저렇게 성적이 좋은 학생이 좋더라. (감정 표현)
 학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사: 기말 시험이 언제예요.
 학생: 체육대회 후인 것 같습니다.
 교사: 그리니까 그게 언제더라. 확실한 날짜는 분명히 알았는데. (혼잣말)

교사: 철수야, 나는 계속 사용하던 볼펜이 어디 갔어요? (과거·지속, 미완료)
 학생: 여기 있습니다.

교사: 이 옷은 어때요?
 학생: 와오, 새 옷을 사셨네요.
 교사: 아니, 저번에 남편이 사주었던 거예요. (한번, 완료)

위의 <표 19>와 같이 교사는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더-’의 결합형으로 대답 하라고 한다. 아니면 교사의 질문 후,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서 ‘-더-’의 결합형으로 답하기 수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의 결합형이 도입되도록 한다.

② 제시

‘-더-’의 문법 결합형, ‘-더-’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다.

<표 20> ‘-더-’의 문법 결합형을 인식

교육 대상	초급 학습자
학습목표	‘-더-’의 문법 결합형을 인식한다.
유형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관형사형 어미 ‘-던’
의미와 용법	<p>① 연결어미 ‘-더니’:</p> <p>-더니¹(원인):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앞 문장)을 발화시에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그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질문한다는 뜻이며,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 어떠한 결과(뒤 문장) 혹은 질문을 낳았을 때 쓰인다.</p> <p>-더니²(대조):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앞 문장)과 달리 뒤 문장은 다른 사실이나 상황을 발생할 때 쓴다. 과거와 현재가 다를 때 나타낸다.</p> <p>-더니³(순차):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앞 문장) 뒤에 바로 다른 사실이나 상황이(뒤 문장) 발생할 때 쓰인다.</p> <p>-더니⁴(부가): 화자 본인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앞 문장)에 더하여 뒤 문장은 그에 관련된 다른 사실이나 상황을 발생할 때 쓰인다.</p> <p>-있더니¹(원인): 앞 문장에서 화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고, 이는 뒤 문장의 사태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된다.</p> <p>-있더니²(발견): 앞 문장은 화자 본인이 본 완료된 장면이나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에 이어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을 나타낸다.</p> <p>② 종결어미 ‘-더라’:</p> <p>-더라¹²(회상·보고, 감정 표현): 친한 사이나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화자가 말을 하기 전에 직접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발화시에 어떤 느낌을 실어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p>

	<p>쓰인다. 화자 본인의 심리나 감정을 표현할 때, 1인칭 주어만 쓸 수 있다. ‘-더구나’는 그 사실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낸다. ‘-데’, ‘-더구나’는 ‘-더라¹’와 의미 차별이 크지 않아서 바꿔 쓸 수 있다. 화자 본인이 주어로 할 때,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p> <p>-더라³(혼잣말): 과거 어느 때에 직접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것을 기억해 내려고 애쓰면서 혼잣말하는 것처럼 생각해볼 때 쓰인다.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등의 의문사와 같이 쓰인다.</p> <p>③ 관형사형 어미 ‘-던’: -던¹: 과거에 접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더-’에 없는 특정한 사실이나 행위, 상태가 중단, 반복, 미완료, 지속하였다는 의미까지도 나타낸다.</p> <p>-었던: 과거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회상을 나올 때 사용한다. 완료, 일회성의 뜻이 강하다.</p>
보기	<p>(1) 가.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u>더니</u> 역시 1등을 받았군요. 나. 그는 중학생 일 때는 공부를 잘하<u>더니</u> 지금은 못해요. 다. 막 성질냈<u>더니</u> 너무 힘들어요. 라. 가게 찾<u>아</u>갔<u>더니</u>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p> <p>(2) 가. 아침부터 사람이 많이 모<u>이</u>더라. 나. 나는 그렇게 예쁜 여자가 좋<u>더</u>라.</p> <p>(3) 가. 다니<u>던</u> 대학을 그만둔 건 경제적 이유 때문인가? 나. 이것이 내가 초등학교 때 쓰<u>던</u> 의자이다.</p> <p>(4) 가. 미국에 유학을 갔<u>던</u> 친구가 오늘 귀국한다. 나. 중학교 다닐 때 자주 만<u>났</u>던 친구를 다시 만났다.</p>

위의 <표 20>와 같이 초급 학습자에게 ‘-더-’의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의 각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시하였다. 다음에 중·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더-’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한다.

<표 21> ‘-더-’의 연결어미 ‘-더니’ 제약 교수·학습

교육 대상	중·고급 학습자
학습목표	선어말어미 ‘-더-’의 연결어미 ‘-더니’ 제약 교수·학습
유형	인칭, 서술어, 시제, 문장유형 제약

<p>제약과 용법</p>	<p>① 인칭 제약: ‘-더니¹(원인)’ 1인칭 제약. ‘-더니²(대조)’ 인칭 제약 없음, ‘-엇더니¹(원인)’, ‘-엇더니²(발견)’ 2, 3인칭 제약.</p> <p>② 서술어 제약: ‘-더니¹(원인)’, ‘-더니²(대조)’ 서술어 제약 없음. -엇더니¹(원인), -엇더니²(발견) 형용사와 ‘체언+ 이다’ 제약.</p> <p>③ 시제 제약: ‘-더니¹(원인)’, ‘-더니²(대조)’, ‘-엇더니¹(원인)’ 후행절 시제 제약 없음. ‘-엇더니²(발견)’ 후행절 미래시제 제약.</p> <p>④ 문장 유형 제약: ‘-더니¹(원인)’, ‘-더니²(대조)’, ‘-엇더니¹(원인)’, ‘-엇더니²(발견)’ 청유문, 명령문 제약.</p>
<p>보기</p>	<p>(*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p> <p>인칭 제약</p> <p>(1) ‘-더니¹(원인)’ 가. <u>(나는)</u> 찬물을 많이 마시더니 배가 아파요. (×) 나. <u>(너는)</u> 아까부터 거지거지 하더니 진짜 날 거지로 아냐?¹⁹⁸⁾</p> <p>(○) 다. <u>그 학생이</u> 열심히 공부하더니 역시 1등을 받았군요. (○)</p> <p>(2) -엇더니¹(원인): 가. <u>제가</u> 좀 이상했는데 물을 많이 <u>마셨더니</u> (몸이) 좋아졌습니다.¹⁹⁹⁾ (○)</p> <p>(3) -엇더니²(발견) 가. <u>(나는)</u>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u>알았더니</u> 완전 구멍이네.²⁰⁰⁾ (○)</p> <p>서술어 제약</p> <p>(4) -엇더니¹(원인): 가. 막 <u>성질냈더니</u> 너무 힘들어요.²⁰¹⁾ 동사 (○) 나. 어제 <u>추웠더니</u> 눈이 왔다. 형용사 (×) 다. 전에 <u>선생님이었더니</u> 센스가 있네. 체언+ 이다 (×)</p> <p>(5) ‘-엇더니²(발견)’ 가.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u>알았더니</u> 완전 구멍이네. 동사 (○) 나. 나는 전에 서양 음식이 <u>맛있었더니</u> 맛이 없구나. (×) 다. 철수가 <u>바보였더니</u> 실은 똑똑한 사람이다. (×)</p> <p>시제 제약</p>

	<p>(6) '-었더니²(발견)' 후행절 시제 제약 가. 야, 너 한동안 안 봤더니 키가 더 커졌다.²⁰²⁾ (○) 과거 나. 이 언니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²⁰³⁾ (○) 현재 다. 가게 갔더니 아무도 없을 것이다. (×) 미래</p> <p>문장 유형 제약 (7) '-더니¹(원인)' 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역시 1등을 받았어요. (○) 나. 아까부터 거지거리 하더니 진짜 날 거지로 아냐?²⁰⁴⁾ (○) 다. 새로운 백화점이 생기더니 같이 가자. (×) 라. 밤을 새워 공부하더니 빨리 자세요. (×) 마. 가수가 꿈이더니 진짜 됐구나.²⁰⁵⁾ (○)</p> <p>(8) '-더니²(대조)' 가. 내가 중학생 일 때는 공부를 잘하더니 지금은 못해요. (○) 나. 바쁘다고 그러더니 지금 나가요?²⁰⁶⁾ (○) 다.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과에 가자. (×) 라.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과에 가세요. (×) 마. 아까는 울어서 곤란하게 하더니 이제는 웃어서 곤란하게 하네.²⁰⁷⁾ (○)</p> <p>(9) -었더니¹(원인) 가. 막 성질냈더니 너무 힘들어요.²⁰⁸⁾ (○) 나. 오냐오냐해줬더니 자기 주제도 잊었나?²⁰⁹⁾ (○) 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새 옷을 사자. (×) 라.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선물을 주세요. (×) 마. 요즘 좀 조용한 가 했더니, 이게 또 아침부터 까부네.²¹⁰⁾ (○)</p> <p>(10) -었더니²(발견) 가. 가게 찾아갔더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²¹¹⁾ (○) 나. 잠깐 오줌 싸고 왔더니 그새 온 거야?²¹²⁾ (○) 다. 미술관에 갔더니 너도 같이 가자. (×) 라. 미술관에 갔더니 빨리 가세요. (×) 마.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²¹³⁾ (○)</p>
--	---

- 198) 你從剛剛開始就一直說乞丐乞丐的，所以我就真是乞丐了麼？(<폴하우스:4>)
199) 我本來有點怪怪的，不過喝了點水好像沒事了。(<미남이시네요:6>)
200) 我以爲這哥哥很聰明呢，原來完全就是個笨蛋啊！(<착한 남자:2>)
201) 剛有點太生氣了，所以現在很累。(<착한 남자:2>)
202) 許久不見你 個子又高了。(<착한 남자:15>)
203) 以爲這個姐姐很聰明呢，原來這麼傻。(<착한 남자:2>)
204) 你從剛剛開始就一直說乞丐乞丐的，所以我就真是乞丐了麼？(<폴하우스:4>)
205) 說當歌手是你的夢想，還真當了歌手吶！(<미남이시네요:8>)
206) 你不是說很忙嗎，現在又要出去？(<폴하우스:4>)
207) 高美男，很好笑麼？切，剛剛哭得叫人不知所措，現在又笑得讓人不知所措。(<미남이시네요:5>)
208) 剛有點太生氣了，所以現在很累。(<착한 남자:2>)

<표 22> '-더-'의 종결어미 '-더라' 제약 교수·학습

교육 대상	중·고급 학습자
학습목표	선어말어미 '-더-'의 종결어미 '-더라' 제약 교수·학습
유형	인칭, 서술어, 시제, 문장유형 제약
제약과 용법	<p>① 인칭 제약: '-더라¹(회상·보고)' 1인칭 제약. 객관화 상황 1인칭 제약 해소됨. '-더라²(감정 표현)' 2, 3인칭 제약. '-더라³(혼잣말)' 인칭 제약 없음.</p> <p>② 서술어 제약: '-더라²(감정 표현)' 동사, '체언+이다' 제약, '-더라¹(회상·보고)', '-더라³(혼잣말)' 서술어 제약 없음.</p> <p>③ 시제 제약: '-더라²(감정 표현)' 현재시제, 미래시제 제약, '-더라¹(회상·보고)', '-더라³(혼잣말)' 시제 제약 없음.</p> <p>④ 문장 유형 제약: '-더라¹(회상·보고)' '-더라²(감정 표현)'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제약. '-더라³(혼잣말)'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제약.</p>
보기	<p>(*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p> <p>인칭 제약 (1) -더라¹(회상·보고) 가. 나는 영어를 잘하더라. (×) 나. 어제 네가 어떤 여자랑 손잡고 가더라. 그 사람 누구야?²¹⁴⁾ (○) 다. 개가 어제 태경이형 나가고 난 뒤에 울더라.²¹⁵⁾ (○) 라. 내가 어제 밤에 꿈에서 놀이공원에 가더라. (○) 객관화 상황</p> <p>(2) -더라²(감정 표현) 가.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²¹⁶⁾ (○) 나. 너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다. 철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라. 철수는 사과를 좋아 하더라. (○)</p>

209) 給你三分顏色，你就分不清自己的身份了？(<착한 남자:17>)
 210) 我就覺得你有點安靜，果然又從一大早開始鬧了。(<풀하우스:5>)
 211) 去店裏找他，都說他好幾天沒來上班了。(<착한 남자:2>)
 212) 什麼呀，上廁所的功夫，這就來了。(<미남이시네요:3>)
 213) 我還以為這個哥哥很聰明呢，原來就是個大笨蛋。(<착한 남자:1>)

	<p>(3) -더라³(혼잣말) 가. <u>(나는)</u> 어디서 그 사람을 보았더라? (○) 나. <u>(너는)</u> 누구시더라? 죄송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다. <u>철수는</u> 그때 화가 많이 났었지요? <u>그게</u> 뭐 때문이었던라? (○)</p> <p>시제 제약 (4) -더라²(감정 표현) 가. 나는 어제 기분이 좋더라. (○) 나. 나는 지금 기분이 좋더라. (×) 다. 나는 내일 기분이 좋더라. (×)</p> <p>문장 유형 제약 (5) -더라¹(회상·보고) 가.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더라. (○) 나. 부산에 갔다 와서 아주 좋더라? (×) → (√좋더냐?) 다. 우리 미술관에 가더자. (×) 라. 미술관에 가더라. (×) 마. 철수는 만든 음식이 아주 맛있더라! (×) (√맛있더군)</p> <p>(6) -더라²(감정 표현) 가.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나. 기분이 좋더라? (×) → (√좋더냐?) 다. 우리 기분이 좋자. (×) 라. 내가 기분이 좋으세요. (×) 마. 나는 기분이 아주 좋더라. (×) (√좋더군)</p> <p>(7) -더라³(혼잣말) 가. 어디서 그 음악을 들었더라? (○)</p>
--	--

<표 23> ‘-더-’의 관형사형 어미 ‘-던’ 제약 교수·학습

교육 대상	중·고급 학습자
학습목표	선어말어미 ‘-더’의 관형사형 어미 ‘-던’ 제약 교수·학습
유형	인칭, 서술어, 시제, 문장유형 제약
제약과 용법	① 선행 동사 유형 제약: ‘미완료’ ‘-던’ 순간동사 제약. ‘과거·지속’ ‘-던’ 순간동사 제약. ‘완료’ ‘-었던’ 선행동사 제약 없음.

214) 오로지(2011:12)에서 예문을 인용하였다.

215) 他昨天在泰京走了之後還哭鼻子了呢。(〈미남이시네요:2〉)

216) 我喜歡那種漂亮的女孩。(〈미남이시네요:4〉)

	<p>‘한번·반복’ ‘-있던’ 선행동사 제약 없음.</p> <p>② 의미 제약: ‘-던’의 ‘미완료’와 ‘-있던’의 ‘완료’의 의미 제약. ‘-던’의 ‘과거·지속’과 ‘-있던’의 ‘한번·반복’의 의미 제약.</p>
보기	<p>(* 자연스러우면 ○, 틀리면 × 표시)</p> <p>선행 동사 유형 제약: ‘미완료’ ‘-던’ (1) 가. 내가 읽던 책을 누가 가져갔어요? (○) 지속동사 나. 감기에 걸리던 여자는 철수이다. (×) 순간 동사</p> <p>‘과거·지속’ ‘-던’ (2) 가. 여기가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이에요. 지속 동사 (○) 지속동사 나. 그 옷은 엄마가 지난 주 사주던 것이다. (×) 순간동사</p> <p>‘완료’ ‘-있던’ (3) 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친구가 오늘 귀국한다. (○) 지속동사 나. 어제 감기에 걸렸던 철수가 오늘 나아졌다. (○) 순간동사</p> <p>‘한번·반복’ ‘-있던’ (4) 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친구가 오늘 귀국했다. (○) 지속동사 나. 중학교 다닐 때 자주 만났던 친구를 다시 만났다. (○) 지속동사 다. 그 치마는 전에 아빠가 사주었던 것이다. (○) 순간동사</p> <p>의미 제약: (5) 가. 어제 먹던 수박은 어디 갔어요? (미완료) 나. 어제 먹었던 수박은 하나 더 사요. (완료) (6) 가. 여기서 내가 살던 집이다. (과거·지속) 나. 여기서 내가 살았던 집니다. (한번·반복)</p>

위의 <표 21>, <표 22>, <표 23>와 같이 중·고급 학습자에게 ‘-더-’의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던’의 통사적 제약을 살펴보고 제시하였다.

③ 연습

‘-더-’의 통사적 제약에 익숙하도록 연습 문제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표 24> ‘-더-’의 연결어미 ‘-더니’ 제약 연습 문제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 '-더니'로 문장을 채우세요.

인칭 제약 문제

괄호에 주어진 단어로 빈칸을 채우세요.

1. _____ 찬 물을 많이 마셨더니 배가 아파요. (내가/네가/그가)
2. _____ 아까부터 거지거지 하더니 진짜 날 거지로 아나? (내가/네가/그가)
3. 철수는 열심히 _____ 역시 1등을 받았군요. (공부하더니/공부했더니)
4. 내가 중학생일 때는 공부를 _____ 지금은 못해요. (잘하다)
5. 네가 예전에는 음악을 _____ 이제는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다)
6. 미경이 어제는 미술관에 _____ 오늘은 집에 있다. (가다)
7. 내가 막 _____ 너무 힘들어요. (성질내더니/성질냈더니)
8. (나는)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_____ 완전 구멍이네. (알더니/알았더니)

서술어 제약 문제

다음과 같이 괄호 앞에 있는 문장은 맞으면 '○'로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 9 가. 막 성질냈더니 너무 힘들어요. () 동사
나. 어제 추웠더니 눈이 왔다. () 형용사
다. 전에 선생님이었더니 지식이 많다. () 체언+이다
- 10 가. 가게 찾아갔더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 동사
나. 나는 전에 서양 음식이 맛있었더니 맛이 없구나. () 형용사
다. 철수가 바보였더니 실은 똑똑한 사람이다. () 체언+이다

시제 제약

다음과 같이 맞으면 ○, 틀리면 ×를 채우세요.

- 11 가. 집에 돌아왔더니 꽃이 죽었다. () 후행절 과거시제
나. 이 언니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 () 후행절 현재시제
다. 가게 갔더니 아무도 없을 것이다. () 후행절 미래시제

문장 유형 제약

12 '-더니¹(원인)

- 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역시 1등을 받았어요. ()
- 나. 아까부터 거지거지 하더니 진짜 날 거지로 아나?²¹⁷⁾ ()
- 다. 새로운 백화점이 생기더니 같이 가자. ()
- 라. 밤을 새워 공부하더니 빨리 자세요. ()
- 마. 가수가 꿈이더니 진짜 됐구나. ()

13 '-더니²(대조)

- 가. 내가 중학생 일 때는 공부를 잘하더니 지금은 못해요. ()
- 나. 바쁘다고 그러더니 지금 나가요? ()
- 다.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과에 가자. ()
- 라.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과에 가세요. ()
- 마. 아까는 울어서 곤란하게 하더니 이제는 웃어서 곤란하게 하네.²¹⁸⁾ ()

14 -었더니¹(원인)

- 가. 막 성질냈더니 너무 힘들어요. ()
- 나. 오냐오냐해줬더니 자기 주제도 잊었나? ()

- 다. 내가 어제 더웠더니 옷을 벗자. ()
 라. 철수가 어제는 미술관에 가더니 오늘은 음악관에 가세요. ()
 마. 요즘 좀 조용한 가 했더니, 이게 또 아침부터 까부네. ()
- 15 ‘-었더니²(발견)’
 가. 가게 찾아갔더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
 나. 잠깐 오줌 싸고 왔더니 그새 온 거야? ()
 다. 미술관에 갔더니 너도 같이 가자. ()
 라. 미술관에 갔더니 빨리 가세요. ()
 마. 이 오빠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구멍이네. ()

<표 25> ‘-더-’의 종결어미 ‘-더라’ 제약 연습 문제

- 다음과 같이 종결어미 ‘-더라’로 문장을 채우세요.
 인칭 제약
- _____ 영어를 잘하더라. (내가/네가/그가)
 - _____ 오늘 일찍 미술관에 왔더라. (내가/네가/그가)
 - _____ 어제 밤에 꿈에서 놀이공원에 가더라. (내가/네가/그가)
- 다음 문장이 맞는지 판단하세요.
- 가.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나. 너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다. 철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 문장 유형 제약
 다음과 같이 괄호 앞에 있는 문장은 맞으면 ‘○’로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더라¹(회상·보고)’
- 가.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더라. ()
 나. 부산에 갔다 와서 아주 좋더라? ()
 다. 우리 미술관에 가더자. ()
 라. 미술관에 가더라. ()
 마. 제주도가 부산보다 시원하더라! ()
- ‘-더라²(감정 표현)’
- 가.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나. 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다. 우리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자. ()
 라.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세요. ()
 마.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 ()
7. 어디서 그 음악을 들었더라? ()

217) 你從剛剛開始就一直說乞丐乞丐的，所以我就真是乞丐了麼？(<풀하우스:4>)
 218) 高美男，很好笑麼？切，剛剛哭得叫人不知所措，現在又笑得讓人不知所措。(<미남이시네요:5>)

<표 26> ‘-더-’의 관형사형 어미 ‘-던’ 제약 연습 문제

다음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던’로 문장을 채우세요.

- 1 가. _____ 대학을 그만둔 건 경제적 이유 때문인가? (다니던/다녔던)
나. _____ 대학은 아주 아름다운 대학이다. (다니던/다녔던)
- 2 가. 감기에 _____ 여자는 철수이다. (걸리던/걸렸던)
나. 어제 _____ 수박은 없어졌어요. (먹던/먹었던)

다음과 같이 ‘-던/-었던’으로 쓰이는 문장이 의미 차이가 뭘지 설명하세요.

- 3 가. 여기가 제가 살던/살았던 곳이에요.
나. 이것이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썼던 의자이다.
다. 그 옷은 엄마가 지난 주 사 주던/사 주었던 것이다.

다음의 ‘-던’이나 ‘-었던’ 형식으로 빈칸을 채우세요.

- 4 가. 미국에 유학을 _____ 친구가 오늘 귀국한다. (가다)
나. 어제 감기에 _____ 철수는 오늘 나아졌다. (걸리다)

<표 24>, <표 25>, <표 26>는 ‘-더-’의 연결어미 ‘-더니’, 종결어미 ‘-더라’, 관형사형 어미 ‘-던’에 대한 연습 문제를 만들었다. <표 24>, <표 25> 주로 빈칸을 채우거나 판단 문제를 통해 학습자들이 ‘-더-’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 그들의 통사적 제약을 익숙해지게 한다. <표 26>는 ‘-던’과 ‘-었던’에 대해 분별하여 제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다.

④ 활용

드라마 대본을 활용하여 ‘-더-’에 대한 제약을 학습하도록 한다.

<표 27> 드라마 대화문 중 연결어미 ‘-더니’ 제약 양상

연결어미 ‘-더니’

태경: (네가) 신우랑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네.²¹⁹⁾ 그럼 신우랑 방 쓸 것이지 왜 내 방에 기어들어 온 거야.,(켓)
미남: (조용히)신우형은 남자잖습니까~ (했다가) 아, 참 형님도, 남잔데. (깜빡했다)

(‘-더니¹(원인)’),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감탄문)

지은: (너는) 아까부터 거지거지 하더니 진짜 날 거지로 아냐?²²⁰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뭘데 사람 웃기게 만들어?

영재: 야, 너...

(‘-더니¹(원인)’),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의문문)

동준: (봐 주고 보며) 이게 얼마만이나 고미남! (너는) 가수가 꾸이더니, 진짜 됐구나.²²¹ 자랑스럽다 친구야! 이 자식아! (다시 격렬 포옹)

미남: (어쩔 줄 몰라 흔들리는데)

(‘-더니¹(원인)’), 2인칭, 체언+이다, 후행절 과거시제, 감탄문)

훈이: (얼른 막아서며) (개는) 요즘 너무 설레서 밤잠을 못 자더니 살이 빠졌나 보인다.²²²

안사장: 빠진 게 좋아. 화면에는 더 잘 나오니까. 계약서 사본은 읽어 봤겠지?

(‘-더니¹(원인)’), 3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평서문)

지은: 화가 많이 나서 버르고 계시대요.

영재: 나, (너는) 집 나올 때 호적 봤다고 그러시더니...왜 또 변덕이야?²²³

(‘-더니²(대조)’),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의문문)

지은: 어, 그래서 오늘 우리 드림랜드 가자구. 그래, 내 생일엔 한결같이 드림랜드지. 빠지면 생일이 안 되지...그럼...재밌겠지? 그래...어...(영재 발견)(너는) 바쁘다고 그러더니 지금 나가요?²²⁴

영재: (대답 없이 문 뒹 닫고)

지은: 하여튼...성격 이상해.

(‘-더니²(대조)’),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의문문)

지은: 으이구, (너는) 나보고는 개밥 먹느냐구 그러더니...잘 한다.²²⁵

영재: 비빔밥이라니까...(우이씨)

(‘-더니²(대조)’),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평서문)

영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잘난 척 하고 나가더니(쫓쫓) 내가 너 소설인지 뭔지 쓴다 그럴 때부터 웃긴다 그랬다니까. 소설은 네가 무슨...(하는데)²²⁶

지은: (끓고)저기요, 그쪽이 안 그래도, 저 지금 기분 별루 안 좋거든요. 그만해요. 네?

(‘-더니²(대조)’), 2인칭, 동사, 후행절 과거시제, 평서문)

태경: 고미남. 그렇게 웃겨? 췌 (싫다 물 따르며) (너는) 아까는 울어서 곤란하게 하더니 이제는 웃어서 곤란하게 하네.²²⁷

미남: (쓱 입가의 물기와 웃음기 닦으며) 죄송합니다.

(‘-더니²(대조)’),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감탄문)

태경: (너는) 엄마를 위해서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오빠를 위해서는 별루 매달릴 생각을 안 하네. 쌍둥이라더니 왜 이렇게 의리가 없어?²²⁸ (떠나는게 웬지 서운한 거에 대한 태경식 표현)

(‘-더니²(대조)’),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감탄문)

태경: 너 지금 장난 하는 거지?
 헤이: (보다가 깔깔 웃는다) 이제 알았어~? 사진 같은 거 없었어~. 있었으면 내가 너한테 왜 전화 하나 바루 기자한테 보내지. (너는) 아까 되게 잘난 척 하더니 생각 보다 멍청하구나.²²⁹⁾ (깔깔 웃는데)
 (‘-더니²(대조)’,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감탄문)

헤이: 왔어? (너는) 아까는 나한테 문도 안 열어주더니 (안 열어줬는데), 급하니까 직접 오네.²³⁰⁾
 (‘-더니²(대조)’,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감탄문)

훈이: 유혜이가 우리 미남이한테 장난을 쳤어요.
 제르미: ??
 훈이: 일부러 찾아와서 미남이 팬이라면서 사진도 찍고 팔짱도 끼고 그렇더니, (이제 보니까) 그게 다 황태경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어요.(원망)²³¹⁾
 (‘-더니²(대조)’, 3인칭, 동사, 후행절 과거시제, 평서문)

모화란: (자르며) (내가) 간만에 조명 췌더니 머리 아파,,(눈 감으며) 여기 좀 눌러 봐.²³²⁾ (관자)
 미남: (얼결에) 아,,예..
 (‘-었더니¹(원인)’, 1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평서문)

미남: 아, 제가 좀 이상했는데 물을 많이 마셨더니 좋아졌습니다.²³³⁾
 신우: 그래? 그럼 차 끓여 줄 게, 한 잔 더 마셔.
 (‘-었더니¹(원인)’, 1인칭, 동사, 후행절 과거시제, 평서문)

지은: 그래, 갔다, 갔는데...기분이 나쁘잖아. 왜 사람을 똥개 훈련 시키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우습냐?
 영재:(너는) 요즘 좀 조용한 가 그러더니, 이게 또 아침부터 까부네.²³⁴⁾
 지은: 뭐? 까불어?
 (‘-었더니¹(원인)’, 2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감탄문)

태경: (나는) 괜찮다는 말을 하러 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런 식으로 전해. 이려고 끝이야?²³⁵⁾ (노려 보는)
 태경: 계속 안 보이는 데 있겠다..보지 말자..그래 안 보면 돼(하고 화면 탁 닫는데)
 (‘-었더니²(발견)’, 1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평서문)

사유리: 아줌마 오빠들 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죽 때려도 볼까 말까요.
 미자: 하루 종일? 아유, 나는 정말 한시가 급한데. (부채질 팍팍)내가 갯날도 재끼고 왔더니 뭐야 이게? ²³⁶⁾
 (‘-었더니²(발견)’, 1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의문문)

미자: 뭐야 뭐야? (하다가 보고) (내가) 아니 잠깐 오줌 싸구 왔더니 그새 온 거야?!²³⁷⁾ (늦게나마) 고미남~! 미남아!! (아이들 헤치고 부채 마구 흔들며 다가가지만) 시무룩 미남 고개 푹 숙이고 미자 뒤로 한 채 그냥 들어간다.
 미자: 아유 아까워라~! 내 등 안 오다 왜 이때 온데~!! (아까운데)
 (‘-었더니²(발견)’, 1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의문문)

제르미: 너 여기서 뭐해? (다가오며) (나는) 가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한가하게 차 마시고 있냐!?²³⁸)

미남: (당황한) 저는 사과하고 있습니다.

(‘-었더니²(발견)’, 1인칭, 동사, 후행절 현재시제, 의문문)

<표 28> 드라마 대화문 중 종결어미 ‘-더라’ 제약 양상

종결어미 ‘-더라’

안사장: 6집 자켓 컨셉은 잘 잡았고, 이미 새나가지 않게 보안유지 하자. (했다가)아태경이 너 요즘 보안유지해야 될 거 있더라.²³⁹)

태경: 뭐?

안사장: 여기선 터두 돼. 너 유희이랑 사귀지?

(‘-더라¹(회상·보고)’, 2인칭, 형용사, 미래시제, 평서문)

제르미: 뭐야?? 뭔데?? (요란스레 두리번 하다가) 아, 고미남.

신우: (어? 싶게 본다)

제르미: 개 진짜 웃기더라.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동사, 현재시제, 평서문)

219)聽說你和新禹關係不錯，原來是真的阿。(〈미남이시네요:6〉)

220)你從剛剛開始就一直說乞丐乞丐的，所以我就真是乞丐了麼?(〈폴하우스:4〉)

221)說當歌手是你的夢想，還真當了歌手吶!(〈미남이시네요:8〉)

222)美男最近比較激動，沒睡好覺所以大概有點瘦了。(〈미남이시네요:1〉)

223)我出門的時候他還大發雷霆呢，咋著現在又變了呢?(〈폴하우스:5〉)

224)你不是說很忙嗎，現在又要出去?(〈폴하우스:4〉)

225)看了我說‘你怎麼在吃狗食呢?’，你倒好(自己吃得還挺香)。(〈폴하우스:7〉)

226)我就知道會那樣，出去時還一副得意的樣子，當時你說什麼寫小說的時候我就知道是這種結果。

笑死人了，就你還寫什麼小說。(〈폴하우스:4〉)

227)高美男，很好笑麼?切，剛剛哭得叫人不知所措，現在又笑得讓人不知所措。(〈미남이시네요:5〉)

228)爲了媽媽可以那樣死纏爛打，爲了哥哥竟然連一點堅持的意思都沒有呢! 雙胞胎之間怎麼這麼不講義氣。

(〈미남이시네요:5〉)

229)照片什麼的根本就沒有，有的話我會給你打電話麼?肯定直接發給記者了，你總是擺出一副了不起的樣子，沒想到你這麼傻啊!(〈미남이시네요:6〉)

230)你來了?剛才你都不給我開門，現在著急了，竟然親自跑來了?(〈미남이시네요:6〉)

231)故意來找美男，說自己是她的粉絲，又挽胳膊，又照相的，原來都只是爲了掩蓋和黃泰京的關係的煙霧炮彈。(〈미남이시네요:7〉)

232)好久沒照燈光了，頭好疼，幫我按這裡。(〈미남이시네요:4〉)

233)我本來有點怪怪的，不過喝了點水好像沒事了。(〈미남이시네요:6〉)

234)我就覺得你有點安靜，果然又從一大早開始鬧了。(〈폴하우스:5〉)

235)我一直在等你來說沒關係這句話，卻是用這種方式，這樣就完了嗎?(〈미남이시네요:15〉)

236)一整天?哎喲，等一個小時我都受不了了，我今天還是偷偷跑出來的呢，這算什麼事啊。(〈미남이시네요:3〉)

237)什麼呀，上趟廁所的功夫，這就來了。(〈미남이시네요:3〉)

238)你在著幹啥呢?讓你去道歉，你居然在這兒悠閒地喝茶嗎?!(〈미남이시네요:2〉)

신우: (보며) 뭐가?

제르미: (개가) 어제 태경이형 나가고 난 뒤에 울더라.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동사, 과거시제, 평서문)

신우: 울었어?

제르미: (개는) 계단 올라가면서 짙끔 거리더라, 기집애도 아니고.²⁴⁰⁾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동사, 과거시제, 평서문)

사유리: (쭈쭈바 씹으며) 아까 봤냐? 고미남 가까이 보니까 완전 더 재수더라. 고미남
그거 진짜 퇴출 시켜야 되는데.²⁴¹⁾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체언+이다, 현재시제, 평서문)

신우: 내 컷 촬영? 와인잔 들고 멋지게 폼 잡고 마시는 거였지.

미남: 수영장물 마셔대는 저보단 훨씬 멋지셨겠네요.

신우: (빙긋)근데 감독님이 나한테 ‘강신우 다음은 원샷!’ 하시더라. 카메라가 나만 잡
는다는 말이었는데. 나 그만 원샷 해버렸다.²⁴²⁾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동사, 미래시제, 평서문)

태경: (차갑게 신경질 적으로)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나 당장 나갈꺼야. (나가려
면)

안사장: (아쉽지만 말리며) 지금은 나가면 안 돼. 촬영팀 있더라.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형용사, 현재시제, 평서문)

태경: (짜증난다) 촬영팀도 불렀어? 왜 카메라에 대고 고미남한테 땡큐하다고 인터뷰
라도 시키게?

안사장: 까칠하기는, 너 때문이 아니구, 유혜이가 도네이션 프로 찍으러 왔더라.²⁴³⁾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동사, 과거시제, 평서문)

헤이: (언니2) 언니는 오늘 유달리 힘이 높더라. 언니가 다리 제일 길어 보였겠다.²⁴⁴⁾
(착한 칭찬 톤인데)

언니2: (더 움찔) 미안, 내가 힘 부러뜨려 버릴까?

헤이: 언니는, 내가 뭐라고 했어. (하고 가는데 표정 싸늘) 그리고 싶으면 그러든가.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형용사, 현재시제, 평서문)

헤이: 그 여자 사진 한 장 더 있어.

태경: (굳고)

헤이: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너랑 그 여자 뛰는 거 찍었더라.²⁴⁵⁾ 그러니까 사람 많
은 데서는 조심했어야지~.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형용사, 과거시제, 평서문)

헤이: 나랑 비슷한 옷 입구 너랑 같이 뽀 여자. 사진도 찍혔어.

태경: (멈췄 고개 들고) 사진?

헤이: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사진 받아왔어. (핸드폰 눌러 찾으며) 비슷하게 입어
서 나라고 오해할 만도 하겠더라.²⁴⁶⁾

(‘-더라¹(회상·보고)’, 3인칭, 동사, 현재시제, 평서문)

제르미: 재 진짜 예쁘지.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좋더라.²⁴⁷⁾
(신우 보며) 형, 형도 예쁜 여자가 좋지?(일부러 미남 살피며 들으라) 태경이형도 저
런 여자가 좋다고 하지 않았나? 그지 그랬던 거 같은데 그지 형?

태경: (냉담) 그런 적 없어. 안 좋아해.
(‘-더라²(감정 표현), 1인칭, 형용사, 현재시제, 평서문)

안사장: (넌) 저번에 그게 뭐였더라?²⁴⁸
태경: ...
(-더라²(혼잣말), 2인칭, 동사, 과거시제, 의문문)

<표 29> 드라마 대화문 중 관형사형 어미 ‘-던’ 제약 양상

관형사형 어미 ‘-던’

신우: 안사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칭찬하던 숨씨가 궁금하네.²⁴⁹
제르미: 엄청난 미성이라며, 얼른 불러봐, 한 번 들어보자.
(‘-던’, ‘과거·지속’, 지속동사)

훈이: 제발 제발,,,고미남!!! 고미남의 꿈을 생각해!!! 고미남이 평생 꿈꾸던 일이잖아!!²⁵⁰ 주저 앉아선 안돼!!
(‘-던’, ‘과거·지속’, 지속동사)

미남: 그 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 성당 정원에 있던 다비드, 줄리앙, 토마스도 함께 있었답니다.²⁵¹
(‘-던’, ‘과거·지속’, 지속동사)

동욱: 물론 개가 천방지축으로 살던 애라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²⁵² 그렇지만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붙잡고 있으니까, 저희만 믿으세요.
희진: 그럼요, 개 약점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던’, ‘과거·지속’, 지속동사)

미남: 저, 이 건 놔두고 가도 될까요? (하지만 혼자 공허한 질문이다, 쟁반 탁자에 내려두고) 이 건 제가 지내던 곳에서 만든 향초와 허브티입니다.²⁵³
(‘-던’, ‘과거·지속’, 지속동사)

옆에 옷을 입던 제르미 미남이 소리에 흠뻑 신우 본다.
(‘-던’, ‘미완료’, 지속동사)

239) 泰京啊，最近你得維持保安狀態啲。

240) 上了樓梯，然後就直流眼淚。又不是女孩子。(〈미남이시네요:2〉)

241) 剛剛看到了嗎？靠近了一看更覺得他完全就是靠運氣進來的。必須得讓他退出。(〈미남이시네요:3〉)

242) 可導演那時候對我說：‘姜新禹，下一個鏡頭要喝光’。就是說會給我單獨鏡頭的意思，但我真的給喝光了。(〈미남이시네요:3〉)

243) 哎，真是刻薄呀，不是因為你啦，因為UHEY來這要拍一個募捐的節目。(〈미남이시네요:4〉)

244) 姐姐你今天特別高哦，你的腿看起來一定是最細長的呢。(〈미남이시네요:5〉)

245) 我的工作人員拍到你和那個女人一起跑的照片。(〈미남이시네요:6〉)

246) 不過穿得和我差不多，也難怪他會誤以為是我。(〈미남이시네요:5〉)

247) 我喜歡那種漂亮的女孩。(〈미남이시네요:4〉)

248) 上回那個是什麼來著？(〈미남이시네요:4〉)

기자: 이번 중국에서 촬영하는 영화는 어떤 것인가요?
영재: 믿었던 친구와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걱정적인 삶을 산 한 남자의 시대물입니다.²⁵⁴⁾
(‘-었던’, ‘완료’, 지속동사)

지은: 사기라뇨? 말조심하세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영재: 뭐야? 말조심?
지은: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 이영재 씨 아니에요?²⁵⁵⁾
(‘-었던’, ‘완료’, 지속동사)

미남: (저기구나) 거기군요. (참담한 표정으로 꾸벅)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서 옥상엘 갔던 겁니다.²⁵⁶⁾ 시원해 저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랬는데,
신우: 그랬는데 하필 넘어진 곳이 좀, 그랬어.
(‘-었던’, ‘완료’, 지속동사)

레지1: 갖다 버린 고모 껍이나 반가워하겠네 엄마도 아니구.
미자: 누군지도 모르는 엄마보다 조금이라도 키워줬던 고모가 낫지.²⁵⁷⁾
(‘-었던’, ‘완료’, 지속동사)

MC1: 특별히 이 곡을 좋아하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애절한 사연이 숨어 있다던가...
모화란: (미소)가장 순수하게 사랑받았던²⁵⁸⁾ 기억을 담고 있다고 할까요.(스르르 웃음)
(‘-었던’, ‘완료’, 지속동사)

신우: 태경이야. 네 말대로면, 하늘에서 날아온 고미남이란 돌맹이에 맞아 기절했던 건 황태경이야.²⁵⁹⁾
미남: 기절이요?
(‘-었던’, ‘완료’, 순간동사)

제르미 미남 앞에 상채 보이며 서 있다.
미남의 앞 뒤로도 남자들 왔다 갔다.
미남: (완전 굳어 서 있고)
제르미: 너도 씻긴 씻는 구나. (하고 하체에 걸었던 수건 턱 어깨에 걸치며 걸어 간다)
미남: (거의 무릎 풀리려는데)
(‘-었던’, ‘완료’, 순간동사)

모화란: 나 여깁는 거 알면서도 그냥 있었던 거, 혹시나 마주칠 까 기대한 거 아니었니?²⁶⁰⁾
태경: (정곡찔렸지만 티안내려 빈정어듯) 기대가 크시네요.
(‘-었던’, ‘완료’, 순간동사)

드라마의 대본을 활용하여 ‘-더-’가 들어 있는 문장 중에 인칭, 서술어, 시제, 문장유형 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던’과 ‘-었던’은 실제 대화 중 ‘-던’은 주로 ‘과거·지속’ 의미로 나타나며, ‘-었던’은 주로 ‘완료’ 의미로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 실생활에서 재현되는 문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의 통사적 제약을 전보다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중국어 번역문도 부가하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해하기가 더 쉽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해하면서 ‘-더-’의 각각의 문법 유형 의미별로 자신의 실제 생활을 결합하여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것은 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본에 제시했던 ‘-었더니¹(원인), 1인칭, 동사, 후행절 과거시제, 평서문’으로 한 문장 ‘제가 좀 이상했는데 물을 많이 마셨더니 좋아졌습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어 번역문을 참고하여 이해하면서 자신의 존재하는 실생활을 기반으로 문장을 만들게 한다.

⑤ 마무리

학습한 ‘-더-’의 통사적 제약을 회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표 30> ‘-더-’의 각 결합형 통사적 제약 정리

연결어미 ‘-더니’

① 인칭 제약:

‘-더니¹(원인)’ 1인칭 제약.

‘-더니²(대조)’ 인칭 제약 없음,

‘-었더니¹(원인)’, ‘-었더니²(발견)’ 2, 3인칭 제약.

249) 安社長對你讚不絕口的實力到底如何呢。(〈미남이시네요:1〉)

250) 這可是高美男一直以來做夢都想的事啊。(〈미남이시네요:1〉)

251) 那裡還有我們教堂庭院裏一直在那的大衛, 朱利安, 托馬斯。(〈미남이시네요:1〉)

252) 當然她一向都是小姐脾氣生活過來的, 所以有些不好相處。(〈풀하우스:3〉)

253) 這是我以前住的地方做的香蠟和薄荷茶。(〈미남이시네요:2〉)

254) 是一個被信任過的朋友和女朋友背叛, 自己突破艱難人生的時代片。(〈풀하우스:1〉)

255) 還有以不純的目的打算要利用了我的人, 不正是李英宰你嗎?(〈풀하우스:1〉)

256) 我那時是因為頭痛, 所以才去了屋頂的。(〈미남이시네요:2〉)

257) 比起素未謀面的媽媽, 當然是養過他們一段時間的姑姑強。(〈미남이시네요:2〉)

258) 可以說是留有極其單純地被愛過的記憶。(〈미남이시네요:4〉)

259) 按你的話說被從天而降叫高美男的石頭砸得暈過去的人, 是黃泰京。(〈미남이시네요:2〉)

260) 你明明知道我在這也一直那麼在那呆著, 不會是期待著遇到我吧?(〈미남이시네요:3〉)

② 서술어 제약:

‘-더니¹(원인)’, ‘-더니²(대조)’ 서술어 제약 없음.
-있더니¹(원인), -있더니²(발견) 형용사와 ‘체언+ 이다’ 제약.

③ 시제 제약:

‘-더니¹(원인)’, ‘-더니²(대조)’, ‘-있더니¹(원인)’ 후행절 시제 제약 없음.
‘-있더니²(발견)’ 후행절 미래시제 제약.

④ 문장 유형 제약:

‘-더니¹(원인)’, ‘-더니²(대조)’, ‘-있더니¹(원인)’, ‘-있더니²(발견)’ 청유문, 명령문 제약.

종결어미 ‘-더라’

① 인칭 제약:

‘-더라¹(회상·보고)’ 1인칭 제약. 객관화 상황 1인칭 제약 없어짐.
‘-더라²(감정 표현)’ 2, 3인칭 제약.
‘-더라³(혼잣말)’ 인칭 제약 없음.

② 서술어 제약:

‘-더라²(감정 표현)’ 동사, ‘체언+ 이다’ 제약.
‘-더라¹(회상·보고)’, ‘-더라³(혼잣말)’ 서술어 제약 없음.

③ 시제 제약:

‘-더라²(감정 표현)’ 현재시제, 미래시제 제약.
‘-더라¹(회상·보고)’, ‘-더라³(혼잣말)’ 시제 제약 없음.

④ 문장 유형 제약:

‘-더라¹(회상·보고) (감정 표현)’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제약.
‘-더라²(혼잣말)’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제약.

관형사형 어미 ‘-던’

① 선행 동사 유형 제약:

‘미완료’ ‘-던’ 순간동사 제약.
‘과거·지속’ ‘-던’ 순간동사 제약.
‘완료’ ‘-있던’ 선행 동사 제약 없음.
‘한번·반복’ ‘-있던’ 선행 동사 제약 없음.

② 의미 제약:

‘-던¹’의 ‘미완료’와 ‘-있던’의 ‘완료’의 의미 제약.
‘-던¹’의 ‘과거·지속’과 ‘-있던’의 ‘한번·반복’의 의미 제약.

5. 결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려면 한국어 문법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선어말어미 ‘-겠-’과 ‘-더-’는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다. 더구나 시제·상·서법 범주에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선어말어미 ‘-겠-’과 ‘-더-’의 통사적 제약을 고찰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목적, 연구사 검토, 연구방법, 그리고 논의의 구성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어말어미의 의미, 통사적 제약의 개념 및 범주, 선어말어미 통사적 제약을 소개하고 한국어 교수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립국어원(2006)『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에 제시된 예문을 중심으로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 ‘의지’, ‘가능·능력’의 의미에 따라 나타나는 통사적 제약 그리고 연결어미와의 공기 제약 양상을 분석하였다. 선어말어미 ‘-더-’의 연결어미 ‘-더니’는 ‘-더니(원인, 대조)’와 ‘-있더니(원인, 발견)’ 구분하고 그에 나타나는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였다. 종결어미 ‘-더라’는 의미(‘회상·보고’, ‘감정 표현’, ‘혼잣말’)에 따른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였다. 관형사형 어미 ‘-던’은 선행 동사 유형 제약과 ‘-던’과 ‘-있던’의 의미 제약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리된 선어말어미 ‘-겠-’과 ‘-더-’의 통사적 제약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토대로 5단계 교수 모형(‘도입(Warm-up) → 제시(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활용(Use) → 마무리(Follow-up)’을 이용하여 선어말어미 ‘-겠-’, ‘-더-’의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하였다. 도입 단계에는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대화나 문장으로 시작하였다. 제시 단계에는 초급 학습자에게는 ‘-겠-’, ‘-더-’는 주로 의미를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3장에서 제시했던 ‘-겠-, -더-’의 제약에 초점을 맞추어 제약 현상을 가르치는 과정을 제시하였

다. 연습 단계에는 학습자가 ‘-겠-’, ‘-더-’의 통사적 제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문제를 제시하였다. 활용 단계에는 한국 드라마 ‘풀 하우스’, ‘미남이시네요’, ‘착한 남자’의 대본을 활용하여 ‘-겠-’, ‘-더-’의 통사적 제약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은 선어말어미 ‘-겠-’과 ‘-더-’를 잘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인칭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문장 유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찰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필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의 통사적 제약 현상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에 일조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창운(1991), 「‘-겠-’과 ‘-르 것이-’의 용법」, 『겨레어문학』,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595~614.
- 관흔흔(2016), 「한국어 ‘-던’과 ‘-었던’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I』,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6), 『외국인위한 한국어문법1·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용해(2006), 「초급 한국어 교수법 모델 및 교재 구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경령(2010), 「한국어 교수 방법에 대한 고찰」, 『세계한국어문학』 4, 세계한국어문학, 131~150.
- 김려연(2011), 「한국어 선어말어미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태(2014), 「관형사절의 ‘-더-’에 대하여」, 『한글』 303, 5~39.
- 김순저(2012),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중국조선어문』, 27~35.
- 김영희(1981), 「회상문의 인칭제약과 책임성」, 『국어학』 10, 국어학회, 37~80.
- 김재윤(1986), 「第二言語로서의 韓國語 教育方法: TPR 接近法을 中心으로」, 『논문집』 23, 179~199.
- 김정숙(1998),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원리 및 모형」,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103~122.
- 김지영(2007), 「한국어교육을 위한 ‘-겠-’ 연구: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차균(1980), 「국어의 미정 형태소의 의미」, 『한국언어문학』 19, 한국언어문학회,

131~156.

- 김풀잎(2013), 「한국어 구어 담화의 시제 선어말어미 교수·학습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규(1977), 『國語學概論』 증보판, 一潮閣.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때김 연구』, 과학사.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마홍염(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현 요소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영(2013), 「한국어교육으로서 ‘-더-’의 의미 기능별 교수방안의 효과 연구: 종결어미 ‘-더라고요’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2001), 「한국어 ‘-더라’의 교수 방안」, 『어화어문논집』 19, 81~106.
- 박옥숙(1987), 「임의적 불확실성과 화자의 주관적 선택」, 『한글』, 198쪽.
- 박은정(2007),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겠-’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225.
- 박재연(2008), 「‘-던가’, ‘-더라’ 의문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199~227.
- 박진경(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더-’의 문법 기술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서정수(1977), 「‘-겠-’에 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63~87.
- 서정수(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언어』 2, 한국언어학회, 97~125.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부.
- 선광용(2011),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선어말어미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광수(1984), 「국어의 추정적 표현」, 『한글』 184, 한글학회, 53~80.
- 성기철(1986), 「‘-겠-’과 ‘-을 것이’의 의미 비교」, 『先淸語文』 7-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10.
- 송재목(1998), 「안맺음씨끝 ‘-더-’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학』 32, 국어학회, 135~169.
- 송재목(2007), 「증거성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형태론』 9-1, 도서출판 박이정, 1~23.
- 송재목(2011), 「‘-더니’와 ‘-엇더니’: 선어말어미 ‘-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60, 국어학회, 33~67.
- 송재영·한승규(2008), 「연결어미 ‘-더니’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177~198.
- 신창순(1972), 「현대 한국어의 용언보조어간 ‘-겠-’의 의미와 용법」, 『조선학보』, 65, 145~165.
- 신현숙(1980), 「‘-더라’의 쓰임과 의미」, 『論文集』 11, 건국대학교, 113~123.
- 신현정(2006), 「한국어 학습자들의 ‘-겠-’과 ‘-르 것이’ 사용에 나타난 중간언어 변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보경(1994), 「先語末語尾 {-더-}의 意味 研究 : ‘-더-’에 關한 複合範疇 設定을 中心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로지(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더-’ 결합형과 ‘-던’의 교육방안」,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俞旭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겠-’의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동석(1981), 「‘-더-’의 의미에 대한 관견」, 『冠嶽語文研究』 6-1, 학술저널, 205~226.
- 유훈동(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겠-’의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연(2000), 「안맺음씨끝 ‘-더-’의 의미 연구: ‘-더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애(1984), 「‘-겠-’의 의미」, 『국어국문학』 22, 부산대학교, 456~469.
- 이기용(1978), 「言語와 推定」, 『국어학』 6, 국어학회, 29~64.

- 이수련(2013), 『한국어 강사 되기: 문법편』, 셀코한국어교육연구소.
- 이윤진·노자니(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 『한국어 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3~209.
- 이익섭(1986), 『국어학개설』, 학연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주행(2011), 『알기 쉬운 한국어 문법론』. 역락.
- 이혜영(1998), 「문법교수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이홍식(2003),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 의미학회, 229~255.
- 이효상(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207~250.
-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서」, 『국어학』 37, 국어학회, 115~147.
- 임재진(1998), 「서법 형태소 ‘-겠-’의 의미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1980), 「‘-겠-’과 대상성」, 『한글』 170, 한글학회, 587~630.
- 장경희(1983), 「‘-더-’의 의미와 그 용법」,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293~313.
- 장경희(1985), 「국어의 인지양태」, 『동아시아 문화연구』 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523~534.
- 장뢰(2011), 「한국어 ‘-더-’ 결합 문법 항목의 대조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아(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정(1996), 「연결어미 ‘-더니’의 의미와 통사기능 및 제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철현(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현배(1959), 『우리말본』 개정판, 정음사.

현윤호(2001), 「과제 수행 중심의 말하기 지도 방안」,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511~531.

홍종립(1985), 「‘-겠-’의 의미」, 『논문집』 22, 청주교육대학교. 301~318.

張瑜(2013), 「韓中表示推測情態的語法形態之對比研究」, 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

周慶來(2009), 「韓國語先語末語尾 ‘-겠-’ 的語法意義在漢語中的對應研究」, 延邊大
學, 석사학위논문.

Brown, H. Douglas(1994), 『Teaching by principles』, Longman.

Brown, H. Douglas(2008), 『원리에 의한 교수: 제3판』, Longman.

Brown, H. Douglas(2009),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제5판』, Longman.

<인터넷 자료 출처>

드라마 대본 출처 ‘http://www.hjzlg.com/YCMS_Down.asp’.

ABSTRACT

A Study on Prefinal Endings, ‘-Get (겠)-’ and ‘-Deo (더)-’ for Chinese Learners

Ting-Ting Yu

The role of grammatical training of Korean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enhance Korean language ability of Korean learners of foreigner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s 'ending system' because it is very complicated and various. Especially for Chinese learners, it could be more difficult. Chinese language does not have the developed ending system like Korean language because it is the isolating language. Korean language's endings are divided into final endings and prefinal endings according to their positions. And among them, prefinal endings, ‘-Get (겠)-’ and ‘-Deo (더)-’ tend to be very often used in the daily life of Korea. Furthermore, learners of foreigners have difficulties in learning them and there are a lot of errors in them because they have the complicated characteristics in tense, aspect, and mood categories. This study first restricted the Korean language's prefinal endings, ‘-Get-’ and ‘-Deo-’ syntactically focusing on these points, reviewed them accordingly, and suggested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plans.

Chapter 2 introduced the meaning of prefinal endings, the concept and category of syntactic constraints, and syntactic constraints of the prefinal endings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and described teaching methods of the Korean language. The prefinal endings are shown between the stem and final ending of predicates. Final endings mean grammatical morpheme shown in the longest distance from the stem of predicates when

they are utilized, while prefinal endings means grammatical morpheme shown before final endings by considering their appearance positions.

Syntactic constraints can be constraints that must just create grammatical sentences and prevent ungrammatical sentences. 'Syntactic constraints of prefinal endings' that will be handled in this paper means the phenomenon that prefinal endings are static when being applied to sentences and the endings which cannot be matched with each other must not be applied together.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mainly teaching methods of translating traditional grammar and audiolingual teaching methods. By 1980, various foreign teaching methods began to be known. In 1980s, systemic reaction and silent way teaching method were presented. And in 1990s, communication-centered teaching methods were introduced. Studies on grammar education and task-centered teaching methods of speaking by utilizing communication teaching methods were conducted by Lee, Hae-yeong (1998) and Hyeon, Yun-ho (2001). 5 level teaching models that are commonly handled here are examined.

Chapter 3 discussed syntactic constraints of prefinal endings, '-Get-' and '-Deo-'. For the prefinal ending, '-Get-', syntactic constraints shown according to the meanings of 'guess', 'will', and 'possibility and ability' and 'selective constraints aspect' with connective endings were analyzed. Examining person constraints of the prefinal ending, '-Get'' shown according to sentence types, subjects of the first person are constrained in case that predicates show the meanings of 'guess' as verbs in declarative sentences, but constraints of subjects of the first person is solved when verbs, the predicates, have no arbitrariness or are expressed as the past. When '-Get-' is used as the meaning of 'will', subjects of the second and third persons are constrained. It's because speakers cannot decide other persons' will except the speakers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persons are not constrained when '-Get-' shows the meanings of 'possibility and ability'. In interrogative

sentences, the 2nd person is constrained when predicates shows the meanings of 'guess' as verbs. At this moment, it shows the meaning of 'will', not 'guess', because listeners themselves are the main agents of behaviors. The 1st and 3rd persons are constrained when '-Get-' shows the meaning of 'will'. This is because listeners cannot decide other persons' will except themselves. Persons are not constrained when '-Get-' shows the meaning of 'possibility and ability'. Examining if predicates are constrained, predicates are not constrained when '-Get-' shows the meaning of 'guess'. Generally, '-Get-' applies to verbs only when it represents 'will.' This is because adjectives and 'substantive + Ida (이다)' cannot make speakers active agents. However, '-Get-' shows the meaning of 'will' if adjectives and 'substantive + Ida ' can express speakers' self-controlling power. '-Get-' applies to verbs only when it shows the meaning of 'possibility and ability.' This is because adjectives and 'substantive + Ida ' cannot have activity. Examining if the tense is constrained, the tense is not constrained when '-Get-' shows the meaning of 'guess'. However, the past tense is constrained when '-Get-' shows the meaning of 'will'. This is because 'will' of the past things cannot be expressed as it expresses psychological attitudes of the main agents of judging the things or behaviors that do not happen yet and could take place in the future. However, the past things can represent will of the future at that time in quotations. Usually, '-Get-' applies to the present tense when it shows the meaning of 'possibility and ability' and the past and future tense is constrained. As speakers' psychological attitudes about facts of the past or the future are shown, '-Get-' does not show the meaning of 'possibility and ability' but 'guess' of the past or the future. Examining sentence types of '-Get-', proposative and imperative sentences are constrained. This is because proposative and imperative sentences cannot be matched with '-Get-' that shows the meaning of 'guess', 'will', and 'possibility and ability' as they ask other persons to behave. When '-Get-' shows the meaning of

'will', exclamatory sentences are constrained. This is because expressions of 'will' cannot be matched with exclamatory sentences because speakers show their strong feelings in them. When '-Get-' is used with connective endings, there are the cases of being constrained. The connective endings that can or is okay not to be connected to '-Get-' include -Go (고) and -(Eu(으))Myeo (며)(List).' The connective endings that can have suitable sentences when they must be connected to '-Get-' include '-Eu(으)na(나), -Jiman (지만), -Neundae (는데) / -Eu(으), and ndae (는데)' used as the meanings of 'confrontation and contrast' and '-Eu(으)ni니, -Eu(으)nikka(니까), and -Eu(으)meuro(므로)' done as the meanings of 'reason and causes.' The rest connective endings that cannot be connected to '-Get-' include '-Eu(으)Myeonseo(면서), -Myeo(며), -Ja(자), -Jamaja(자마자)', used as the meaning of 'simultaneous' and '-Go(고), -Aseo(아서)/Eoseo(어서)' done as the meanings of 'chronological sequence', and '-Daga(다가)' done as the meaning of 'change'.

'-Deoni(더니)', the connective ending of '-Deo(더)-', the prefinal ending, was separated from '-Deoni(더니)(Causes and contrast)' and '-Eotdeoni(엇더니)(Causes and discovery)' and syntactic constraints shown in them was analyzed. For '-Deora (더라)', the final ending, syntactic constrains according to meanings ('Remembrance and report' and 'expression of feelings', and 'talking to oneself') was analyzed.

For '-Deon(던)¹', the article-type ending, constraints of preceding verb types and the meanings of '-Deon(던)¹' and '-Eotdeon(엇던)' were analyzed. First, examining person constraints, For '-Deoni(더니)¹(Causes)', the connective ending, the 1st person is constrained, but '-Deoni(더니)²(Contrast)', persons are not constrained. For '-Eotdeoni(엇더니)¹(Causes)' and '-Eotdeoni(엇더니)²(Discovery)', the 2nd and 3rd persons are constrained. Generally, for '-Deora (더라)¹ (Remembrance and reporting)', the final ending, the 1st person is constrained. However, when speakers make the other parties know their

things newly, that is, inform them of them by objectifying them, the 1st person is possible. For ‘-Deora (더라)²(Expression of feelings)’, the 2nd and 3rd persons are constrained. This is because speakers themselves do not know other persons’ psychology, mood, or feelings. However, there are cases that speakers can recognize other persons’ feelings. At this moment, subject constraints of the 3rd person is solved. For ‘-Deora (더라)³(Talking to oneself)’, the person is not constrained. Examining predicate constraints, for ‘-Deoni(더니)¹(Causes)’ and ‘-Deoni(더니)²(Contrast)’, predicates of antecedent clauses are not constrained. For ‘-Eotdeoni(엇더니)¹(Causes)’ and ‘-Eotdeoni(엇더니)²(Discovery)’, ‘Adjectives’ and ‘substantives+Ida’-typed predicates are constrained. For ‘-Deora¹(Remembrance and report)’, the final ending, predicates are not constrained. However, ‘-Deora²(Expression of feelings)’ cannot be matched with verbs or ‘substantives+Ida’. For ‘-Deora³(Talking to oneself)’, predicates are not constrained. Examining if tenses are constrained, for ‘-Deoni¹(Causes)’, ‘-Deoni²(Contrast)’, and ‘-Eotdeoni¹(Causes)’, the connective endings, the tense is not constrained. However, for ‘-Eotdeoni²(Discovery)’, there can be the future tense in following clauses. Because following clauses are facts of the future or the facts that speakers already get to know, they become ungrammatical sentences when the future sentence is used. For ‘-Deora’, the final ending, the speech time is ‘the present’, the recognition time is ‘the past’, and the accident time can be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However, For ‘-Deora² (Expression of feelings)’, speakers’ psychology just applies to the past tense because they always know it. By sentence type, ‘-Deo-’ is not used in proposative and imperative sentences irrespective of grammar details. ‘-Deora’, the final ending, is used in the form of ‘-Deonya(더냐)’ and ‘-Deogunyo(더군요)’ in interrogative and exclamatory sentences. ‘-Deora³(Talking to oneself)’ can just be used in interrogative sentences because speech is done as if speakers ask themselves alone. 선어말어미 ‘-더-’의 관형사형 Constraints of ‘-Deon¹’, the

article type of '-Deo-', the prefinal ending, was analyzed after examining constrains of preceding verb of '-Deon¹' and the meanings of '-Deon' and '-Eotdeon'. For the preceding verb types of '-Deon¹' that 'incomplete' and 'one time and repetition' functions are added, instant verbs are constrained. The preceding verb types of '-Eotdeon' that 'complete' and 'one time and repetition' functions are added are not constrained. And meaning constraints of '-Deon¹' and '-Eotdeon' are divided into 'incomplete' and 'complete' constraints, 'past and continuous' constraints, and 'one time and repetition' constraints.

Chapter 4 presented error aspects related to '-Get-' and '-Deo-', the prefinal endings arranged, according to their syntactic constraints. And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of '-Get-' and '-Deo-', the prefinal endings, was designed by using the five level teaching model of 'Warm-up → Presentation → Practice → Use → Follow-up' based on the communication-centered teaching methods.

The warm-up stage is to draw contents about '-Get-' and '-Deo-' naturally for arranging lessens smoothly by arousing academic motivation and their interest. '-Get-' and '-Deo-' variously used in the method that teachers ask students questions and communicate with them were introduced. The presentation stage is to present meanings to elementary learners to make them recognize the forms and usage of '-Get-' and '-Deo-' and do syntactic constraints by meaning to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In the practice stage, various exercises were presented to make learners understand syntactic constraints of '-Get-' and '-Deo-'. In the use stage made learners accustomed to syntactic constraints of '-Get-' and '-Deo-' by utilizing scripts of Korean TV dramas, 'Full House', 'You Are Beautiful', and 'The Innocent Man'. The study examined how the person, predicates, the tense, and sentence types are composed in the sentences including '-Get-' and '-Deo-' by using the scripts of the TV dramas. The sentences reproduced in real life

make students understand situations of syntactic constraints of ‘-Get-’ and ‘-Deo-’ more easily than before. As they are added to the sentences translated into Chinese language, they can make understand them more easily. The important process in this stage is to make students create sentences by themselves by combining each meaning of ‘-Get-’ and ‘-Deo-’ with their real life understanding them. In the follow up stage, the contents presented before were arranged.

As above, this paper studied constraints of person, predicates, the tense, and sentence types to utilize ‘-Get-’ and ‘-Deo-’, the prefinal endings well and the more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r Chinese learners. The author has the limit to discuss why syntactic constraints of the Korean language is done closely and the paper is locking in discussion because the author is not the native speaker of the Korean languag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grammar education methods of the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as well as the Chinese.